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本社機와 그 意義

一

本社는 百尺竿頭에 다시 一步를 내밟아 新年劈頭에 飛行機一臺를 購入當選하엿다. 實로 全世界를 도라본다하면 한 新聞社로서 能히 數十臺를 가진 社도 잇고, 또한 機體의 性能으로 본다할지라도 時速六百키로 以上에, 航續力三週間 以上의것도잇다. 이에 對하야 本社所有機는 時速이 僅僅 一百五十키로, 航速力이 僅僅 六時間이니 世界全體로 본다면 貧弱한 飛行機一臺의 所有쯤은 자랑꺼리가 도모지 못된다. 그러나 이것을 도리키어 朝鮮만을 따로떼여 본다하면 報道機關으로서 飛行機를 가지게 된것은 이것이 嚆矢로서 正히 半島新聞飛行史上의 第一頁第一行을 占할것을 믿고疑心치안는바이다.

二

그러나 本社가 巨額의 物質을 犧牲하야 斯擧에 出한것은 決코 一時의 자랑꺼리를 삼으려는것도 아니요, 또한 單純한 理論에 陶醉한 結果도 아니다. 實로 昨年에 잇서서의 三南水害又는 關西風水災當時의 實地經驗을 根據로 한것이다. 이 記錄的兩大災變에 際하야 報道의 敏速으로, 救濟의 迅速으로 到底히 他의 追從을 許치 아니할 程度의 使命을 다한것은 萬天下讀者諸位의 周知하는바라, 여기 다시 贅言을 要할바 아니어니와, 本社가 該兩大災變에 잇서서 能히 超記錄的 使命을 다할수잇슨것은 主로 飛行機의 活動의 賜物이엇던것이다. 汽車보다도, 汽船보다도 飛行機는 빠르다. 陸上으로 海上으로 가지 못할 境遇에 飛行機는 간다. 못갈데를 갈수가 잇고, 어느 交通機關보다도 빠르다는것을 理論으로는 알지가 오랫스나, 오래동안을 두고 그 理論은 우리를 움지기지 못햇던것을 昨年의 實際經驗은 우리를 催促하야 드대여 實行에까지 옮겨 노흔것이다. 百聞이 不如一見, 千가지 理論은 한가지 經驗을 못當한다는것은 이것을 가르친 말이다.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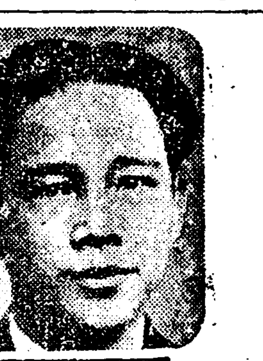
新聞의 使命은 報道와 救濟의 敏速周及에 잇다. 報道와 救濟의 敏速周及을 期하는데는 人類文化가 許하는 限度에 잇서서의 最新式交通機關 並히 通信機關을 利用하는데 잇다. 이러케 생각하면 今日에 잇서서 飛行機의 活動에 依하지 아니하고 新聞으로서의 兩大使命을 다하고저 하는것은 마치 牛馬를 타고 自動車를 이기려는것과 가튼無謀라고할것이다. 이와가치 本社는 新聞으로서의 使命을 가장 忠實히 다하고저 하는것이 飛機所有의 第一次的意義이어니와 同時에 우리는 斯擧에 依하야 朝鮮二千三百萬에 對하야 航空思想을 周及하자는것이다. 今日에 와서는 하늘은 다만 비와 눈이 오는데라는 程度쯤으로 알고 잇는 民族으로서는 競爭場裡에 參與할 資格이 업다. 더구나 今年부터는 世界的危機로 드러가는 첫해이다. 그런데危機의 對象은 바다와 하늘에 잇다. 따라서 今後는 飛行機의 活動에 依치 아니하고는 新聞의 使命도 다할수업거니와 航空思想을 가지지 못하고는 世界的 危機에도 理解할수가 업는것이다. 이에 本社는 二千三百萬에 對하야 航空思想을 周及하는 任務를 다하랴, 報道의迅速을 期하기 爲하야 莫大한 物質的犧牲을 不顧하고 斯擧에 出한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昨年三南水災時의 重大한役割을 다하고, 또 今番, 飛行機를 所有하는데 잇서서 처음부터 끗까지 斡旋의勞를 다해준 航空士 愼鏞項君에게 對하야 感謝하는 同時에 後世에 新聞飛行史를 쓰는 이로 朝鮮日報社를 잇지아니하는 이면 또한 愼鏞項君을 잇지 아니할것을 굿게밋는바이다.

民主的無訓練國엔 獨裁政治는不可

中國은只今平和的統一을要望

汪精衛氏全國放送



【南京發】國民政府行政院長汪精衛氏는 二十六日南京放送局으로부터 全國에向하야 平和統一, 獨裁問題等에對하야 約二十五分間 左와如히放送하엿다.

國民政府는 바야흐로和平統一을要望하여마지안는다 그것은 十一月二十七日 蔣介石과余의 連名通電에잇서 明確히하엿고 五中全會議에서도 이미其原則이通過되엿다 余는 今日 和平統一의 方法에 對해서가안이라 和平統一의 目的에 對하야 말하겟다 國民政府는왜 平和統一을 希求하는가 外間에서는 中央에地方을統一할實力이업슴으로 和平統一을希求한다는等 中央은 姑息偸安之策으로 和平統一을 希求한다고 云云한다 그러나 그것은 認識錯誤다 九·一八事件以來 國民은 모다 國難에赴할決心을갓고잇고 統一을破壞하려든者는 모도失敗되엿다 卽福建事變은 一個月內에 平定되엿고 孫殿英은 十萬의 兵力을 擁하고 叛旗를 드럿스나 겨우四十日에 解決되엿다 이것으로보드라도 中央에統一의能力이업다는것은 不當한見解다 그러면 和平統一의目的은那邊에잇는가하면 全國의力量이集積하야 困難을打開하는데잇다 그리고國難을 打開하려는世界의最强國과 同等한實力을갓지안호면안될것이다 故로我等은 國力을 培養하기爲하야 于先 國防과文化를 除外한比較的必要치안흔部分의 經費를縮少하야國防에余力을 集中하고 第二에는 分散된힘을 綜合統一하려는것이다 이것이 和平統一의要道이며 此에依하야 全國軍隊를 國防化하고 對外的事變에 備하려한다 그리고金은獨裁問題에對하야一言하겟다 現在中國은 獨裁를必要치안는다 余는民主訓練이必要하다고생각한다 伊太利는大戰時四百萬名을動員식혀 百四十萬名을喪失하엿다 그리고무솔리니가 羅馬로進軍하엿슬時에는十萬의兵밧게업섯스나 死者는三名뿐이엿다 이것은當時伊太利人民과軍隊가民主的組織을모다갓고잇섯다는것을證明하는것이다彼等은大戰時共産主義者가 國內의經濟와 工商業을極度로恐慌에陷入식혓다는것을 認識하엿든것이다 萬一當時伊太利에內亂者가잇섯드라면 엇더하엿슬것인가 今日의成績을獲得하엿슬수업섯슬것이다 그것은卽其國民과軍人이 全部民主에對한認識과主張을갓고잇섯든것이다 그러나中國이果然이러할수잇슬가를熟慮하여야 할것이다中國의軍人이 이러한主張을갓고잇는가? 그리고 國民이民主的訓練을갓고잇는가……民主的訓練이업는 國家에는獨裁는不可能한것이다 (寫眞은汪精衛)

共軍常德에肉迫 湖南軍과猛接戰

賀龍部隊桃源城占領

【漢口發】賀龍軍의共產活動에對하야 確聞한바에依하면 桃源西北山中에 蹯居하고잇는 賀龍軍의一部 約二千은最近에 드듸여 桃源縣을 占領하고 同縣守備隊羅景琛部隊를 潰走케한後 常德縣城을 追하야 數日에亘하야 共產軍과 常德守備軍과의 間에 激戰이 展開되여잇다 常德危機의報道를 接한湖南의 何健氏는 長沙로부터 警備司令胡達軍의二個師와 第二十六師를 主力으로 急派하엿는데常德과 長沙間의通信은全然杜絕되여 其後狀況은不明하다 따라常德 桃源兩縣城은 洞庭湖西南岸에잇는重要都市이다

停戰地區에 叛軍侵入?

【北平發】數日前北平南方良鄕에서叛亂을이르킨 劉桂棠部下約三百名은 中央第二師及 萬福麟軍의一部와 交戰하면서 通州로向하고잇다 此에呼應하야察哈爾省境에잇서 孫殿英部下楊小仁은約二千의兵을 引率하고二十九日兵變을이르켜 宋哲元軍과交戰中인데停戰協定地區에 亂入할憂慮가잇슴으로 日本軍部는 情勢를監視하고잇다

安徽省의英國人 蕪湖安慶에撤退

共産軍活動依然猛烈

【上海發】데일리뉴스所報에 依하면安徽省南部의 共產軍은數回에亘하야 討伐軍에擊退되여陵陽鎭에西北十哩 九華山一帶에潛入하엿다고하는데 楊子江岸大通安慶方面으로부터 渡河를決行할憂慮가잇슴으로 共防衛에努力하고잇다 安徽省內의 共產軍의行動에關하여는情報가 區區하야推測하기困難한데 共主力部隊는四千名小銃三千을 擁하고 陵陽鎭附近에잇는듯 하다 其外宣城 寧國旌德間三角地帶에는 아직도 四百의 共產軍이 殘留하고잇다한다 그리고 南陵으로부터의報道에 依하면 政府軍은 陵陽鎭에서 共產軍一千에遭遇되여此를擊退한바 太平方面으로 退却식혓다하나 擬僞는確保할수업다 共產軍一千은 寧國을追하고 私服으로潛入하야 地方內政部長을殺害하엿다는報道가잇다 中國軍艦은沿岸一帶를 警戒하고잇는데英國軍艦 시리빠드號는 大通에너트號는 蕪湖에在하야 在留民을保護하고잇다 그리고安徽省內의英國居留民은 蕪湖及安慶을全部避難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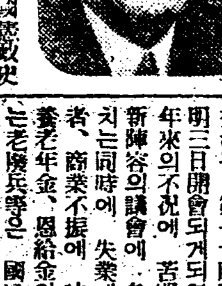
南昌行營解消코 四川에全力集中

注目되는蔣氏計劃

【南京發】四川에잇서 共產軍討伐部隊를指揮監督키爲하야 蔣介石氏는 南昌行營의第一廳長賀國光以下 거이主要廳員全部를四川으로派하야 四川剿匪參謀團을組織하엿는데 이參謀團은今後江西討共에잇서서 南昌行營과同樣의權限으로서 四川共產軍討伐部隊를 指揮할터이다 四川省政府主席劉湘도 軍事에 關한限 이參謀部에絕對服從하겟다는것을 聲明하엿는데 將來에잇서서는 軍事뿐만이라 政治도이參謀團의指令을受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蔣氏는軍事以外에 四川財政도中央에서 處理키爲하야 이미 四川省財政特派員陳紹嬀氏를 四川省政府委員兼秘書長 鄧鳴階氏와가티 四川으로派하엿다 同氏는重慶에特派員公署를 設置하고 于先 紊亂된 四川財政整理에着手케되여잇다 그리고 四川의驛校는 正式으로 中央으로 보내게되엿는데 蔣介石氏의 對四川統一策은 豫想한바와 가티 討共을 口實로 着着進行 되는터로 其成否는注目되여잇다 그리고賀國光氏以下主要멤버의 四川入決定으로 南昌行營은 부이게되엿다 蔣氏는南昌行營撤廢指令을 發하야이미二十五日 午後賀國光氏는行營職員을集合하야 撤廢準備會를開하엿다 따라南昌行營은 近近解消되리라한다

三日부터開會될 아메리카新議會

國民生活安定問題를中心으로 뉴띨政策의强化豫想



【電通華盛頓二日發】米國憲政史上未曾有의 大勝을博한民主黨이 上院(九十六名)에 六十九名, 下院(四百三十五名中)에 三百二十一名이라는 絕對多數를擁하고루-즈벨트大統領의 뉴띨政策을支持하는 第七十四議會는 드듸여 明三日開會되게되엿다 一九三〇年來의不況에 苦悶하는米國民은 新陣容의議會에 多大의希望을부치는同時에 失業에苦悶하는勞働者, 商業不振에 呻吟하는小商人, 養老年金, 恩給金의 支給을바라는老廢兵等은 國民生活의安定의 길이 이議會에서 打開되기를期待하고잇다 뉴띨政策이 過去二個年間의 實施에依하야 一億二千五百萬의 米國民의 多數의後援을 獲得하게되엿슴은 十一月의選擧에서 意外히信任投票가 行하여진것으로 今後는此新陣容에依한議會가 如何한對策을 講究하야米國民의社會的 安定의基礎를세우게될가함에잇서 從來牢固한共和黨地盤이라고 看做되든펜실바니아, 코네티커트, 마싸추세쓰의三州가 過般의 選擧에서 民主黨의陣營에 轉向한것은 此等州의産業勞働者가 聯邦政府의國策交涉援助에滿足한 事實을 立證하는 同時에 資本家는또 資本家로 N.R.A 푸로그람에서 추려스는取締法의 一部가撤回된데對하야 滿足을表한것으로 觀測되다 그리고新議會에서 論爭의中心으로되는것은 國家産業復興法의改訂問題로 就中團體交涉權을確認한 同法第七章第一項일것이다 昨年中에 勃發한만흔大스추라이크도 同條項의解釋에關한것이엿스니만치 新議會에서는此의更改와 意味限定은 當然問題될것이다 其他C·C·C(國有林保護市民團) 擴張 農村救濟第等도 重要問題로될것이다 다시一月十六日부터華盛頓에열리는 高物價와通貨增大問題討議를中心으로한 인플레슌論議의善後策, 다시外交上의問題로서는日本의 華盛頓條約廢棄에伴한日米關係海軍軍縮豫備會議 再開問題 武器輸出取締에關한 問題等에關하야서도 가장興味잇는論爭이展開될것으로觀測되다 (寫眞은루-스벨트大統領)

中國의無線電話 對外的으로發展

明春은쥬네브와開通

【電通上海三十一日發】國民政府交通部에서는 羅者英國伊太利等과의間에無線電話 開通實施를行하엿는데 今回다시쥬네브와의間에無線電話를 開始하기로되여英國으로부터機械를 購入하야明春三月부터 實施키로되엿다 滿洲事變當時眞茹無線電信所에서 宋子文, 라이히만氏가 宿泊하면서쥬네브와 無線外交에奔走하엿든데마침내쥬네브와의 無線電話開通으로 中國의對聯盟工作은 一層頻繁을加하게되리라고豫想된다

藏省閣議決定의 重要新規事項

昭和十年度朝鮮總督府特別會計豫算은旣報한바如하거니와 歲出中重要한新規事項은 如左하다

	千圓
滿洲國關係施設	三,五六七
農村振興施設	二,四四四
第三次窮民救濟事業(總工費八〇〇萬圓)	二,〇九
砂防事業(總額四六〇萬圓)	一五九
港灣修築(仁川,麗水,釜山,淸津總額一,四〇〇萬圓)	一,五〇〇
鹽田擴張追加(總額二,六二萬圓)	五〇〇
昭和九年簡易國勢調査(總額三三三萬圓)	一,五三三
籾檢查國營	三八四
棉作及緬羊飼育獎勵	一三〇
沿海州出漁獎勵(總額三〇萬圓)	一五三
鮮魚出荷獎勵	二五
師範學校新增設	二一〇
簡易學校增設	一一八
始政二十五年記念施設(博物館新營一〇〇萬圓包含)	一八〇
鑛業關係施設	一二八
水利組合對策	一,九〇一
府制施行(大田,光州,全州)	三九
農用林地設定	一五
秋風嶺等氣象觀測所新設	八二
少年刑務所新營	一〇〇

和蘭平價不切下

【海牙發】最近再次 和蘭政府가 길더貨의平價切下를 考慮하고잇다는 風說이 流布되어잇는데 오우드藏相은 이報道를全然否定하야 三十日左와如히言明하엿다 和蘭政府의 通貨政策은 全然不變이다 政府는從來와同樣으로 金本位制를堅持할方針이다

蔣介石氏杭州入

【上海發】鄕里奉化에서 休養中의蔣介石氏는 二十九日朝宋美齡夫人同伴自動車로杭州에向하야午後一時半同地에到着하야 洋舍澄廬에든後 곳浙江省政府主席黃紹雄氏及上海에서온 財政部長孔祥熙氏와會見코 重要協議를 行하엿다

八面鋒

◇新年劈頭, 二日부터 瀋陽에서 朝鮮語整理委員會가 열린다。

◇新年劈頭, 二千萬朝鮮語使用者의 가장깃븐消息의하나。

◇新年劈頭, 今年부터는 적으나 크나, 한가지 반가지라도 조흔일을하고지고。

◇新年劈頭, 사람마다 새決心을 하고새計劃을하기만은 어렵지 안흔일。

◇新年劈頭, 날마다 이때 이마음가트면 어려운일 두려운일 이 웨잇스랴。

今日本紙十二面

墺國獨立保障 協定不遠實現?

佛伊兩國交涉進捗

【倫敦發】비르추外相의 말세이유遭變에 犧牲된結果 佛伊兩國政府間의 新協定交涉은 一頓挫를 招來하엿든바 最近英會리니首相과 羅馬駐箚佛大使드샹브랑伯과의 間에急速한進展을 遂하야드디여協定이成立되리라고觀測되다아마明春初라발外相이羅馬에赴하야 佛伊兩國政府間의新協定案에 調印하게되리라고 豫想된다 協定案은 墺太利獨立保障을 骨子로 아프리카關係에잇서서佛國政府가重大한讓步를 提供하는同時에 歐洲政局에잇서서 佛伊兩國의共同戰線 確保를期한것인데 其大綱은左와如하다

一, 유고슬라비아 첵코슬로바키아 匈牙利三國政府는 英佛伊三國政府와가티 墺太利의獨立을支持하는데 同意한다

二, 佛國政府는 佛領소마릴란드一部를 伊太利政府에 讓渡하는데同意한다

三, 佛國政府는 伊太利政府에지붓트로부터 아지스아베바까지 鐵道經營使用에參加함을承認한다

今後軍縮方法은 外交交涉으로

【倫敦二十九日聯合特派員】二十八日山本代表及차트필드英軍令部長間에行해진 會談에關連하야二十九日英國側代辯者는 今後는專히三國間의 外交交涉에依하야再開手續을 論議키로 決定하고 如左히 闡明하엿다 日本의回訓은 英國案에對한完全拒否도아니고 또拒絶도아니다 山本代表는 二十八日會談에서英國側에對하야 다시二、三頁開進行하야 結局今後日英間에內部的 會議를行하기로되엿다 單히今後는松平大使아더튼米參事官及 크레기英參事官間에 外交交涉을通하야 豫備會談再開手段을論議키로된것이다 이英代表의非公式聲明은前途會談에아직希望이잇다는印象을줄 目的下에行한것으로 事實은日本의 態度에失望하고잇는模樣이다

松岡洋右氏에 滿鐵總裁就任希望

南駐滿全權大使가

【東京電話聯合】南駐滿全權大使는 赴任과同時에 對滿國策의 實施에 遺憾이업게하기爲하야 關東局總長에人格識見잇는 長岡隆一郞氏를 起用하야 更히對滿國策遂行上가장 關係깁흔 滿鐵總裁의更迭을 決意하고赴任에압서 某政界의巨頭를通하야 松岡洋右氏에滿鐵總裁就任을交涉하엿스나 松岡氏는 國內에일이만타는理由로 此를拒否하엿는데 南大將은 松岡氏에게期待를갓고 滿洲에업지못할人物이라하야 어데까지는지 松岡氏의就任을希望하는 模樣이다

恭賀新春

論山

忠南論山郡夫赤面忠谷里 大明金鑛事務所 主 金容一 主 直煥

忠南道扶餘郡內山面金池里 金池金鑛事務所 鑛主 尹相俊 鑛主 李拔鉉 鑛主 朴能默

論山月曜會

論山郡城東面定止里 盧奉植

大田郡大田邑大興町 尹燮炳

論山郡陽村面道坪里 道評議員 姜永植

論山郡論山面本町 曺星煥

論山旭町 天誠堂醫院 院長 郭海鳳 電話二五番

論山郡論山面旭町 論山至誠醫院 電話一八番

論山郡論山面本町 論山麯子株式會社

論山郡論山面旭町 東洋館主 李圭重

論山郡論山面榮町 鳳鳴館 主 李宗基

扶餘郡草村面素沙里 精米業 鄭樂信

論山郡 盧乙能

論山郡論山面旭町 東洋館妓生一同

論山郡論山面旭町 カフエライオシ

扶餘郡 草村面職員一同

論山郡農會

湖南線論山驛前 ㊂三和運送店 主任 孫翰守 電話六五番

論山自動車運輸株式會社

論山郡論山面旭町 司法代書人 金慶培

論山郡論山面旭町 朴準蒧

湖南線論山驛前 永信洋靴店

論山郡論山面本町 土木建築請負業 大東運送店主 任福淳

湖南線論山驛前 尹大炳自轉車商店

論山郡論山面本町 金大吉

論山郡論山面本町 綢緞布木商 趙重煥

論山郡論山面本町 ゴム靴雜貨商 李龍九商店

論山郡江景邑中町 延壽堂 乾材藥局主 裴榮瀚 電話三三番

論山郡江景邑中町 壽星堂 大藥鋪主 扈淳聖

論山郡光石面長 尹佑炳

論山郡光石面葛山里 産米改良組合 吳怡善

論山郡光石面葛山里振興會 顧問 方鍾九

論山郡光石面葛山里 振興會長 方永台

論山郡城東面長 金在喆

論山郡城東面定止里 酒造業 南宮璉

論山郡城東面定止里 崔圭玄

論山郡城東面花亭里 尹相遠

論山郡夫赤面長 尹胄炳

論山郡夫赤面扶九坪 金培源

論山郡夫赤面阿湖里 吳舜泳

論山郡魯城面邑內里 酒造社 尹錫福 鄭大圭

論山郡夫赤面阿湖里 金東植

論山郡 魯城郵便所

論山郡魯城面邑內里 米穀商 朴在九

論山郡魯城面孝竹里 梁成鎬

論山郡上月面長 朴弘緖

論山郡可也谷面長 洪淳亮

論山郡論山面本町 ㊀運送店

論山郡論山面旭町 無名氏

論山郡論山面本町 米穀商 蘇奇錫

論山郡論山面本町 飮食店營業 金光元

忠南論山 靴 レコード商 蓄音器 國一洋靴店 電話六五番

論山郡論山面本町 酒類業 金文洙

論山郡論山面本町 精米業 金洽元

湖南線論山驛前 論山理髮館 田德千

論山郡論山面旭町 朴貞來

論山郡論山面本町 朴淳正

湖南線論山驛前 論山洋靴店主 柳迎春

忠南論山郡榮町一四三番地 廣濟局 主 淳珍

論山郡論山面榮町 新興洋服店 主 趙重根

論山郡論山面榮町 精米業 金東順

論山郡論山面榮町 精米業 李在守

論山郡論山面榮町 米穀商 李錫仁

論山郡論山面葛谷里 金容直

論山郡城東面院北里 金元淳

論山郡城東面月城里 徐秉勳

論山郡城東面蓋尺里 趙煥九

論山郡光石面葛山里 精米業 方永周

論山郡光石面葛山里 精米業 金炳國

論山郡光石面梨寺里 吳淳根

論山郡光石面新堂里 徐用善

論山郡光石面新堂里 白南夏

扶餘郡草村面素沙里 李治相

論山郡夫赤面馬九坪里 李鍾泰

論山郡夫赤面阿湖里 金若洙

扶餘郡草村面素沙里 愼元粹

論山郡論山面旭町 德興洋靴店主 金商德

湖南線論山驛前 金銀細工業 高先弼

論山郡論山面本町 大惠堂藥房

論山郡論山面會計員 裵錫煥

論山郡夫赤面阿湖里 金顯寶

論山郡城東面牛昆里 李柄憲

論山郡城東面瓶村里 金琮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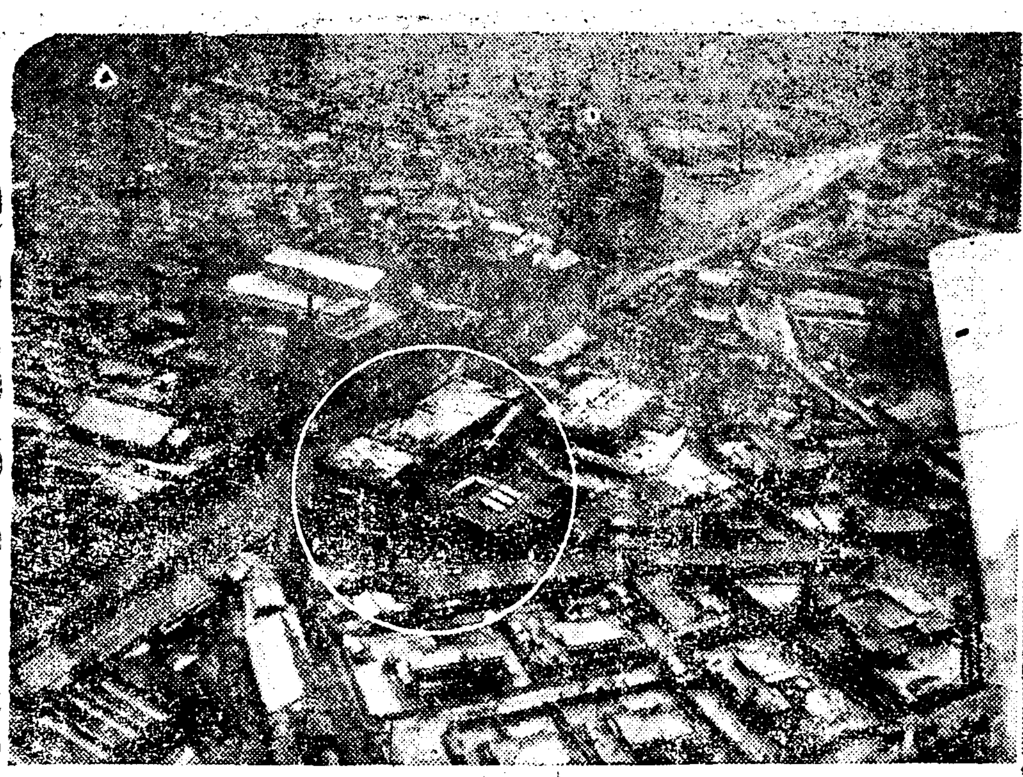
論山郡光石面五岡里 尹彝重

論山郡光石面葛山里 夜學敎師 金明培

論山郡光石面梨寺里 吳乙泳

扶餘郡草村面素沙里 愼道粹

論山驛前 精米業 任昌淳



本社機서 鳥瞰한 長安의 元日風光

여기는 남산을바로 내려다보는 발아래 버려진속세(俗世)의 조감도(鳥瞰圖)=한운의꾀송이에 무수히어려맞고 머리수그린남산은 그대로검푸른머리를 답복줄어 노흔 어느야심만흔회가의첫아춤의머그릇이나? 아춤서기어린 푸른소림이빨어올리는 씨언한냉기는 천공으로부터 우리들의『살림구손』을포옹해주엇다 산미테 엉크린일롱달롱한지리의 복판에 천주교당(天主教堂)이 웃둑소산(聳)는 신년초하로날부터 죄악의도시를 정화(淨化)식히겟다는 의기를 보이려고함인가?

○……○

이것은 봄날 아가씨의 바둑판차마 자라이다 오롤 조롤 한도안(圖案)은실로 영구히 대지에다 어붓도록 운명을바든 사람들의아담한가족주의(家族主義)의장으론상(牀床)의토막토막이다 여기 서 그들의회사와공장과관청까지의거리는아마개아미가장은롤맹이롤하나롤아가는것보다더할것은업겟지 조회(朝會)로모힌창신(昌信)보통학교생도모이 갈각이고사리 가튼 귀여운 팔들을일제히 흔드러서환영의뜻을 표해준다

○……○

옛날에는 이대문을 굿게닷고서도으로 오는도적은 념려업다고안심하고들 잠을잣다는데 지금은동동으로버치는 한길가의 장은교통방해물에 넘지안는일점의흑괴(黑塊)이상의도무엇인가?

이것을 기점으로 경성은동쪽에의 발전을 꾀한다고하나 공중에서보면오직 한자이내에서의 발악인것갓다

○……○

경성의에서 북경성의 심장부를꾀뚤고 광화문통까지 이르는한오리 힌뇌는 장안의 창백한혈맥이다거기를 소학교 학예회의전기실험처럼 사랑스러운 장은전차가파란등을 번적이며 기여가고 잇고 검은자동차가반짝반짝끌패쪽처름굴러간다그보다도훨신느리게 자전차가답보로를한다이한떼의바른편에 정(丁)자형으로 옷둑두거을라온붉은훈장(勳章)! 그것은비로긔설의 의기를변돌의 장벽속에 터집듯시 감추어가지고 완성에로맛비걷어가는본사사옥이다

=寫眞說明=

上左로부터 機上에서본 新築中의本社屋 上右로부터 出發直前의愼飛行士에게꼿다발贈呈=南山을넘어서 明治町天主敎附近=東大門外昌信洞附近=機上에서본 東大門 (本社寫眞班 文致暲撮影)

元日新設里大火

三戶四十七間을全燒

신년벽두에 시외 신설리(新設里)의대화재=일일오후여덜시오십분경에 시외신설리삼십번지 담배뻘뿌라멘드는 대창공업사(大昌工業社)공장화로의불이 실화되여 공장한채를 전소식히고 맹렬한바람에 이웃집 십이번지 최형식(崔亨植)의 숭인의원(崇仁醫院)신사번지 천운락(千雲洛)의집을 또 연소식히고 열시십분경에 진화되엇는데 전부사십칠간에 손해는 삼천원가량이라하며 원인에 대하야는 아직도 상세조사중이고 화재보험에 세집이 모다들지안헛다고한다 (사진은 화재현장)

濟州赤農事件 十七名送局

警備船으로木浦에

【濟州】 작년시월중순경에제주도경찰서(濟州警察署)에서는제주도구우면한림리(濟州島舊右面翰林里)를중심으로 도내는물론것도업시멀리마조와북조선대판지방에서청년백여명을 검거한 제주도적색 농민조합건설준비 위원회사건(濟州島赤色農民組合建設準備委員會事件)은 전남도경찰부의응원과 제주경찰서 산전경부(山田警部)의 총지휘하에 두달동안을두고 취조를한결과 지난십이월이십일에 사건전부가 일단락을짓고 김두경(金斗璟)등 [illegible]은 목포검사국에 송국되엿다고한다 금번이사건까닭에제검사(堤檢事)가직접 제주도경찰서에출장하야 취조하엿다고하며송국자십칠명은십이월이십칠일(十二月二十七日)밤에 경비선금강환(警備船金剛丸)으로 목포검사국으로 호송되엿다고 하며 남어지백십여명은 이십팔일에 석방되엿다고한다 사건 전체의 대략내용은 이십팔일에 제주도경찰서에서 발표하엿는데내용은 다음과갓다 이사건의 중요인물이고 지도자인김두경(金斗璟)은 소화팔년일월 중순경에도내모처에서 부병훈(夫秉熏)김경순(金京順) 김일준(金日準)등과 회합을 하야조선내지급도내정세를 중심으로 과거운동에 대한 엄정한비판과 금후농민조직과 운동방침에대하야 협의한후제주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제주도를 삼분하야동부는 김일준(金日準)서부는김경순(金京順)중앙은부병훈(夫秉熏)등이 각각지역분담을하고 김두경(金斗璟)은각지의련락과 통제에대한것을책임지고활동하기로하엿다는데 그활동한사실은 대략 다음과갓다 부병훈(夫秉熏)은 제주읍을 중심으로 민풍진흥회(民風振興會) 리민자치회(里民自治會) 리민회의(里民會議)등 일반대중조직에 참가하야 농민훈련과 전위획득하기에 노력하고 김일준(金日準)은 신좌면(新左面)을 중심으로 농민청년을획득하야 좌익농민 조합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김경순(金京順)은구아면을중심으로 노동자농민인텔리 청년을망라하야 노농연구동맹(勞農硏究同盟)을조직하고농촌소년을 훈련식히기 위하야 독서회등을 조직하고 좌익농민조직(左翼農民組織)을 확대강화하기에 노력한것이라고한다

送局者氏名

△濟州邑健入里 農業 金斗璟(三五)
△濟州邑禾北里 寫眞業 夫秉勳(三八)
△舊右面翰林里 洋靴業 金景奉(三七)
△舊右面翰林里 雜貨商 梁秉時(二二)
△新左面咸德里 勞働 金日準(三四)
△同上 理髮業 張漢鎬(二八)
△舊右面秋才里 農業 洪鄕玉(三三)
△同上 農業 張裕珍(二五)
△同上 農業 姜公治(一九)
△同上 農業 張炳允(三二)
△舊右面毛頭里 農業 金精孟(三〇)
△舊右面新昌里 書堂敎師 梁斗玉(三二)
△新左面咸德里 雜貨商 夫丙準(二九)
△同上 商業 夫生鎭(三二)
△同上 農業 金元根(三六)
△新左面新村里 農業 李起杓(三四)

製紙組合創立

【襄陽】 양군에는 년래로 조선지의산출이 년백여떵이 이상을산출하며 따라 지질도 매우조흔관계로 년년증산하여판매로까지 상당히 늘어감에도불구하고 통제된기관이 업슴으로일반은 항상유감으로 생각하여 제지조합(製紙組合)을조직하려고하든중 군당국과 도의원(道議員)함정길(咸正吉)씨의노력으로극력활동한결과 지난이십칠일 군회의실에서 다수제지업자의 출석하에 양양제지조합(襄陽製紙組合)을창립하기로결의하고 명년도부터 사업계획을하려고 제반준비를 착착진행중인대 다만지원주민의 힘만가지고는 도저히 경영하기곤난함으로 도당국에서 지방소기관들원조하여 다소의보조금이나마 보조하야주기를갈망한다고한다

汽動車轉覆

【長津】 지난십이월이십팔일오전열시 오십분경에 장진선(長津線)기동차일백팔호가충남(忠南)에서 함흥(咸興)으로 향하든중신대(新垈)여울일팔『팔십키론』상거한지에서 돌연전복되얏는데 다행히승객은무사하얏다

運動競技

延專、中東籠球 今明發程

來八日부터 十日까지의 三日間 東京서 열리는 全日本綜合籠球大會에 出場할朝鮮代表全延專과全中東兩軍은이옥고日本遠征을떠나게되엿는데 延專軍은今三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發車로監督盧東奎氏引率下에, 全中東軍은 明三日午前十時五十分車로 監督朴榮傑氏引率下에 各各壯途에오를터이다(延專과中東의陣容은如左)

【延專軍】
▲監督盧東奎 ▲引率者李性求 ▲코ー치丁相允 ▲選手郭英、孫禮俊、廉殷鉉、金應錫、李萬傑、洪文吉、李象哲、韓仁桓

【中東軍】
▲監督朴榮傑 ▲選手 孫彼得 金致雲、辛在澈、申光浩、金炯奭 朴東漢 李容馥 李河澈 洪憲錫

全日本中等水上五千米經過

金君中等新記錄

第五回全日本中等水上大會에서 金永河君(前中央高普選手)이 千五百米決勝에 優勝하엿다함은昨報한바어니와 同大會五千米決勝戰은다음과갓다

【五千米】(오픈·코ー스)
▲一着 泉山(八戶商) 九分五九秒五(中等新記錄)
▲二着 金永河(目白商) 一〇分〇一秒〇(中等新記錄)
▲三着 中村(苫小牧)
▲四着 杉浦(東京六中) 一〇分二一秒四
▲五着 高林(諏訪蠶)
▲六着 幡磨(比海中)
(得點)八戶六、目白五、苫小牧四、六中三、諏訪二、北海一

女子氷上五百米

五十五秒新記錄

【奉天】지난三十日奉天國際스케ー트링크에서열린 全奉天氷上選手權大會女子五百米決勝에 瀧三七子는五十五秒七 鍛瀨暢子는五十六秒四의日本新記錄을作成하엿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七百七十六미리의 高氣壓은北滿에서 朝鮮으로퍼지고日本本州方面은 氣壓이얏다 全朝鮮一般은 天氣가 조코氣溫은釜山의三度와中江鎭의零下二十一度의사이에잇서 昨朝보다三度內外가 비렷다明日은日氣가조타…

昨日 最高 四、九 最低 零下二、四
今朝 最低 零下四、二
今日正午 二、七

一月二日(水曜)

◇午後六時 童謠獨唱과피아노獨奏 一、童謠獨唱 (가) 한울나라저쪽(宋) (나) 대장간(金) (다) 산밋헤오막사리(宋) (라) 겨울참새(金) 二、피아노獨奏 羊치는아이 월손作曲 三、童謠獨唱 (가) 집보는소녀(金) (나) 나의고향(宋) (다) 귀차(金) (라) 조각달(宋) 獨唱 宋甫先 全明姬 피아노獨奏와伴奏 玄霊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一) 金漢昌
◇同七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illegible]
리듸오·플레이·미ー팅
◇同八時 舞踊曲 一、念佛 二、굿거리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李日善 奚琴 池龍九 杖鼓 林鍾成
◇同八時三〇分 獨唱 一、새벽종…에머ー슨作曲 二、봄의信仰…슈ー베ー트作曲 三、希望의속삭임…호ー손作曲 四、安息의님…슈ー베ー트作曲 五、詠歌 歌劇白衣의婦人中에서…부알듸作曲 獨唱 崔泰浩 作奏 金聖南
◇同九時 京城立唱 一、놀량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蘇完俊 韓仁學 崔聖根

一月三日(木曜)

◇午後〇時五〇分 獨唱 金海
◇同六時 童話劇 되잡힌원숭이 全二景 金泰晳作… (配役) 호랑이……金鍾喆 여호……朴宣姬 톡기…李貴福 원숭이……李海順 가마귀…金貞童 金殷星 할아버지……金倉龍 青鳥會員… 效果…襲又燮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二) 朝鮮中央日報社 金東成
◇同七時三〇分 音律·銀山會像 女琴 金基豊 伽倻琴 李石速 洋琴 李秀松 奚琴 金德鎭 短簫 洪斗憲 細笛 李守吐 杖鼓 池龍九
◇同八時 京城歌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제비歌 檜牧丹 金蓮玉
◇同八時三〇分 管絃樂과獨唱 (朝ー느演奏) 一、管絃樂 갈와의序曲 멘델스존作曲 二、獨唱 (가)歌劇피가로의結婚…모ー차르트作曲 (나)歌劇魔笛… 三、管絃樂 (가)牧者의노래 그런제作曲 (나)田園風景 四、獨唱 歌劇노르마…베리ー니作曲 五、二重唱 歌劇 세빌리아의理髮師…롯시ー니作曲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名山 二、唱劇調 春香歌中 秘鎭齡 李東伯 鼓手 韓成俊

一月四日(金曜)

第二放送 (波長九二〇米)
◇午後〇時五分 古談 [illegible]
◇同六時 童話 거지가된王子 延星欽
◇同六時二五分 講演 新年의展望(三) 李光洙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 진양됴 (나)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倂唱 (가) 短歌 (나) 唱劇調 水宮歌 沈相健 鼓手 丁元燮
◇同八時二五分 俗曲 一、寧邊歌 二、青春歌 三、도라지打鈴 四、開城난봉가 五、방아타령 六、梁山道 七、漢江水打鈴 李魚紅 細笛高載德 短簫崔壽成
◇同八時四五分 (東) 室內樂 피아노三重奏曲 C短調作曲 三一아렌스키ー作曲 실로타·트리오

金堤

金堤驛前 ヤンマー特約店 改善機械商會 主 安東淳

金溝面上新里 張學源

金堤驛前 完全修理 改善時計店 取次電話三六

全羅北道金堤 東津水利組合

金堤土曜會

金堤郡進鳳面 面長外職員一同

金堤郡竹山面 安日善

金堤郡孔德面 面長外職員一同

金堤郡萬頃面 鄭錫駿

金堤郡進鳳面 柳東熙

三星釀造社 電話一五四

金堤邑 金萬自動車組合 電話一八

金堤郡靑暇面 姜佑容

金堤郡靑暇面 姜仁容

金溝郡金溝面 張鉉鍾

金堤郡院坪 金院酒造場 李喆相

全北井邑 喪中矢禮 殷成河

金堤郡靑暇面 姜漢容

金堤郡萬頃面 米穀商 白錫在

金堤邑 新豐醫院 院長 鄭公善

金堤郡廳 職員一同

金堤郡竹山面 職員一同

金堤郡萬頃面 面長外職員一同

金堤郡靑暇面 面長外職員一同

金堤郡白山面 姜鏡鎔

金堤 木曜會

金堤邑 秋月館

金堤邑東拓農場 金永敏

金堤邑 漢藥貿易商 仁和堂 安兌鎬

金堤郡白山面 鄭寅洙

金堤郡下鵝面 喪中矢禮 金允昌

金堤郡草處面 宋基德

金堤郡金溝面 張容圭

金堤郡竹山 聖德醫院 醫師 吳海寬

金堤郡龍池面 面長外職員一同

金堤郡[illegible]面 面長外職員一同

金堤邑 蓄音機洋靴 長興洋靴商會

金堤郡金溝面 無名氏

金堤郡金溝面 面長 溫聖河

金堤邑長 橋本央 副邑長 曺奭日 外職員一同

金堤郡白山面 鄭寅鳳

金堤郡竹山面新興里 羅哲柱

金堤郡竹山面 米穀商 羅七順

金堤郡[illegible]面 米穀商 洪性浩

金堤郡竹山面 李殷涉

金堤郡萬頃面 木本繁松

金堤郡萬頃面夢山里 李周同

金堤郡進鳳面 崔東烈

金堤邑 趙在南

金堤邑 金昌鎬

金堤郡萬頃面 崔賢默

金堤郡草處面 新興釀造場主 千金珍

金堤邑 內山豐次 電話一一七

崔朱陽

金堤郡靑暇面 張太錫

金堤郡靑暇面 榮信商會 朴宗石

金堤郡金溝面 九成金山鑛業所

金堤邑 會議員 洪鍾萬 電話一〇五番

金堤郡白山面 姜鐵容

金堤郡竹山面 丁平三

試驗管中의나라 運動
NRA의·改造·와 國際的·協調·主義
(二)
韓普容

루氏의人氣와 NRA의功罪

지난十一月六日 아메리카의中間選擧에依하야 政府與黨인 民主黨은 三分之二以上의 壓倒的勢力으로 大勝利를보게되엿다。이事實을드러 곳 아메리카國民이 NRA를全面的으로 支持贊成한다고말하는사람이만흐나 이것은速斷이다。루ー스벨트大統領의人氣가조흔것만은事實이나그것은景氣回復을爲하야 NRA에나타나는 루氏의 勇氣와精力을 稱讚하는것이오 決코 NRA의 具體的政策까지 贊成하는것은안이다。

아메리카사람은 일을조와하는國民이다。일中에도 새일을 조와한다。Something new! 이것은 양키國民의 共通性이다。그들은 靜的百姓이안이오 **動的國民** 이다。어떠한때、어떠한나라를勿論하고 消極主義보다 積極主義가 人氣를 더끄는것이 通例이지마는 양키國民에잇서서 그傾向은 特別히 顯著하다。그리고 伶俐한 루ー즈벨트氏는 「키ー」를 運轉하는데잇서서 政策이 失敗하는 境遇에 빠저나갈구멍은 미리만드러노코잇다。그리하야 NRA가 失敗에 도라가드래도 米國國民은 「부레인추러스트」를 攻擊하고 존슨復興局長을非難할지언정 루大統領에게 責任을지우지는안는다。이것이 루氏가 人氣를集中식히는 妙法이다。그리고 公平한 眼目으로보드래도 그手段方法이야 如何튼 恐慌克服을爲한 루氏의 熱誠만은 否認할수는업는것이다。

NRA를 景氣回復運動이라고 본다면 別問題 이지마는 그具體的政策을包含한 代名詞라한다면 NRA에對한非難이 決코적은것이안이다。NRA의 治績에 對하야 記者가여긔서 **日可日否** 하고 論하는것보다도 루大統領自身이 任命한 NRA檢討委員會의 報告書에依하야 NRA의 缺點을 要約紹介하는것이 眞相把握에 便宜할것이다

陣營에서退却한 ●존슨 前復興局長

報告書의要點

一、NRA는 獨占的傾向을 助長한다。

一、NRA는 生活費는 增大식혀스나 賃金騰貴는 此에同伴치못하엿다。

一、小企業은 大業壓迫下에 續續破産을當하고 消費者는 獨占的事業下에 騰貴되는高物價에 呻吟한다。

一、NRA가 目標로하는 「公正한競爭」이라는것은 한個의 幻想的存在이다。

존슨氏退却과 NRA의改造

다로氏를 委員長으로한 以上 NBA檢討委員會의 報告書內容이 NRA의 失敗的事實을指摘하엿다하야 當時 존슨復興局長은 NRA檢討委員會를 解散식혓다。그러나 NRA檢討委員會를 解散식혓다고 NRA의 治績이 갑작이드러날理는 萬無하다。안이 同委員會가 指摘한 NRA의失敗的 엘레멘트의作用은 더욱 顯著하게되엿다。特히 物價引上에 對比한 賃金不同伴으로 勞働者의生活에 威脅이增大함에 딸아 西海岸埠頭人夫의 總罷業、全米織物職工의 總罷業을 爲始하야 아메리카社會의不安相은 날로더 深刻하여갓슴에不拘하고 존슨復興局長은 依然히 勞働者를 壓迫하려하엿다그 러나 **生死岐路** 에선 勞働者의감정은 이미定하여잇슴으로 彈壓에依하야 그들이鎭靜될리가 업섯다。이情勢를 充分히 看破한 루大統領은 從來의統制强化政策緩和를 決意코 調停에出馬하야 結局勞働者側의 勝利로爭議가解決되엿다。이에 復興局長과 大統領 사이의 意見不一致로 존슨局長은 지난 九月에 드듸어 辭職하게 되엿다。이機會에루氏는 NRA의 改造에 着手하야 獨裁的機關 復興局을 업새고 全權을 自己手中에쥐엿다 그리고 리취벌氏를 委員長으로한 産業緊急委員會(Industrial Emergency Committee)라는 合議機關을 設置하고 政府高官四名을 委員으로 選定하엿다。

改造된 NRA의新政策을 一言으로 要約한다면 「自由競爭에의轉向」이라하여도 無妨할것이다。産業緊急委員會를 大統領의 **直接監督** 下에두고大局的으로 [illegible]統制하야 大企業의 獨占的傾向을 制裁하는一方 國營企業進出을 助長하며、中小工業壓迫의 非難對策을樹立하야 NRA運動을更生식히려는데잇는듯십다。

존슨將軍의뒤를니어 産業緊急委員會委員長으로 事實上 NRA의 牛耳를잡은 날드 리취벌氏는 十月四日 演說에잇서서 다음二點을 鼓吹하엿다。

一、浪費를防止하기爲하야 緊急한情勢로 不得已한 境遇에는 産業各部門에잇서서 可及的으로價格決定及生産統制를避할것。

一、可及的 將來의 競爭制度를 實施할것。

轉向된NRA 國際協調主義

「統制된資本主義」라는말은 그말自體에 矛盾이잇거니와 政治的으로는 데모크라시的觀念이 傳統的으로 鞏固한 아메리카國民이오、經濟的으로는 自由主義的資本主義에 浸潤된아메리카 國民이 急작히 팟쇼的統制政策을 歡迎할理가업다。NRA의目標는 「公正한競爭」에잇다하고마는 다로委員會의報告書와가티 「現代社會에잇서서는 「公正한競爭」이라는것은 한個의 幻想的存在에 不過하다。」

NRA總指揮官 도날드·리치벌氏

루ー즈벨트大統領은 以上과가티 NRA를 改造하는同時에 生産統制또는 物價引上에依하야 一個國만으로 景氣回復하려든 當初의意圖가如意치못함에鑑하야國際的 **協調主義** 에 그政策을 轉向하야 最近에 이르러는 列國과 互惠條約締結에 努力하게 되엿는대 第一着手로 지난八月末 큐바國과 의互惠條約締結에成功하엿다。

轉向 된新政策에關하여는 時間이 그結果를알여줄것이지마는 이 亦是 確乎한信念과 嚴正한 打算우에 나오는政策이안이오、이러케하여보와안되니 저러케하여보자는 無定見的政策이라 아모 期待를부칠 根據가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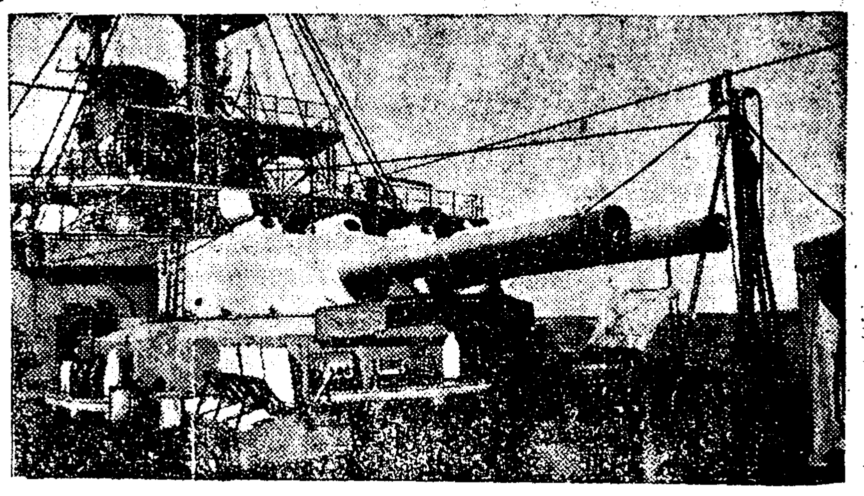
헐國務長官은 얼마前부터 「國際貿易을 破壞」하는 關稅障壁의 鬪爭또는 競爭을 痛說하엿고、요즈음와서는 「新協定의 眞意는 二國互相間의 片貿易調整만을 企圖하려는것이아니다。如斯한 偏狹的觀念은 經濟的 **自殺觀念** 이다。世界貿易의 大半은 三角多邊的貿易上에 築成된것으로 一國으로부터의 多樣的輸入은 他國에의 多樣的輸出에依하야 相殺된다……딸아 一國의 맛이컷드는 他國의 맛이컷드를 招致하는 原因이된다」하야 一九三一年 高率的關稅法案當時에 全米坊坊谷谷에서 귀압흐게떠들든 經濟原論의 初步的講義를 始作하고잇다。

以上 헐長官의『貿易論講義』에依하야 아메리카의 經濟的國際協調主義의 大綱을알수잇거니와 이러한信念下에 轉向된 NRA가 將次 成功할것이냐? 失敗할것이냐? 함은 讀者諸君의 判斷에 一任한다。(完)

헐 國務長官

NRA의成功을 宏壯히宣傳하는反面에 失業大軍은 依然히 減少되지안는다 實眞은 한조각의빵을 어더먹으려고 뉴욕大都市 한복판(Time Square)에모혀선 룸펜大軍

軍縮會議의展望
軍備의特異性·그制限方法
【2】
生卿駿



華盛頓條約과 各國利害關係

華府條約의主要內容은 大體어떠한것인가?

(一) 戰艦과航空母艦에對하야 各國의現有海軍力을 基準삼고 約四割의縮少를 行하기로하야 그建造計劃은 그當時이미進行中에잇고업고를莫論하고 一切拋棄하는同時 老艦中若干을廢棄한것

(二) 各國의戰艦噸數는 英米各五十二萬五千噸 日本三十一萬五千噸 佛伊各十七萬五千噸 또各國의 航空母艦은 英米各十三萬五千噸 日本八十一萬噸 佛伊各六十萬噸으로定하야 大概英五、米五、日本三、佛一、五 伊一、五의比率을取케한것

(三) 戰艦의噸數는 三萬五千以下로하고 航空母艦의噸數는 總噸數制限以內八隻에限하야三萬三千噸을許하되 그以外에는 二萬七千噸以下로한것

(四) 戰艦의備砲는口徑十六吋以下로하고 航空母艦의備砲는 口徑八吋以下로한것

(五) 米國은 필립핀群島 괌島、알류산群島의防備에對하야現狀維持를約하고 日本은奄美大島 小笠原島에對하야 그와가티하기를約한것

이와가튼華府條約에對하야 各國의利害는 어떠한가?

(一) 英國은 大戰以後第一位의海軍國으로서 米國과의同率을甘心하는것이 반듯이快한날이아니나 英의五가佛伊各二、五의合計에匹敵하야 그래도歐洲에잇서서는 覇權의保障을어든것이滿足할것

(二) 佛國은 英米等各國에比하야 廢棄噸數가僅少함이 다행으로녀기는바나 伊國과同率이반듯이不滿할것

(三) 米國은 한편으로英國과의同率을獲得하는同時 日本에對한優勢의海軍을가지고 渡洋作戰의 能力을保障케되매 무엇보담도 큰成功이라고할것

(四) 伊太利는 그當時佛國과同率만으로도 成功이라고할것

(五) 日本은 五五四比率의主張을 貫徹치못하고 五五三比率을 承認하고말앗슴으로 萬一攻擊對防禦兩軍의 勝敗에잇서 所謂그自乘法則이 適用한다면 五의自乘二十五 三의自乘九로 倍以下의 勢力에 노히어 米海軍의 脅威를當케될것이나 自由로운 補助艦의建造가잇고 또 필립핀群島等에對한 軍事的施設을不行한다는 約束이잇서 米海軍을對抗키에는 반듯이不利하다고말할수업는것

何如튼 그當時各國의軍事當局者들은 華府條約에 對하야 다各各不平의 소리를마지안하얏스나 別로 大端치는안하얏다。위선日本서도 樞密院에서그條約을審議할때 그比率에對하야不滿足이업지안햇스나 오즉將來에對한注意를 促할뿐 通過시키기에이르럿든것이다。

倫敦條約內容及列强의得失

그러면 또倫敦條約의 主要內容은 어떠한것인가?

(一) 華府條約에서除外된 巡洋艦 潛水艦 驅逐艦等補助艦에對하야 五相의 制限을行하기로한것

(二) 備砲口徑六吋以上의 大巡洋艦은 英十四萬六千八百噸 米十八萬噸 日本十萬八千四百噸、吋以下의 輕巡洋艦은 英二十一萬七千一百十一噸 米七萬噸 日本九萬八千四百十五噸 潛水艦은 日英米모다五萬二千七百噸 驅逐艦은 英米十五萬噸日本十萬五千五百噸으로 定하야 各種艦의 比率이不一하나 그總噸數에 잇서 大概英一〇〇 米一〇〇 日本七〇弱의比率을 取케된것。

(三) 上記制限量以上現有艦은 斷然廢棄하고 또建造中의것도 拋棄할것

이와가튼 倫敦條約에 對하야 各國의 利害는어떠한가?

(一) 日本은補助艦總噸數에잇서 十、十七의比率을얻고 더구나潛水艦에잇서서 同率을어든마큼表面上華府條約以上의効果를나타내엇다고볼는지모르나日本은 重要視되지안는輕巡洋艦과 驅逐艦에對하야는比較的多量의保有를어든反面첫재重要한大巡洋艦에對하야對米六割二分의量을어듬에지나지못할뿐이아니라 둘재무엇보다도重要한潛水艦에對하야는 現有勢力으로부터二萬六千噸을 일허버리고 潛水艦이그다지不必要한 米國과의同率로서게되마큼 日本의不利는 豫想以上으로크다고評價되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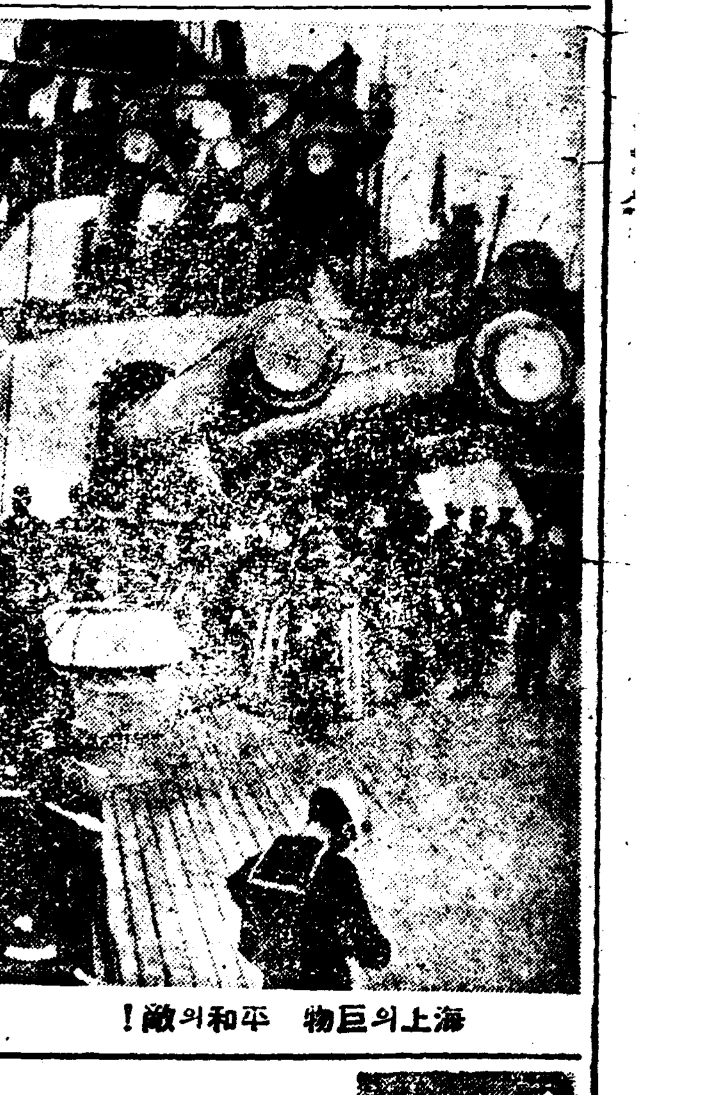
(二) 英國도 巡洋艦의增加要求를拋棄하고 大型巡洋艦의噸數도 米國의下位에떨어저 그點에對한不滿이업지안한것

(三) 米國은 華府條約에잇서서와마찬가지로 倫敦會議에잇서서도 가장有利한結果를어든것

맨처음 倫敦會議가開催될때 佛伊兩國도 招請치안한것이아니로되 佛國은 伊國과의均勢를 不肯하고 伊國은佛國과의均勢를固執하는關係上 佛國이그參加를 拒絕케되고 딸아서伊太利도 參加치안코말앗다。倫敦條約이 成立된以後 英國은 佛伊間의協定을 斡旋하려하얏스나 그역시佛伊間의 意見相違로 究竟아모所得도 업게되얏다。그런데 倫敦條約에對하야는 英國軍部도 不平과不滿을禁치못하얏지만 日本軍部는 자못憤慨하지아니치못하얏든것이 事實이요더구나 그條約締結에잇서서 統帥權干犯問題가 일어나게되매 一時樞密院을中心으로 相當한波瀾을免치못하얏든것이 事實이다。倫敦會議를가저 템스河畔에피를흘리지안한海戰이라고 말하얏거니와 海軍部內에서는一般으로 피흘리지안는이海戰에잇서 一大의敗北를招致케되얏다고하야 지금것그當時代表들의參謀를痛歎하야마지안는다。

兩條約滿期와 三五·六年危機

本來 華府條約은 그條約의規定에 依하야 一九三六年十二月까지絕對의效力을 發生케 되고 또그以後라도 그條約에參加한나라로부터 廢棄通告가 업는限效力의繼續을 보게되다고하고또어느한나라에서 그條約의 廢棄通告를行하는데는 반듯이 二年의豫告를要하되 그한나라의 廢棄通告가잇는날로부터 二年을지나서야 그條約은 다른各國에對하야서까지 效力을 喪失케된다고한다。倫敦條約도有效期間을 一九三六年十二月三十一日로 規定하얏스나 거긔에는다시 한거름나아가서 本條約의目的을 遂行키爲하야 新條約을締結코자 一九三五年에다시 會議를 開催할것이라고 明記해노흔것이다。그러니까 지금世間에서 一九三五年 乃至一九三六年度의 危機라고하는것은 要컨대兩條約의 滿期와 再開될海軍會議를가르칠에 지나지안는다。그두條約이 그대로 持續하게되느냐 그두條約이廢棄된後 새로운條約이 順調로이 成立되겟느냐等의 問題를에워싸고 各國의 神經이날카로와 지는것도 免치못할 現象이어니와 軍備擴張의競爭이 激烈해지거나 안할까等의 豫測을안고 世界의風雲이低迷한것도 避치못할일이다。一九三五年海軍會議를 一年압두고英國의斡旋아래 今年六月頃부터倫敦서 豫備會談을 開催하기에이르럿스나 休會에休會를거듭하야 目下休會中에 잇는터요 華府條約의 滿期를 二年압두고 日本은이미 廢棄通告를 行하얏스니華府條約의 效力은이로부터 消滅되기에 이를모양이다。多端한一九三五年 多難한一九三五年을마지하며 나는나시海軍軍縮의 前途를한번展望키로하것다。


海上의巨物 平和의敵!

軍縮에對한日英米三國主張

첫재日本의主張은어떠한것인가

(一) 比率主義를反對하는것。即相等한 國家間에 比率上差別을둔다는것은不合理하다는것

(二) 艦種別制限을 反對하는것。即國情이서로다르고 各種艦船의必要가 서로다름에딸아 總噸數로制限치안코 艦種別로制限하는것은 不可하다는것。

(三) 攻擊的武器의全廢乃至最大限度의制限을 主張하는것。即가튼武器에도 攻擊的武器와防禦的武器로 大別할수잇는터로 戰艦 航空母艦과가튼것은攻擊的武器에屬하고 驅逐艦潛水艦은 防禦武器에屬할것이라 驅逐艦、潛水艦보담은 戰艦乃至航空母艦의全廢乃至 最大限度의制限하는것이 軍縮의平和的意義로보아 得當하다는것

그다음 英國의主張은 어떠한것인가?

(一) 比率主義에對하야는 어느一面으로보아 固執치안하나 다른 어느一面으로보아구지反對치도안는것 即日米間比率의變更은 勿論 反對하는것이아니나 對米또는 對佛伊의比率은 現狀의維持를 꾀하려는것

(二) 小艦多數主義를 主張하는것。即그無數한 殖民地의保護를爲하야 廣大한海上의警戒를 爲하야 少數의大艦巨砲보담多數의小艦을 必要로하는것

(三) 日本이潛水艦을 防禦的武器로봄에反하야 英國은攻擊的武器라고 하는同時 日本이戰艦乃至 航空母艦의制限을高唱함에反하야 英國은潛水艦의制限을 强調하는것

그다음으로 또米國의主張은 어떠한가?

(一) 比率主義를 固執하는것 即日本의 比率主義反對에對抗하야 徹頭徹尾比率主義를 持續하려고 애쓰는것.

(二) 少數大艦主義를 主張하는것。即米國은 太平洋을사이에두고 機會均等의政策을行키爲하야 渡洋作戰을꾀하고잇는마큼 多數의小艦보담 少數의大艦巨砲를 必要로하는것。

(三) 潛水艦에對하야는 英國과의同一한 解釋과態度를取하는것。

日米間의根本的對立과英國

上記三國의 各異한主張에딸아서三國의對立關係를 알수잇스니第一에잇서 日米의對立과 英國의中立을볼수잇고 英米서로第二에잇서 互相의對立을볼수잇고第三에잇서 日本對英米의對立을볼수잇다。그리고 大艦小艦에對한英米의對立에잇서 日本은오히려英國側에 기우러지며 艦種別制限을反對하는 日本의主張에잇서 英은多少米와다르다고보인다。이와가튼五相間의對立을 能히 折衝하야서 새로운條約의締結을 果然可能케할것인가? 勿論華府倫敦兩條約을 締結할때에라도各國의그만한 對立이업섯든것이아니니 곳그對立으로서 새條約의締結不可能을 立證키어려운것이다。그러나 지금日本은 比率主義를 徹底히 反對하고잇고 米國은 그反對를 白眼視하는터가아닌가? 比率主義에 對한日米의對立은 가장根本的對立을 이루고 그對立의妥協이 가장困難視된에틀림이업다。그럼으로 豫備會談의經過를본다면 日米의正面對立과英國의中間的存在를나타내고잇는것이事實이다。아니日本이나米國이다한께 英國의巡洋艦增加를承認할뜻은눈치까지보이는同時 한편으로日英密約의風說이 傳하고 다른한편으로 英米合作의努力이들어나서 英國과의提携를노코 日米의角逐戰化한듯김조차업지안타。

『딜렘마』에빠진軍縮協定

그러나設使日英의握手가實現된다고하더라도 그것이도리어新條約締結을阻害하는것가치 英米의合作이成功된다고하더라도 日本이前日과가튼順從을질기어하지안할것이라 그것은오히려 非常한 事變을豫想한微妙한行動이요 決코새로운軍縮條約達成의 契機를 意味치안는다。그뿐이아니라 佛伊의關係도 如前히複雜한바잇스니 日英米三國의 協定만으로도 새로운軍縮條約의達成을豫期키는 어렵다。더구나極東에잇서 日蘇兩陸軍國의對立이잇고 歐洲에잇서 佛獨及伊獨等對立이잇지안한가? 一九三五乃至三六年의危機란것이 兩海軍條約의滿期로부터 指稱되는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반드시海軍問題로의危機만을指摘하는것은아니지안한가? 明年度海軍會議에對하야 各國의政治家나外交家가 만히樂觀보담悲觀에기울어저잇는것은當然한일이다。豫備會談의招請者인英國自身부터도 空軍擴張에汲汲할뿐이아니라。英國의키스元帥와가튼이는 佛伊兩國이倫敦條約에參加치안한것은先見之明이잇는닐이라고 도리어佛伊의不參加를賞讚하고잇다。勿論各國內에는 五相軍備競爭이不利함을알고 될수잇스면軍縮의協定을努力하려는사람이 업는것은아니다 어떠한形式으로든지五相의妥協點을發見코자 그들의苦心하고잇는點을無視하여서는안된다。

그러나一部에서는 現下各國의財政狀況으로보아 無制限한軍備의競爭이不可能함을들어서屈區히 軍備縮少를努力코자 구래어조그만犧牲이라도 支拂할것이업다고 力說하는사람들이업지안타。애초부터 軍縮會議에對하야全然愛着을늣기지안코잇든그들의態度도注目하지안하면안된다。지금各國間의 軍縮條約이새로이成立되느냐 안느냐는 이兩派의 活動如何에 달리엇다고볼수잇스나 그러타고 말하는것도 決코華府倫敦兩條約과가튼形式의 條約을成功하리라고는미더지지안는다。設使軍縮의妥協이成立된다고하더라도 暫定的糊塗的協定에지나지못하지안할까推測되는터로今日까지의 形勢로보아서는그以上의希望이不可能하다고밧게생각되지안는다。(完)

載寧

自轉車卸商 合名會社 安仲商店黃海配給所 主 安禹金 小賣部 朝日自轉車店

載寧邑內 載寧郡廳職員一同

黃海道載寧 金基秀

載寧驛前 ⊙黃海線運送株式會社

載寧邑內 載寧稅務署

載寧郡邑內柳花里 中華料理 利生源 電話六二番

黃海載寧 肥料業 載寧殖産公司 代表者 閔丙德

載寧 安寧水利組合

載寧 載信水利組合

載寧郡 南栗面職員一同

載寧郡載寧面菊花里 株式會社 載寧菊花釀酒場 電話五二番

載寧郡 載寧面職員一同

朝鐵載寧 自動車營業所 電話一〇四番

載寧邑內 日新組合 電話六六番

載寧邑內 李潤載

黃海道載寧邑內 長壽醫院 鄭東燮 電話五九番

載寧邑內 藥品 益壽藥房 電話七〇番

載寧郡鐵道 福生園 電話一〇八番

黃海道載寧邑 穀物 商 李重根商店 電話二一番

載寧邑內 中華料理 修養園 電話三五番

載寧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載寧邑菊花里 醫生 秦禎

南栗公普職員一同

黃海道載寧邑 木材·鐵物 肥料·農具 鄭寅材木商會 電話一五番

載寧邑內 秦晴喜

載寧郡三江面 三江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黃海道載寧邑 綢緞 布木 蔣成文商店

載寧邑內 白萬協

朝鮮黃海道載寧邑 耶穌敎書院 電話一一二番

載寧邑 李蘭榮

黃海道載寧邑 金成合名貿易社 代表者 金成讓

黃海線載寧驛前 金石商會

載寧邑內 東亞商會 電話一六番

鳥致院 鳥致院穀物商組合

鳥致院

鳥致院舊市場 朝鮮料理 漢陽館 妓生· 金牧丹·崔月香·卞彩玉·金山紅·崔惠心 金明玉·趙錦仙·金鳳仙·宋山月

京釜線鳥致院 南北棉業株式會社繰綿工場 電話一二九

鳥致院 司法代書人 李德浩 司法代書人 河天海 司法代書人 韓匡敎 司法代書人 元商轍 (가나다順)

燕岐郡錦南面 職員一同

燕岐郡東面 職員一同

燕岐郡南面長 林鵬洙

燕岐郡西面長 朴滿淳

鳥致院七區 朴之赫

鳥致院麴子製造組合

鳥致院吉野町 ホアシ 寫眞館

鳥致院 忠鳥酒釀造場 李元永

鳥致院 同仁醫院 院長 金鼎熙

鳥致院 新興醫院 院長 金致洙

京釜線鳥致院柳町一九〇 藥草唐草材貿易商 廣昌堂支店 主 金洛鉉

鳥致院市場 李漢炳乾材局

鳥致院市場 綢緞布木商 成善慶

鳥致院市場 朴基守

鳥致院 朝鮮料理 明月館

鳥致院 白井製絲工場

鳥致院本町 金順化旅人宿

鳥致院市場 新炭材木貿易商 黃奎熙

淸州郡江外面 李命洙

鳥致院柳町 新炭地金商 孫相淳

中國國民黨 鳥致院分部同人

燕岐郡西面 面會議員 尹炳一

燕岐郡西面月河里 閔泳學

燕岐郡錦南面 鑛主 錦南金鑛 金鼎甲

燕岐郡錦南面金川里 金剛道本部

鳥致院 尹相文

中等教育界의難題를차저

家庭과社會에보내는 學校當局의高見
入學試驗、運動選手、風紀等 解決하야할諸問題

조선의장래는 학창에서자라고잇는 남녀학생들의 건전한발육과 근면에달리어잇다 그중에서도 가장씩씩하게자라고잇는 남녀중등학생들이 잘되고못되는데 절대한관계가잇다 그들의 장래를위함은 곳 명일의 조선을 위함이니 이문제는 한가정이나 한학교당국자의 문제가안이고 전사회가가장신중히 생각하고편달하여야할문제이다 그런데 이들남녀중등학교학생을 위한문제중 당면한 난관으로 우리의관심을끌고 잇는문제로 천하에 뭇고십흔것이 실로 한두가지가안일것이나 그중에서도 오늘의문제로

一、입학시험을 철폐하느냐 마느냐

二、운동을장려하되선수본위로되는폐단이만치안흔가

三、가장 건전해야할 어린학생들이 세상의 악한풍도에 물드기쉬운것은 어찌할것인가

하는것이 오늘 학생계의문제 의중심이되여잇다 그러면 이세가지문제를 여하히 처결하여야할것인가 이에대하야 시내각 남녀중등학교당국자의 말씀들어 일반 사회의 참고로 삼고저한다

設問三題

一、入學試驗撤廢可否와對策
二、選手本位의運動獎勵可否
三、學生風紀問題와그對策

風紀矯正에는 各校連絡必要
徽文高普校 李秉岐氏談

一、시험철폐문제는 어린 학생을 너무괴롭게하는것이니까 그만두자고 하는것이나 중학교에서는 주장할수업습니다 더구나 수용력이아주부족하고 가튼학교선택 심리가 의연히남어잇는 만치당분간 폐지할수 업습니다 고보입학시험을 완화하려면은 각학교마다입제히 시행하야동일적으로 하엿스면 좃켓지만 매우힘드는 일이구요

『멘탈테스트』는 방법을가종으로 강구하야 해보고도 십습니다

二、선수에게특별한우대조건을 부친다는데는절대로반대합니다다지금은이런학교는업스리라고밋습니다 그러고 품행은방정해야 선수권을주고십흐며 운동장설비의 완벽을이루어서 일반학생의 보건이나 경기를 보급식히고십습니다 그런데 학생중에미술이나 문예수양등에천재가 잇서서그길로 나아가는 것이나 운동에 특별한취미와재간이잇서그길로 나아가는 것이무엇이다를것잇습니까 선수의 장려를 그리비난할 것은 안일뜻합니다

三、대개학생의 사생활에 영향이만흔하숙생활에서보면한학교학생보다딴학교학생하고가티들만히잇스니 근묵자흑으로 한학교만잘하면효과가 적으니까 련락하야호상단속해야지요 우리학교는구역을나누어서 각각지도하고 또가정을방문하야 가정과 연락하고잇습니다 그러나교외의 풍기는역시사회일반의 모범의 선이여하가큰문제입니다 더욱가정부형의 언동이 가장영향하는바가큽니다

入學試驗撤廢는 理想論에不過할뿐
中央高普校長 玄相允氏談

一、입학시험철폐는 리상으로서는 대단히찬성합니다 만은실제에잇서서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학교생도도시로 모이니 집중되고 학교가도시에만 어듸시험을 철폐할수잇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서울에중학교가너무만흔것을 통폐로압니다 모다지방학생은 지방에서 통학하게하면 서울가티 시험경쟁은 적을것입니다 다 서울학교를 지방으로이전하면 가튼수용력을가지고 경쟁은 완화되겟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어느학교나 입학생선택의 근성을타파하지안호면 시험철폐는 절대로불가능하다고봅니다 시험때문에 국한산이만 준비식혀서 각과목에평균한성적을 못발휘하는것도 입학시험의 폐해지요 그러나우리학교도 입학시험은 철폐못하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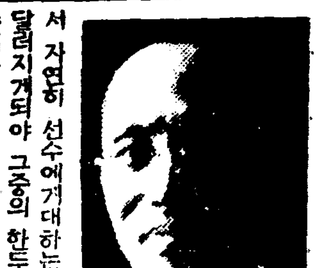
二、나는선수제도라는것은 조케생각치안습니다 선수를 특별한조건으로 대우한다는것을 물론절대배격하며 학업성적이조코 품행이 방정한학생을 선수로두면 근래에잇는 불상사가튼것은 꽉면할것이라고 생각하야 이점에특히류의하며 일반학생의 운동보편화 보급하에 전력을 총치중하고잇습니다 그리하야 축구는전학생에게 빠짐업시 사주엇다가 때마다차게 합니다

三、중등학교학생의풍기는매우 조타고보며 양전치안흔 학생은별로보지못합니다 혹시길가에서 담배를피며 물고단긴다던가 공동집회장에 담배를 먹는다는것은한두학생잇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은지도자들이나 신사들도 길가에서피여무는것은 조흔일이 안이니까학생에게도 좀그런일은 안보여주면 자연 학생들도감화되겟지요 술가튼것을먹으면 물론처벌하며 우리학교 학생은그런학생은 업습니다

試驗嚴密主義 風紀는教育者로부터
協成實業校長 金麗植氏談

一、우리사회와가티 시설이 이처럼 부족한사회에서는 회피할수업는것이 시험제도입니다 그러나 입학자격을가지고도이러한의시험지옥에서 헤매는것은 그모순도 심합니다 입학은해야할터이니까 보통학교당국자나 학부형이나 학생이이문제에 필사적으로 야단들이니 울며겨자먹기지요 소견표가 신용이된다면은 그로써학술을 보고 인물과재질을상식적으로보아서입학하면감당할수잇다는 자신만잇스면입학식혀중학교에서 좀더 노력하야배워주는것이 조켓습니다 그러나이것도 단독히할수는업구 또문제보다 영재를가라칩이 넷날도 세가지즐거운것에 하나이라고하엿스니 영재를뽑아서 드리려고하면 시험을업실이 보겟다는주장도 가진당국자도 잇다고봅니다

二、지、덕、체의세가지인격교육에 체육이가장선수에 치중하는것보다 보편화에노력함이 타당한일이니다 우리도과거에 잇서서는 중등학교의 패권도갓어본일이 잇서 자연히 선수에게대하는태도가 달러지게되야 그중의 한두사람선수때문에 문제가잇고하야 곤란을 밧엇습니다 그때부터 절대로선수를 엄격히대합니다 그 결과로 우승을 못하는데는 섭섭하나결단코 수치스럽다고생각하지안습니다 다음은 전교를 강중경기에열성이로 일반학생의 체육적교육에주력한니다



三、학생의풍기문제에대하야서 나는지엽문제보다도 근본문제에 들어가서주입교육의폐가큰문제입니다 종더교육자가적어도화하지말고 인격적교육을힘씀이어떤의급선무입니다 첫재로교육자가 윤두를례사로하지말고 좀더언행이 일치할것이고 둘재로 부형들도 자제들앞에서 주색과 처첩을상사로하니 그학생이어지 타락하지안켓습니까 셋재로사회일반이 주색이나 또기타의 나쁜일도 오히려사회를세상 당연하고 또는자의기풍을 문하야 조금도 개의하지안흐니까 엇지학생들인들 모방하지안켓습니까 이모든이들이 좀더모범될만한 행동을하야 언행이일치하게보이면은 청신 완화되고 평화되리라고 밋습니다

學校增設이急務 風紀엔儉素第一主義
進明女高普 李世禎氏談

一、보통학교 졸업생을 전부수용할시설이 완전하다면은 무엇때문에시험을 철폐하지안켓습니까 그러므로 부득이입학시험철폐의 리상은 실현할수업습니다 그리고고등보통교육은 전문교육의 준비이니만치 입학생의 재질을고사하기 위하야 하는것임으로 실업학교나 또고보에 갈소질까지 보게되야당연할것입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재래와가치 보게 되는데 국어 산술、작문、신체검사、구술시험을 보게되겟습니다 원체 시험준비는 감독관청에서도 못하게 하는것이지만은 학부형이졸르고 또입학시험에 락제하면 그도가련한일이니 보통학교에서도 시험준비를 식히지안흘수 업슬것입니다 시험준비의폐단을 알면서도 이러한경향에스사로 빠지고잇는 형편입니다

二、우리학교는 각종경기에 대외시합상 선수가잇습니다 그러나 이선수에게대하야는다섯가지조목의규측이잇서서 품행과성적이 저렬한학생은 기술이잇스면서도 선수가못됩니다 선수경기의 기술을 연구하고 또경기규약을 연구하야 실지경기회의 진행등에 통달한다면이것이 교육적가치가 대단히큰 것을나는주장합니다 그리고 선수에게대하야는 그행동을 더욱관심하게되니까 선수는 더욱교육적훈련을 만히밧는세음이지요 그리고 일반학생에게는 모다이와가튼체육적훈련을 밧게하기위하야 춘추로 체육데이를 정하야 교내경기를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체육주간을정하야 일주일동안 매일방과후에일일일조목식—구전을하는데누구나 모다참가하게 꼭방법을 연구하얏습니다

三、이학교는개교이래검소한것을뭇도로 하고잇습니다 그럼으로 검소한데, 자연히학생 풍기를완화식히는큰 힘을엇습니다 여자들이란검소보다도 사치에서 자연히딴길을밟버자신을다락식히는일이만흔데우리는 통학복을 정하고교내에서는 운동복을교실내외에서 입게합니다 이리하야 검소한것을체득하도록 합니다

所見表가問題 選手는特待치못한다
養正高普 徐鳳勳氏談

一、입학시험철폐의리상론은수용력이부족한 현실문제에 봉착한 오늘에 해결의길이 쉽습니까 교육계나사회적으로 본대도 좀더영재를교육하고저 하게됨으로 내의견으로는 보통학교의 소견표만정확하고 각보통학교가모다 어느정도까지레벨이 동일하다면 소견표만보고서 입학식히고 십습니다 결국 구술이나 신체검사、인물시험도 시험이라고하지만는 그러나 그소견표나 내신서가적어도 과거의경험에 비추여보건대 미안한말씀이지만은 신용되지 안흐니 엇지합니까 부득이우리도 종전대로 시험을볼수밧게업습니다

二、우리양정은자랑은아니지만은 특상과 럭비경기에는 단연패권을 잡고잇스니만치 누구나 선수에게 특별한 조건을 제공하는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실은 학교에서는 별로양성이라는 특별대우도업고 도리혀 준엄합니다다만 선배들이만흐니까 학생중에소질잇는 생도들은운동장으로 다리고가서 련습식히고도 코—취하기때문에 자연선수가 훌륭하게되고맙니다 나로서는이운동 정신방면을 경기로써 자연향상식혀서 학생들을각각 각종경기에 실지당하게하야써 체육교육의 의의를다하게할때름입니다

三、학생풍기문제는 결국도덕론에서 입보나아가 사회의근본에까지 나아가게될터이니 매우큰문제입니다 지도하는선생이 술을먹지마자는니 담배를 먹지마자는니하지만는 이일이엇지 그리쉽게실행이되며 거리에나아가면 자연히 유혹의 마수가만흐니 학생들도 유혹의 기회가 노커니나 만흡니까 다만 선생들이나 학부형이나일반사회가 좀더성의로써 이학생들을 대하야 상호지도하야주면은 소극적이나마좀완화될수잇겟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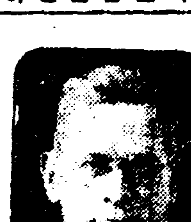
校內對抗戰獎勵 選手本位를排擊
儆新學校長 쿤쓰博士談

一、입학시험철폐운운은말하고도십잔습니다 조선에와잇스니 조선의형편대로 따라갈뿐이지요 미국에서는 입학시험이거이 철폐되야잇습니다 그러나 그곳의시설과 이곳의시설은 동일의론이 안이고 이야말로 천양의차올시다 조선사회의교육적 시설로는 시험으로가피의일입니다

二、선수가 조치못한일을 하면 절대로용서업시 처벌합니다 선수가 운동장에서 불상사를이르키는일은 절대로배격해야 합니다 우리학교에서 그런일이 한번잇섯든데일년간 근신식히엇다 그리고일반학생에게는 각종경기에 잇서서우승긔를만드러노코학년끼리교내시합을하는데 각조마다 예선을하야 이긴학급이 그학년을대표하야시합하게되니까 누구나 모다적은운동선수지요 말하자면 우리학생은 모다운동선수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매년특상경긔가튼것을 긔록표를적어서 보기조흔곳에내걸어서 경신학생이 모다체육적기술리론과 정신에 철저하게합니다

三、학생풍기문제는나로서의일관한수의는 오직학생을 사랑하는데 모든것이 해결될것이라고자신합니다 누가자긔를 정말진정한사랑으로써 대하는데야 납부다고할수잇스며 감화안되겟습니까 나를무엇무엇 비난하다가도 내가학생을관대하게 사랑의교육을 한다고하면 모다반가워서 나를따르지요 경신학생은 나를대단히 조와합니다 간혹담배나먹고하는학생은 꼭정학을식입니다 이것도 인격적으로포용하야 만히 타일르고하다가 가할수업는 경우이지요 이러케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배반하는학생은 엄벌하지안흘수업습니다 될수록은 사전에잘가라치면 큰문제는 업슬것입니다

試驗問題는不可避
培材高普校長 亞氏談



一、시험은 폐지못하고 다만방법론일뿐이며 또아무리하여도 표준이잇서야할것은 사실이니 나로서는 재래의방법대로 시험을보는것이 조흘가합니다 만일재래대로 안하면 재산이니가정이니 개인행동이니 무어무어별에별시험이 다잇서서 더욱학생이 곤란할뿐입니다 미국가치 이삼년전부터 지방학교에교섭하야두어 확실히 입학할사람이면은 그냥무시험으로 밧는다면올르거니와 시험기가 리바하야서는 아무리하야도 시험을안볼수업습니다

二、우리학교는 선수자격을 성적확실은점 품행을(乙)이상이 안이면 자격을주지안습니다 체조학교가안이만치 화려나 품행을보지안코 그냥운동만 식히지는데는 찬성치안습니다 이리하야 선수를잘단속하야폐단을방지함이급선무입니다 그리고학생들에게는 십사년에수의로서 지망하게하면 각부의운동부에대하야 갑부마다 학년조에한종목식하야 오변간에 다종목에 그냥나아가는사람과 또는 각일을온식하게합니다 그러면 일오년에한종목식하야 모다알고 종습하게합니다 그리고매학기마다 교내대회를하야 상품을주어 조장식힘니다 그럼으로선수본위와 전반학생보급과 두가지취지가 병행됩니다

三、다만 유감인것은 금일의조선사회에는 석일의 사례편람가튼것이업습니다 례의작법하나를가르치려하야도 표준이 잇서야하지안습니까 그러나 서양법 일본법 중국법조선법이굴로 혼돈되야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무엇을엇더케 하여야할지모르는것이 금일의 조선학생이요、또어른들입니다、 나는 이기회에누구가 이런방면에 좀석일의 사례편람가튼 책자하나이라도 발행하얏스면은 얼마라도 풍기문제를 해결할 자신이잇습니다그러고 나는옛날부터 절문사람때문에 사회가망하느니 엇저니하는말은 하고십지안습니다 다만나는지금도 청년때문에 조선사회는 전도를 개척할것이라고 자신하고 학생을 가정에서부터 충실한도덕적륜리적교육을하기를주장합니다

社會先輩들부터 風紀를團束하라
中東學校長 崔奎東氏談

一、시험대신에멘탈테스트는갓튼것을 입부에서 고조하고잇지만은이것만으로써는 그사람의 선천적의 선량마는 알수잇스나읽코쓰고하는것이라던가 신체검사로도 라홍이나 기생충의 유무도보아야겟습니다 그리고 우리학교는시험에 떠러진학생을위하야 일년간속성과를 두어구제책을 세우고잇습니다 그리고지금으로서는 관공립의 증설될가망이업스니 유지의사립학교증설이나 또는년사천원만우리학교에라도기부하야주면한학급은더증설하야주제하고십습니다

二、선수문제는 누구나 애초부터선수를 양성함은 안입니다우리학교에서는 일학년부터 경기의소질에 따라서학교에서 식히는데자연 그방면에 탁월한기량을가진학생이경기의선수가되는것뿐이지요 그래서 대회적으로 경기에출장하게됩니다 우대라던가 특수한다른학생과의 차별은 절대로업습니다

三、요지음 신문지상에 전문학교학생의 풍기문제가 들어나 잇지만는중학교학생도잇다고봅니다 우선 의지가부정한학생을 목표로 우동집이니 무어니 윤두분면의어린게집들두고 중학생을 끄는데가 잇서서 오전짜리우동먹고 게집까지보고하니 자연유혹을 당하는가합니다 이것을보안의힘을맛든 경국자가 련락하야 지도함이당연합니다 학생자신들이 오담의우리사회의 현상을리론적으로 잘인식하고 자부심과리상을가지면 왜타락하겟습니까 더욱통탄할것은 사회의선배가 건실하지도라던가 혀혀한행동의 표본을보여주고 잇다면 그들의리상도 확고하게 지도할수 잇지만 소위지명의선배가 지조를 팔어먹기를헌신짝 버리듯하니이영향이학생풍기에대단히파급됩니다

選手本位는不可
京城女高普 孫貞圭氏談

一、우리학교는입학지원률이광장하게넘치는현상이여서어린학생들의 시험때문에 당하는고통은매년직접보고 잇느니만치 나로서는 입학시험을 철폐하야 어린학생들의기형적부담을덜게하고십습니다 그런고로 이문제는 나로서도리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지요그러나 현실문제에 다다르면방법론이잘섬립이 되지안습니다 다만보통학교졸업생의 소견표가 절대로신용할수잇다면은 학술시험만은 철폐하고구술과 신체검사와이볼시험만으로써 입학식힘이조흘가합니다

二、우리학교가 근래에 우승도 만히햇스니까 세간에서 선수에게 특별한 조건을주고 또일반학생과는 편협한 련습의기회를 준다던가하는일은 절대로업습니다 운동장을 각종경기를 넉넉히 련습하도록하장하야 일반학생에게 체육가치를 인식하게하고잇습니다

三、학생의 지도를 다만그날그날의 학과나가르치지말고 또는직업의식에서 전혀해탈하야 좀더학생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지도한다면 학생의자각을 촉진식히고 그들을 배웅의길로 발달식힐수잇스리라고 자신합니다

素行表를作成하야 人格的으로指導
普成高普校長 金敬弘氏談

一、사실로 어린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시험준비를 과도히하고또두군대 세군대 시험을츠리게되는 그정경을 누구가참혹하다고생각하지안켓습니까 보통학교까지 별에별정과활동을다하야입학식하게되는오날날에잇서서중학입학의 상분이지 실현의가능성이 업다는데는 누구나동감일줄로생각합니다 여러가지연구도 만히해보앗스나 금일의우리교육계의시설로는어지할수업시 시험을철폐하로 보는수밧게도리가업겟다고생각합니다

二、선수문제는 경기라는 것이그자체의사명을 시합이라는 경쟁에잇는데서만 발견할수가 잇다고하면 언제 나엇슬수업고 다만근자와갓치 우리체육계에 불상사를야기하고 또맘성이만흘때에 이문제를재삼토구해보는것은의의잇는일입니다 그래서우리학교에서는 일반학생에게 매주일시간을 정하야 축구는누구나풀레이할기회를주고 또방과후에나그타씨ㅣ존에날을정하야 각종운동을 장려하야그들로하야끔 나즌레ㅣ벨이나마 경기생활속선수생활을 식힙니다 그리고 학교십듸서중에 특히 여섯조목의 선수내규가 정해잇서서 그중에조행이납부하나 성적에서 락제의 근심이잇은 학생이나라제한 학생은절대로 선수권을 주지안습니다

三、만전을다하야 그들의인격도야에 노력해야하지요、그리하야 혹시눈에 띄우면은 잘타일르고반성과재인식의 기회를주어 그래도개준하지안흐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나는 혈기방강한 학생을잘지도하고 사랑하지 결단코버리고십지는안습니다 평소부터 생도과에서매일당번이나서서교실내외의학생행동을 조사하야 기록하야두고학생의실지 환경에서오는 행동을알어서 환경에 적의하게교도하기위하야 학경 조사표도작성합니다 홍행장정식점에 선생들을보내여 경계도합니다 특히이런일은학기초나 방학한후에 하는데이것은학기초면 돈푼이나 가진때이고방학후면 놀수잇는시간의 여유를가지게 되니까 그런데로학생들이잘감으로써입니다

風紀善導엔 趣味涵養
大東商業校長 金萬壽氏談

一、입학시험철폐는당연이실행하야 좀더어린학생들의 부담을경감하고십습니다다만은 사실에 엇서서 공립은학력표준즉 소견표와 재산조사가 시험의반부를 차지하고잇습니다 사립학교로 이런경향이점점농후하여가는데 사실에잇서서 이재산조사가 향학열만흔학생에게는 참말로 딱한일이옵니다 만은 중도퇴학률은 딸할가량이학비문제에서 기인하는것이니 그도 참작할뭐요는잇습니다

二、운동비를 선수표준과 우승의표준에 두어한두가지종목과 선수에게만 사용 한다는것은 만흔학생의 재정적 부담의 권리를 무시하는셈이니 승리의 명예는 엇지못한다하더라도 단연각종목에 평판하게하야 일반학생으로하야금 경기생활에 고릏게 참가식히고잇습니다 그리하야 선수본위의양성은 절대배격합니다 그리하야 대외시합에도선수의 특별한운동장독점과또련습시간이편파하게 만타든가하는일은절대로업습니다

三、나로서는우리학생들이학업의여가에 취미를붓칠 오락기관이잇스면 좀구제될터인데 그도업스니 엇지합니까 그러고 오늘날의교육이팍수업료나 밧치고 졸업장이란 상품을 사가는셈으로 학생들도생각하니까 선생님들이 좀더직업적으로 나아가지말고 정말열과성의로대하면 이것이효과잇게 지도하는방법이될수잇습니다

迎春

春川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江原道支部 各金融組合

春川殖銀支店長 佐佐木恭

春川邑事務所 職員一同

綿絲布木部敎賣 東豐泰本支店 朝鮮春川邑

春川邑本町二丁目 穀物薪炭 建築材料 魚物果物 石油肥料 春仁商會 電話六六番

善映商會 黃潤秀

本町二丁目一〇三 春川大同商會 電話四五番

大東商會支店 朴鏞基

春川本町二丁目 雲山商店

春川本町一丁目 權聖鎭商店

司法代書人 黃定根

春川本町一丁目 精一藥房 趙基澤

金基奉商店

北星堂書店 主 玄鳳周

春川刑務支所 職員一同

春川本町二丁目 金元龍商店

春川川本町一丁目 春川藥局 藥劑師 李康稷

春川獸肉販賣合資會社 鄭奉祿

春川邑 江原印刷合資會社 朴貫祐

春川電氣株式會社

臺灣

臺灣屏東 崔命達 本籍 慶北、慶州 電三三二番

臺灣、潮州郡潮北 金贊瑚 本籍 平南、德川

屏東市屏東六五 金鼎燮

臺中市初音町五ノ二 朝鮮樓 電話九四三

臺灣、高雄市 鮮月樓 電三二〇番

臺灣、嘉義 金容兌 電話九五九番

臺灣、臺南州新營 梁泰壽

臺灣、臺南州麻豆 李明伊

臺灣、鳳山 曺喜仕

臺灣、臺南州北港 文基錫

臺灣、臺南州斗六郡斗六 宋克星

臺灣、屏東 黃述伊

甲山

甲山邑官公署 職員一同

咸南甲山郡 同仁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南甲山邑內 金山釀造組合 組合長 金俊鉅

咸南甲山郡同仁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南甲山郡會麟面石溪市 沈澤浩商店

咸南甲山郡東面事務所 面長 崔錫萬 職員一同外

咸南甲山郡會麟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咸南甲山郡同仁面 共興株式會社 主任 [illegible]

咸南甲山郡 私立東明學校 [illegible] 一同

咸南甲山郡會麟面 [illegible]

咸南甲山郡同仁面 [illegible]

訓民正音의起源과 世宗大王의頒布 (二)

權悳奎

正 音이 李朝以前부터 俗用하는것이라하면 언제부터있었느냐 質問하면 그年月日字는 끄집어 낼수가없다 그러하나 李朝以前이라는 것만은 談으로 對答하겟다 한地域안에 한 族屬의 말이있었으리라고는 누구든지 못할것으로 우리가 只今까지 쓰는말이支那또는 다른말과 다른것은事實이며 歷史로證하드라도 神誌(흑은智)秘辭以後 文字가따루이음은 認定치아니치 못할것이니 煩多한이야기는 그만두고 대처世宗때에 俗用文字를 整理하노라 帝王으로부터 여러學者까지해달을 겨겨가며苦心에 수고를 쌓은것은 尋常히 말할것이 아니다

歷 史나 이야기로나傳하야 다아는바 成三問같은이가 音韻을 調査하노라 遼東을 十三度끈열세번식이나 往返하얏다는것이 正音에對한 苦心의裏面을 이야기한것으로 正音에對하야 苦心한것은事實이었지마는 音韻을調査하노라 遼東에 열세번씩이나 단인사람은 成三問이가 아니라 申叔舟그이이니 申叔舟는 當代의 大學者로 該通六國하는 新羅의 圓測과 같은 이이다 成三問이라는이가 申叔舟를땋아 몇번의 支那行이 있을뿐이요 音韻調査따문에 十三度遼東往返의功을 成에게만 돌릴까닭은 없는것이다 이것은 내가 처음이야기하는것도 아니요 벌서憲宗때에 五洲衍文長箋散稿의 著者로 有名한 李圭景이라는 學者가 그訓民正音考證說가운데에 밝히이야기한것이다 다만申싸가

先 王의 顧命을 지키지못한失節로하야 正音에對한 功勞를 빼앗긴것이요 內容은 歷史와 傳說하고 反對이다 活字는 分明히 高麗(흑新羅)때에 發明이되어 高麗高宗때에 實用되것은 숨기지못할 끔쩍없는 事實이언마는 더구나 恭讓王때에는 書籍院을 官設하야 書籍印刷를 하기까지 活字使用이 盛大하얏지마는 李朝의史氏는 太宗三年에 活字를 創造하얏다고 當朝에納媚하야 太宗三年에도活字를 使用한것을 사뭇 創造하얏다고 그적이지 아니하얏는가 아모리申叔舟같은이가 失節을하얏기로 正音에對한功勞를 묻어成三問에게만功勞를 돌릴것도 없는것이요 아모리 活字의 使用이 太宗三年에도 있었기로

活 字創造의紀元을 太宗때로 돌릴수 없는것같이 正音의創造도 李朝로 나릴수가 없는것이다 저歐米에 流行되는 表音字가 象形字로부터 얼마年月을 겪고 몇나라 뭇學者의손을 것치고지나서 只今에 不完全한點이 있으나마 저만한程度에 이룰었거늘 어찌世界無比라하게 完美한조선글——正音이 하루 한때에 되었을것이냐 한層더나아가 내가 疑心나는것은 조선글——正音도 나리(縱)나 흑가루(橫)로 쓰는것이 世宗때에整理하는통에 漢字에넘은 漢學者의 등살로하야 그들의눈을 마추느라고 綴字形을 漢字樣으로 垂直흑水平또는 垂直、水平을混用한式의

綴 字法이 생기지아니하얏는가 한것이다 이런 으로 남들이——저外國의 學者間에서 議論하는바도 이點에對하야 조선의正音은 字畫이 적고도 그마춤法의 規則이 正當한點으로 말하면 世界音韻文字의 가운데에 이우에 나아갈것이 없을만치 精巧하게 되었다 그러나 字樣을 縱橫으로 마추어 一個字體와같이 보인것은 聽覺히 漢文字의 꼴을 模擬한것이니 正音經營의 苦心慘憺한것도 여긔에 있고 다시 正音을 불러에 그欠點이 여긔에 있다고 하얏다 果然이點은 우리로도 是認안할수없는 缺欠으로 어느國語와같이 나리만쓰든지 가루만 쓰든지하야 垂直式흑水平式의한 편에만

限 한綴字法이면ㅏㅑㅓㅕ、ㄱㄴㄷㄹ의 子母音을말 소리의次例대로만 마추어적으면 綴字法에도 이러니저러니가 없을것이요 活字로말하야도 子母音의若干字를가루나 흑세로마추어 놓으면 千變萬化어떤音이든지表하지못할것이 없을러인데오죽正音만 一千個以上의活字를 要하는것은 그綴字를 가루、세로、빗으로——말하면 漢字式으로 方形으로 마추어 꾸미게 된것이다 여긔에 이룰어 붉(赤)과같은 綴字는 한形象의쥐빠와같이 보이게되다 말에나려온바 이漢字式으로된 綴字法에 對해서도 나리나 가루로 綴音한든

俗 用文字를 바로잡는다하야——곧漢字에넘은 眼것이다 이렇게 正音이아니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世宗大王은 音有의 文字를 國民化시기느라고 綴字法까지 變하야서 國民에게 通行시기며 그래도 잘안되어서 反對의魁首인 漢學者들——崔萬理以下를 禁府에까지 잡아누게 되것이다 이같이 世宗以下의 正音頒布에對한 功勞者들의苦心을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詩 除夜獨吟

李石薰

녹스른 검은고의 끈허지다남은줄—、
남은줄 그 한가닥이
랑—0—
적막하게 소리내이는 한소리로、
이밤은 새이려나、
이밤은 새우려나、
除夜는 가려나……。

失望의녹구슬쓰고
—그러나 걸것이—、
希望을 목이라게바라든、
光明을 빼저리게 부르든
이마음의날、
그날은 또— 그다음 날이려나!
날과밤、

내 가두텀 내 바람의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의생날 내마음의복—
빗두려진 얼빠진바위의 둥을
내 알바 아니여든
가고온이 내 무삼 상관이리。
거미줄과 무에다르리、
내 제여든 떠러진벼과벼자이의
녹은時代의 합궈이
그러나、또—
希望에 속고
希望에 사르러나……
—一九三四·十二 陝川에서—

東洲 沈周卿氏 試筆

龍飛御天歌의解說 【一】

李熙昇

一、머릿말

過去(적어도 李朝時代)의朝鮮人의 大多數는 너머도 自己存在를 沒知하고 慕華拜外思想에 中毒되어 醉生夢死의 朦朧한意識으로 끔찍한 生命을 망그질러 버렸다。

活字 發明의 榮光가 누구에게 있는지 軍艦創建의 偉業이 뉘손에 되었는지 瞻星臺 石窟庵은 무엇에 쓰든것이며 磁器와 靑瓦도 하잘것없는것이라고 모다대수롭지 않게 알어왔다 심지어 東洋의 『알파벳트』라는讚辭를 받는 訓民正音 까지도『앙클』이라는 蔑卑한

評言 을 도 없다고 보아왔으니 詩三百篇이 아말로 大註小注까지 어름위 바 밀듯 暗誦하였지마는 龍飛御天歌을야 어느누가 입에나 올려보았스랴。 이름조차 아는이가 몇이 못되였으리라。

이와같은 일은 過去의 朝鮮人뿐이아니다 堂堂한 現代의朝鮮人도 桃源의꿈을 호루 처 깨 白日下의 朝鮮靑年도이따금 自我에 對한 認識不足症에 呻吟하는것을 볼수 있게된다。 우리는마땅히

自我 認識으로부터 再出發하지 않으면 안되다그렇다고 쓸데없는 誇大忘想的自尊心에 혀배마부르자는것은 아니다 事實의眞相 그대로를 잘찾아보고 공구하고 理解하자는것이다。 없다 없다 해도 그렇게 서발 막대 거칠것 없는 살림은 아니었다。

朝鮮을 누가 光輝 있는 文學國이라고는 아니 하리라、그러나 朝鮮에는 文學作品이 별로없다고말하는이가 있다면그는

無識 이요 妄斷이다。우리 깜냥에는 가질 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眞正한 意味에있어서 朝鮮文學의嚆矢가 되는龍飛御天歌에對하야다음에 簡單 紹介하려한다

二、編纂

이 龍飛御天歌는 李太祖의高祖되는 穆祖로부터 李祖 第二世되는 太宗大王의 潛邸時에이르기까지 前後 六代間의 事蹟을

頌文 으로 撰述한 敍事詩다 卽 李朝建國의 偉業盛德을 讚頌한 노래를 纂輯한 책이다 世宗二十七年(西紀一四四五年)四月 卽 지금으로부터 四百八十九年前에 權踶 鄭麟趾 安止 等이 撰上한 進箋文이 本書 卷頭와 實錄에 載錄되여 있으니 곧 訓民正音이 頒布되든 前年에 本書가完成되였다 世宗實錄에 依하면 訓民正音은 世宗二十四年부터 制作하기 始作하야 中外에 頒布되것은 同二十八年

丙寅 (西紀一四四六年)九月이니 이 龍飛御天歌도 그동안에 成立된것이다。 그리하야 우리의 思想이나 感情을 우리의 言語와 文字로 表現한것은 本書가 그嚆矢가될것이다 本書보다 十三年前에刊行된 三綱行實 圖解에 우리글로 그原文을 諺解한것이 添載되여 있으나 이것은 그 『諺文』나 綴字方式으로보아 訓民正音과 同時代의 것이 아니요 後世에 添附한것이 分明하다、그러므로 龍飛歌가 純然한 우리말과 글로된

書籍 의嚆矢이 될일에는 틀림 없을것이다。國朝寶鑑에는 本書를 朝祭宴享에 쓰든樂辭라 하였다 事實 그와같은 儀式에는 이龍飛歌를 管絃에 마추어 唱詠한듯하다 卽世宗大王實錄에發祥之舞樂譜라하야 이노래를 奏演할樂譜가 載錄되여 있고 또 李朝의 아니 朝鮮의 貴重한 音樂上 文獻이 되는 樂學軌範이란 책에도 이 노래와함께 그것을 奏演하는

舞樂 계의 方法이 昭詳하게 記錄되여 있다。

그리하야 本書編纂의 趣意가 太平聖代의 煙月을 粉飾하는 道具로 삼은듯하나、그실상은 이밖에 李太祖가 牟島에 君臨하게 된것은 以臣伐君이 아니오 저 周武王이 桀紂를 代身한것과 다름이 없다는 政治的意味도 크게 包含되었다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이노래의 內容이 李朝先祖의 事蹟을 들어 周以後 中國歷代帝王의 業蹟에 比하야 對比하야 그

先祖 의 積德、肇國의 武勇、德을 叙述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龍飛歌는 當時에 刊行되것인지 아닌지 알수없다 國朝寶鑑에 依하면『孝宗九年(西紀一六五八)五月下內藏龍飛御天歌于校書館命刊行』 이라하야 孝宗때에 重刊한일이 있었으니 아마 오늘날 傳하야 있는 것은 이때에 刊行되것일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本書의 名稱을 龍飛御天歌라한것은 宋太祖의

事蹟 지을것 龍飛記라는 傳記되는 龍飛紀略의 名稱과 무슨 因緣이 있는듯하다。

新羅鄕歌의解說 (中)

—民衆藝術로서 歌謠를말함—

金台俊

◇

우선駕洛國의 神君마지노래와 臨海亭까의 海歌에서부터 니야기하자 三國遺事卷二駕洛國記에 駕洛國始祖가

龜旨峰上 에 誕降할적에 九干會長과衆庶二三百人이 神命에依하야 노래를불으되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抽譯하면

『龜야龜야 머리가 내노라 만일에 내놋치안코보면 잡어서 북고아 먹으리라』

하얏다。그린데三國遺事卷二水路夫人條에도、江陵太守[illegible] 赴任가는 純貞公이夫人水路와함께 臨海亭附近까지가다가 水路夫人의 絕代的姿容에 猜忌한神物들이 水路를잡어가니 衆人들이 海歌를불러 이를救出하엿다는데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悖逆不出獻 入網捕掠燔之喫』

抽譯을加 하면

『龜야龜야얼긋내노라 남의婦女를훔쳐간다 만일에내놋치안코보면 잡어서복고아 먹으리라』

우리는 여긔서原始人의『方法說話 掠奪婚』、짐생잡어먹는時代의口調 여러가지의不良을받지만 그보담도 歌垣歌謠의共通的으로 衆人에게불으든노래가 여러地方에서 여러가지綠起說을附會하야 조금씩 色달은形態로 나라난다는것이다。高麗李齊賢의櫟翁稗說前集卷二에도 說夢을하는데『龜乎龜乎莫耽眠、三世宰相盧[illegible]耳』라는말이잇다 新羅高麗때에『龜乎龜乎』의노래는 여러가지로 傳하엿든것을 알것다

◇

三國遺事의鄕歌속에 特히『謠』라는稱呼를붙친것이 薯童謠와 風謠 두가지가잇다。薯童謠는特히『童謠』라고하엿다 薯童謠는

百濟薯童 이 新羅眞平王의셋쌔딸善花가 퍽이뻐단말을듯고 머리를깍고 중行色으로 新羅서울에와서 薯蕷로서 행길아희들을 한터씩먹이고 이童謠를 지여 노래식이니 이노래가 떠들석네거리에傳唱되여 畢竟은 宮禁에達하야 王은愛女善花를내쏘츠니 薯童은이를데리고 百濟에 돌아와武王이되엿다 그童謠

『善花公主님은 남몰으게얼러두고 薯童서방을 밤에몰래 안고간다』

이『童謠가滿京』하엿섯다는것과 그說話가宮廷을舞臺로한點가틀것은 차라리宮廷歌謠의片影으로서 當時의서울인 慶州의鍾路네거리에 尋常하게불으든童謠이든모양이다。

僧良志가 塔을세울적 風謠는三國遺事卷四에 에役事하려온士女들에게 불으게한노래라하엿는데

『온다온다 온다온다 설외더라 설외다요 내의功德을 닥다려온다』

라고하엿다、三國遺事의作者 僧一然이가살든高麗中葉後까지 土人들이 이노래를 春杵、그他役作할때에 쓴다고하엿스니 이는 一般勞働者民謠에 여러가지傳說을 附會한것이라하겟다

◇

다음에異味잇는것은 三國遺事卷二에잇는處容歌다 東海龍의一子 處容이·어느날 밤게나가놀다가 들어와서 자리를보니 거긔는疫神이 그안해의 [illegible] 하고 와서함께 자고잇는것이엿다 感德이[illegible] 處容은

『東京밝은달에 밤들이노닐다가 들어서자리에보니 가란이너이러라 둘은내해엿고 둘은누구핸고 밋둥은내해다마는 빼앗슬란 어떠하릿고』

하고 노래를불으니

疫神은이 후부터處容의얼굴만 그려붓치면 오지안기로言約하엿다 오날날까지 門에 處容의 얼골을 글여부치는것과 서웃날밤『죠용이요 죠용이요』하는習慣은 모다여긔서發源한것이다。이處容歌는 處容舞와함께 新羅高麗李朝까지 國樂으로採用되여와서 李朝初葉에된樂章軌範과 樂章歌詞에는 좀더仔細한處容詞가실려잇다。 사람의病死 그도疫에걸려죽는것은 疫神의作奸인줄밋고 이것을가장무서워하든 農耕民族이 疫神보담더무서운權力을가진 新羅貴族處容을 맨처음은簡單히 掠奪婚의傳說과 附會식혀든것을 高麗以後에와서는 좀더神秘化식혀서 處容으로하여금『熱病神을잡아서』[illegible]하는 絕對的存在로삼은것이다

◇

달은나라의例를보면 歌垣歌謠의 特徵의하나로서 異民族의感情을 融和코저하는目的과

求婚戀 하는目的이 未開人의歌謠로서의 主要한意圖엿다고하나 조선에는그런例가남어잇지안는다 水路夫人이 그남편純貞公과함께 江陵에가다가진달내꽃이 滿發한곳이에 當到하야 從者다려 저꽃꺾어올사람이없느냐고 할적에 꽃이人跡未到의 陰石우에잇스므로 좀처럼 應할이가없으되 암소끌고지나가는 怪老翁이 그말을듯자곳꽃을꺾어다드리고 다음과같은노래를읊엇다。

『붉은바위까에 잡은암소노호시고 나를아니붓그러워하샨 꽃을꺾어 들이오리이다』

아득도 이때까지는 조선의

家族制度 가 一夫의絕對權力下에完全히束縛되어 女子는男子의附屬物처럼된 形便이아니엿슴으로 女子가 王位를繼承하는것도 例事요 貞操問題도初夜權을僧侶가 가진外에 오늘처럼一婦의貞操가一夫의獨占을 强要하는것도아니엿고 僧侶들도 만흔墳墓에 妻妾을私畜하는것이엿스니 戀愛歌謠이 죽은後에 그의친구 [illegible] 하려다가志操가높은한 廣德妻의諫責에 慚悔의뜻을품고 一意修道하야 高僧이되엿다는데 當時廣德妻가 嚴莊에게 읊어준노래는 이러하다

『달님이에 西方으로 가시리고 無量壽佛앞에 넘옷기어다가 괴쉽고사셔 생끈샤옴에올워라 두손모두아삼어 願往生願往生이라고 그립사람 잇다삷고샤셔 阿耶 이몸그냥두고 四十八大願 일우고샤과라』

當時無道 한僧侶가얼마나 橫暴한것이엿든지 알수잇다 愚漢의 誘惑을 꾸준히 排除한 廣德妻가 더귀엽다고하것다(三國遺事卷五、廣德嚴莊條)

◇

새로網對君主의 手下에統一된 新羅國에도『君君臣臣父父子子』의 儒家思想을 必要로한것은 勿論이엿스니三國遺事卷二에 忠談師가 景德王을 爲하야 지은노래『安民歌』가 가장 이를代辯한다

『님금은아비요 臣下는다사랑어미라 百姓은 밋친아해라고나 하샬디 百姓이 다알알곤다울스랠生으로 괴바인物生을먹어다사리라 이짱을버리고 어듸에 가는뎌、할나라에디녀 필곤더 (後句)님금이다 臣下이다百姓이다 할든나라에太平이하와이다』

大意는即님금은父

臣下는母 니 百姓을 자라밧치아해로알고 잘사랑해주어서 그恩德을안다百姓이生氣잇게하는者도 百姓을다사리고 祿을먹으리이다 君은君、臣은臣、民은民의職分을다하면 나라는太平하리라이다

◇

新羅末年에는 各處에草賊이벌떼날듯하엿다 三國遺事卷五永才條에도 大峴嶺넘어가는僧永才에게 六十名의盜賊이 뛰여들어劫掠을하엿는데 노래의名手 永才는 곳 이러한노래를불럿다

『저의마음에 짓들을단안해며오일××다니아고 며단숨에가고소다(中略)아기참잔흔善陵은 어내놈이두오니이다』

詞意——제마음에도 제얼골을나보게

검은골작 이 해는덜리지나가고 인제 이골작이숨사이로 가게되엿다(中略) 너의절잔흔善心은 어데놈이두고오셔는가 라는뜻이다

謹賀新年

安城

安城酒造株式會社 社長 李鍾𨯶 專務 陸頭相

安城商事株式會社 專務 金鍾益 顧問 吳鳳根

東一銀行安城支店 支配人 金康鉉 電話五三番

安城郡安城面石井里四三番地 ⊙京畿運送株式會社

安城自動車運輸株式會社

京畿道安城郡安城面 城南電燈株式會社

京畿線安城驛前 不二産業株式會社運送部 社長 朴容實 常務 琛錫 主

安城市場 殖産組合 組合長 金起玉

安城郡廳職員一同

安城警察署職員一同

安城面事務所

瑞陽面長 許鎔

安城金融組合理事 東田隆次郎

安城第二金融組合理事 山根滿天

安城市場通 朝鮮料理 太平館 主 金喜翊 藝妓 初玉 彩玉 英愛 花仙 山月 秋月 春桃 明花

安城市場 カーフェキング 主 三石義雄 女給 小夜子 京子 久子 花子 貞子 みどり

安城市場 朝鮮料理 新興館

安城邑內 白城醫院 電話四一番

安城邑內 大東醫院 院長 李鍾[illegible] 電話三五番

喪中欠禮 朴弼秉

安城 鄭殷薰

安城鍮器製造株式會社長 朴周秉

安城 朴裕秉

安城邑內 崔峰

寶蓋鑛業社 吳亮憲

孔道面發展研究會委員 南吉祐 佐佐木德右衛門 吳孟根 岡本治三郎 禹敬浩 李鍾祿

安城郡安城面東里 穀物貿易 肥料原料 安興商會 主 安在五 電話三六番

安城市場 安城石油販賣組合

朝鮮京畿道安城市 正屋百貨店 電話六七番 振替京城一三〇七九番 私書函安城五番

京畿道安城市場通 米雜穀貿易 外米滿洲粟 官鹽及各種肥料販賣 布木郡散賣 合城商會 主 金鍾浩 電話二六

安城市場通 時計販賣一式 修理專門 太陽堂時計店 主 金龍[illegible]

驪州

驪州醫院 院長 兪興鎭 副院長 俞晃鎭 助手 崔濟仁 看護婦 黃永福

驪州驛前 五星精米所 代表者 金世珍 電話八番

驪州釀造株式會社 電話二九番

京東線驪州驛前 正光精米所 代表 車正基 電話一七番

和洋菓子 佐賀屋製菓所 電話二六番

安城公立普通學校長 猪熊吉太郎

喪中欠禮 安城邑內 入選醫院 院長 朴胤根

安城木工所 主 朴[illegible]

京畿安城 製繩仕上工場 主 越錫睦

安城市場通 糖粉麻寸曾珪食料及雜貨商 崔胤杜商店

安城邑內 司法行政代書人 鄭悳奎

海陸物産委托販賣 安城商會 組合長 李鍾[illegible]

安城郡安城面東里 合成商會穀物商 李鉉

安城市場 自轉車及附屬品販賣 池榮德自轉車店

安城市場 紬綢布木店 太陽商會 主 李麟盛

安城郡孔德面德峰里 金鍾祿

寅和堂製造元 洋藥 漢藥 賣藥 染料 寅和堂藥房 趙明相

驪州郡邑內 白田齒科醫院

州內面長 李匡來

道會議員 田殷夏

驪州郡占東面濟安里 占東酒造場 朱仁植

加南面職員一同

朝鮮文學의再建設

作家와教養問題 ★

金東鳴

朝鮮文學의 建設策을 論議하는境遇에 그가장基本的인問題의하나로 作家의教養問題가잇슴을 우리들은 이저서는아니될것이다。

우리들의 **作家**가 一般的으로보아 教養이엿다는것은 거이감출수업는 事實이니 이는 實로 우리들에게잇서서 가장큰 不名譽의하나인同時에 또한致命的弱點의하나가 아닐수업슬것이다。하나 一便生覺하면 그亦그럴것이 外國의作家로말하면 그들이 作家로의地位를獲得하기까지 거기에相當한 刻苦精勵의準備時代를 가젓섯지마는 우리들로말하면 文壇水準의低下와아울러 그리자랑스럽지못한 條件의利로 말미아마 무척 容易하게 作家로의地位를 獲得은하엿슬망정 人間으로의 教養에잇서서나 作家로의 修練에잇서서 엄청나게 低級한水準에 노혀잇다는것은 누구나 否認하지못할것이다

하고 또이것은 한개의避할수업는事情임에도 틀림업는것이니그러하기때문에 所謂『作家의教養問題』란 外國가트면 거이奢侈品에屬한問題가 우리들에게잇서서는 文學의建設策을 **論議**하는마당에서 斷然 그基本的課題의하나로 提起되여야 할意義를 가지게되는것이요 同時에 우리들은 이一見자못 侮辱的인 **命題**안에 더이 크게 謙遜하야할것도 多言할必要가 업는것이다。이를테면 우리들은 무게와깁이잇는 한개의 人間이되기前에 먼저 作家가되엿섬이니까。한데 完成한作品이란 結局完成된人格의 힘에서 오는것이 안일가。여기에서 우리들의 作家들 살리기爲하야서의 教養問題가잇는것이오、이일은同時에 우리들의文學運動을 보담더高度의水準으로 끄으러올리는데의 基礎工作이되게되는것이다。

그러면 作家의敎養과作品과의 關係는大體 어떠한가。

무릇 한사람의作家가 가진바 敎養이 그사람의創作하는 作品의價値우에 미치는影響은 實로 至大하다 할수잇는것이니 이事實은 우리들의至今까지의 作品에잇서서도 歷然하게 反映되고 잇는것이다。

于先 우리들의 **詩歌**를 들고보드라도그 大部分이 藝術로서 當然히 가저야할 香氣와 品格을가초기엔 아직도相當히 距離에노여잇슴을 生覺케하지안는가 이의가장致命的인根本原因은 무엇보다도 우리들詩人에게敎養의 背景이엿다는點에 잇지안흘 것이다。왜그러냐하면 詩人에게잇서서 敎養은直接으로 그作品의呼吸이되는것이니까。그리고 詩人이란 元來가人間으로서의가장높은자리에 서야한다할도 畢竟은 這間의消息을말함이안일까

그리고 小說이나戲曲으로말하면 作家의사람됨이 가장多角的으로 그의作品우에 投影되느니만치 敎養의重要性은 一層더明瞭하게 눈에띄이는것이다 말하자면 作家의가진바敎養은 內面으로 그作品構成의基調를이루는 一便、外面的으로는 作品에잇서 潤澤과品位를 가저오는것이니 여기에서도敎養은 作品에잇서서 斷然第一義的地位를 確保하고잇다는事實을理解할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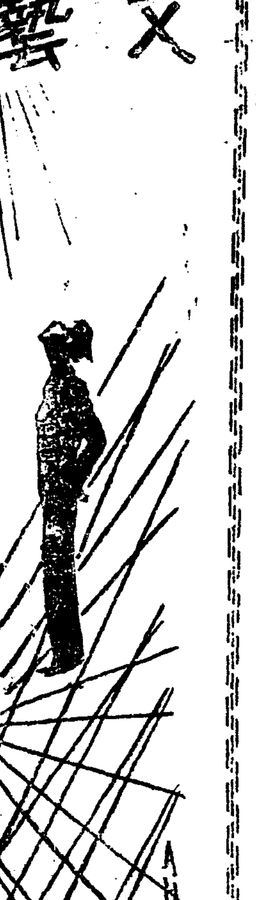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들의許多의 **小說**은 果然우리에게무엇을 말하고잇는고 特히 우리들의 評論界의過去는 우리들의敎養의程度를 가장 如實하게 表白한 可謂한惰緖의 情緖이엇섯스니、朝鮮의文人들에게잇서서 敎養의지가는바 意義의 너머큼에 우리는 차라리歎息을 禁치못하는者이다。

朝鮮의 作家와 그作品과 敎養問題!—그러타、우리들이 옷깃을바로잡고 生覺할問題는 이곳에잇다。

×

나는 以上으로서 비록朦朧하거나마 우리의文學建設에 잇서서 作家의 敎養이 占有한바 地位의一角을 엿보앗다고 生覺하는바、新年劈頭에 際하야이重大한 問題에對한一言을 敢히文壇에보내는機會가 내게許與된것을 나는크게 光榮으로生覺한다

文藝



朝鮮文壇의 現階段과水準

過去一年間의評論과創作界를……回顧하야新年을展望함

(三) 鄭寅燮

『……그것은 眞實한 發展을해야할 文學이 그實 指導理論과의齟齬한 差異와 이差異로 생기는 **理論**의猛走 定見한理論 또한無 相互의 撞着으로 생기는 混亂、그러나『포리티시안』的 氣質을 一種의 名目의 表徵으로 假裝하는 虛勢속에서、또는 時時로 命題를 創案하고 時時로 이것의 誤謬를 自己 스스로 指摘하고 그反面에 온갓 良心잇는 創作家는 政府當局의 行政的指令狀을 손꼽아 온갓『레ー제』를 들고 쩔쩔 매다가 沈鬱、落望、窒息하지안흐면 理論的都市에서 頹廢한 主張과 綱領을 실고 다려나는 車馬들에서 進退維谷에서잇는 創作家도 볼수잇다』—

讀者는 右記한 引用文을 筆者의 年前發表한 十七個條와對照해서 再考해주기 바라며 그가 얼마나 그동안 自己批判을 햇든가 하는것을 보이기爲해서 다음과가티 鑑賞해서 말햇다—

『指導者의 橫暴、獨斷—創作의 無氣力 無主張—이現今까지온 重大한 二個의 論題이엇다。現實性을 떠낫스며 거긔意識과『디아렉틱·매터리알리즘』을 가지고 自己의 權威를 세우려는 評者 指揮者가 잇는 그反面에 現實을 보고 一定한 **形象**속에서 描出한 自己가 올키는한데 그러케하면 非게급的이고 非唯物論的이라는데 氣分을 喪失한良心잇는 善良한 作家의 남모르는 悲哀……이를에서 나는 생각해보앗다。자금까지『갑프』는 이兩面을 完全히 所有한 一個의勢力이엇다。나는 이勢力을細密히 硏究해보기도하며 或은分析하여보기도하엿다。내가 批評家의 한사람으로 그것을 考察하기도 하엿스며 내가創作者의 한사람으로서 생각도 하여보앗다。』

그다음에그는『내 自身이한權威잇는政治家로서 藝術을 생각해본일은업다。이것은確實히 不幸이다』라고特書하엿지마는 그것은 그가在來로宣傳비라 形式挑戰에잇서서 極端論者이든데比하면 너무나 消極的인 自己辯明갓고 또는 그는이點에서 過誤의責任은 내自身도多分이저야할 줄안다고 第五回論文에서말한데 對해서 矛盾을느끼게하는 責任廻避가티 들리는것이다。그러나 그가 그다음에말한『그러나 藝術에關한것은藝術家만이 理解할수잇다는 正當한名言에依하야、藝術의眞正한進路를 찾기爲하는나의微力은 이不幸을 代償하여줄것이라고 밋는바이다』한데 對해서는 一種의 **同情**의 눈물을 느끼게 하는 切實한 그무엇이 잇는것갓다。

이와가티 그의論旨는 明白하다。또한特質的으로는 當然한觀察이라고보겟다 그리고 거기對해서 筆者가 말하려는 意圖도 讀者에게는 임이明白해젓스리고 밋는다。그러나 한거름 더나아가서 朴英熙氏 一個人만이 아니라 그가 그러케 煩悶과 解脫의 沈默中에 잇섯슬때 다른 프로論客中에서도 그러한 疑惑은더러 잇섯다。이것은 當然한 當然인바 우리들은 默殺가운데서그들의 正當한 藝術에의 歸省—어든것은 이테오로기요그代身 일어바렷든 藝術을 다시 차지려고 社會史的見地에서 文學史的見地로 또는文學史가운데 社會史를찾도록—을 기다리기도하고 當然히 歸納되리라고確信하기도하고 또는 그들의誤謬를 指摘하기도하엿다。그는 더욱 自身을 辯護하기爲하야 唯仁氏의創作固定化問題(中央紙)—이것은 그前年筆者가 東亞紙文藝座談會에서指摘한바이다) 白鐵、韓白等의 論文을 引用한 끗헤 그들의所論을 要約하야 다음의 八個를 指摘하엿다。—

一、指導的批評家가 創作家에 對한 要求와 創作家의 不調和된 實行에서 생기는—即指導部와 **作家**와의 離反

二、그러므로 創作家의 眞實한 길은 偏頗한 狹路에서 眞實한 文學의 길로 救出할것—即眞實한 意味에서 푸로文學은 부르주와 文學의 미듬만한 繼承者가 될것。

三、이것을 實行함에는 理論的 凍死狀態에서 創作을 情緒的 溫室속으로 更生시킬것—即創作의 固定化에서 救出할것。

四、그러자면 지금까지 等閑히 생각하여온 技術問題에 論及하야 藝術的本分을 다해야할것。

五、또한 계급的 社會生活을 正確히 反映할수잇는人間의 諸般活動과 그生活의 複雜性을自由로 廣大한 領域에서 觀察할것

六、集團意識에만 억매이든것을 揭棄하고 集團과 個人의圓滑한關係에서 오히려 個人의特性과 그本性과 正確한 觀察을할것

七、政治와 藝術과의 機械的連絡觀念의 粉碎。

八、따라서『캅프』의 再認識

—이와가튼 諸點을 一九二三年으로부터 始作된 그리고 飢餓와殺人과工場盟休의 題材에限하든 프로文學의 藝術性과 創作個性과 表現은 問題視안튼、그리고 題目보면 그結末을公式的으로推測할수잇든 一九二八年**前後**에이르기까지의 階級文學의 主張과는 別世의感이 업지안타。그러나過去는過去다。다만이러한 進路에 對해서 아직도 過去의指導的權威慾에서 汲汲하며 誤謬를認識하면서도自身의 暴露를 極히警戒하는가운데서 躊躇하는것은亦是林和氏、權煥氏等이니 그들의 新年論文으로서 例證되는바이며 한동안 漫談또는 時說批評을下하든玄人(李甲基氏) 尹基鼎氏 其他그蹤跡이 보이지안코 正當한忠告를 밧기실혀하든 白鐵氏는內心共鳴되는點이 누구보담도 잇스면서도 그論議와 多量生産性에 拘束되어自身의 轉換을

當選詩『저녁의地區』 作者의略歷

一、氏名 安龍灣

一、大正五年、國境에서生함

一、新義州公立普通學校卒業

一、京城明治町洋畵研究所一年半

一、東京留學一年半

一、文藝研究(現在)

一、現住所新義州若竹町六

曖昧化하려하엿다。따라서、그가 新東亞雜誌新年號에서 主張한바 評論에잇서서 在來의 基準批評은 한거름더나아가 鑑賞批評을 加하는『綜合批評』의意圖가 잇스면서도 亦是固定化한 基準批評에 始終되것을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

★★★新春의朝鮮詩壇★★★

(三) 金起林

그러나 그는 그의孤獨한位置에 대하야 너무落心할것은업다 어떠한時代에도 眞實한 **詩人**은 受難者엿다

네가 너의외로운 그림자에 집시를 내가지고 황겁하게 낫선 군중에게 아유하려고할때에 나는 네가 네자신조차를 니저버리고 군중의 비속한『모랄』속에 빠저버릴것을 두려워한다

萬若에 詩人이 眞正으로 大衆속에서 (그런境遇에는 勿論 意識的大衆일것이다) 그의詩의 새로운살길을 차즈려고하면 위선 生活 그것에부터 變革이잇서야할것이다 그러치안코는 모다虛僞에 不過하다고함은 아페서도 屢屢히말한바다 이點에 대하야 民衆派는 매우簡便한 생각을가지고잇다

民衆主義者들은 民衆의 感情이나 生活意慾을 假裝함으로써 民衆自身의것은 못되어도 民衆의것에가가운것은 될수잇다는 假說우에그들의詩作의 崇高한 動機를合理化하려고한다。

그러나 詩作에 참말로 自然한 詩人은 그러한 近似한것의 程度에서 滿足할수잇는 지극히 便利한 良心을 가지고 잇지못할것이다

眞摯性에서 至極히 距離가먼 妥協的 態度는 詩의惰落박게는 結果업슬것이다。그경우에 그는 벌서 詩人인것을 그만두고 한사람의 거리의 匠人으로 변해버린것이다。

詩人鄭芝溶은 언젠가 學校의 校歌를 지울수업는 苦衷을 告白하는것을 드른일이잇다 眞正한詩는 어떠한 註文에 의하야 또는註文者를 豫想하면서 씨여질수는업슬것이다

朝鮮에서民衆을위하야 詩를쓰는 大小의만흔 民衆主義詩人들이 意味하는『民衆』이란 말은以上과가티 매우朦朧하며 거기는哲學이업다。『쥬ー르로망』等의『유나니미즘』은 集團속에서한개의哲學을構成하엿스며 唯物論者들이말하는大衆의根據에는 科學的分析이잇다 그러나朝鮮의 要約된民衆主義者의 머리속에서는 十八世紀의옷을 입은 民衆이 十八世紀以前의 民衆이라는말은 오늘에와서는成立될수가업스며完全히 分化되고 細分되엿슴에도 不拘하고 朝鮮의民衆主義者들은 이概念的殘骸를 안고 掀惚하며 의미解體된 亡靈의註文을豫想하면서 詩를쓴다。

나는반드시 여기서 **大衆**의敵이기를 스스로 宣言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詩作에잇서서 生活을 通하지안코 오직觀念的 假說에 의하야 大衆의 편인체하는 일의 虛僞性을 分析하려고하엿스며 따라서 朝鮮詩壇의一方의詩作上의態度인 民衆主義 (便宜上 이러케命名해둔다)와 그것의誘惑에대하야 만흔先輩와同僚와함께 反省해보려고한데지나지안는다。

三、詩의危機

지난한해동안처럼 朝鮮詩壇이 沈痛한 表情을보인일은업는것갓다 勿論한편에는 如前히十九世紀的 感情을 十九世紀的表現樣式으로서 노래하는일에 조곰지도不滿을느끼지안는 幸福스러운詩人들도잇섯지만 進步的인 몃사람의詩人의詩作우에도 沈默속에는 한글가티 한개의危機를 느끼게하는것이 잇는것갓다。

그것은 첫재로 거진無意識的으로 素朴하게 그저 쓰므로써 滿足해하든 지금까지의 自然發生的인 時代는지나가고 詩作自體의意義를 發見하려고하는 模索의精神即 全詩境的인 雰圍氣와 둘재로 詩人各自의 藝術上의苦悶과 셋재로 外的情勢의 不安에서 오는일갓다。

이것들이 일키어서 한개의詩的 危機라는 全面的後委를 맨드러낸것인가한다

英文壇의今後進展 (3)

金珖燮

勿論人間을 內面的意識의流動에서 보앗고 거기서 出發하야 小說에 새로운經驗의領域을 提供한것과 따라서 그方法과直觀에잇서서 또는言語에잇서서 獨創的役割을行한 貢獻은잇다할지라도 今後그**發展**의現實性을 어데서 차즐것인가 問題일것이다

人間은 內面的純粹化되意識이 그全體는안이다 文學은 生活體에서 下降하여도 안니되겟지만 言語와手法은 偉大한文學일사록 可能의限界를 넓혀서生活에의侵透를 模索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서 이意識의流動에서 出發한 이르는바 新心理主義의 文學은 小說을너무도 純粹化하려는 다시말하면 孤獨하게 自體의問題에서 知覺되고 反省되는內面的意識으로만 形成식히는데 그缺陷을 가지고잇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新心理主義文學은 今日과 明日에亘하야 文學의커다란 課題를內包하고잇다

現代를推理하는헉슬레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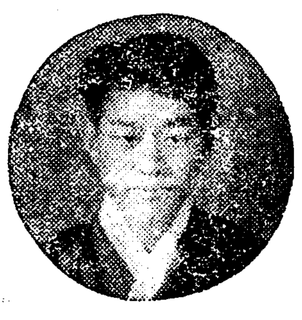
—그作品『포인트·카운터·포인트』를 中心하야—現代를 不安케하는것은 幾多의觀念의葛藤이다。舊는 崩壞되면서新은 確立되지못하고잇다。여기에 智識階級의懷疑가發生되고 不安이根據되다。眞實로 어데로 갈것인가 살것인가 죽을것인가以上의 切迫된問題이다。

게다가現代가가진 모든社會的缺陷은 智識階級에社會改造의意識을 不斷히 提供하고잇지안는가? 오늘의知識階級에는 內面的으로 **智**的懷疑가잇다。또한 自己의內面生活에의

民謠『뵈짜는색씨』 作者略歷

乙巴素

本名은金鍾漢二十一、明川立石産



鏡城高普出、同姓同名의 友人에게 연인을 빼앗긴 까닭으로關西로 滿洲로 노스탈쟈의 애닯은 放浪을 하고잇다가 지금은 故鄕의 私立校에 落着하야生의 再出發을 計劃하고잇다

意識되批判이잇다。그러나 거기에도 定住되지는안는다 그는自己自身의 姿態를 넓는社會的環境과 體驗에서發見하는運命을가진다『맑시즘』이냐『프로이디즘』(精神分析學)이냐? 오늘의 智識階級苦悶에는 여기에分岐線이잇슬수잇다。『이즘』의並行에서보다도 合一에서 오늘의인테리겐챠의全貌가 具象될것이안인가? 맑시즘은 다음時代에 世界가要望하는 하나의試驗되여야할 現實이면서도 오늘의過渡期에잇서서는 인테리의 精神的放浪性은 모든社會的不正한 光景을 압헤둔채로 優柔의 中間에서 摸索하고잇다 그들의 改革에對한觀念的參加는 行動에의參加를 언제던지 並行식히지못하고잇다。그러타고思惟와 智性에의 能力까지 不活潑함은안이다。거기에서 짜아나오는苦悶은 엇던때는 物質的生活苦以上의 辛苦를가질수도잇다。

여기에『올더스 헉스레ー』의 創作界가잇다。오늘의米國小說의主潮는『웰즈』나『골즈워ー듸』를 거처『조이스』의 影響을 바다가진『헉스레ー』에 達하엿다고 할수잇지안흘가?『헉스레ー』가티 **感**性에의潤澤을가지면서 知性에의纖細한 優越을 가진作家는 오늘의英文壇에는 업다。그 智性의눈으로보면 오늘의上層社會의모든隷相은 一에 諷刺를 스사로 要求한다。사람은 諷刺로 꿋날것이안이나 그것은 眞相을 痛切하게보히는데는 個性的必要한것이다。그러므로 諷刺한 虛僞와僞善과의反對이다。『쇼ー』의諷刺의 現實性도 그러하거니와『헉슬레ー』의諷刺로 그러하다。오직、前者가 對話的임에 後者는文章的이며 思考的인데서 우리의 味覺을 다스리게한다

이모든點에서『헉슬레ー』의『포인트·카운터·포인트』—『點對點』(一名愛慾曲線)가티 現代의一面을 說明하며 指導하려는 主要한作品은업다。

×

主人公필터는 思惟한다。

사랑이업는 안해。웨 自己를 愛로써 싸고저하는가? 愛의 强要—이것은 精神的 暴行이다 恐喝이아닌가? 웨 姤嫉을 可能케햇는가。 愛가 업는 性의 交涉은 一面의 虛僞이면서 可能할수잇섯다。얼마나 現代의 不快한 事實들인가?

안해 몸에서 자라는 四個月된 하나의 精果—그 한個의 細胞가 成長하야 **苦**惱하며 享樂하며 戀愛하며 憎惡하며 思考하며 想像할수잇는 一個의成人이되어 神을發見하며 創造해서 善惡을論하며 또한 盲目의 小界에局限되여든 그一種의虫이 星座를처다보며 音樂을듯고詩를 읽고또한 그物質的一小塊가 肉體가되고 精神이되는 驚嘆할創造의過程—여기에서『헉스레ー』의小說은 隨筆이되고잇다。

×

地下鐵道의停留場에서 夕刊新聞을산다。『社會主義者의 掠奪計劃。第一會議。鑛山國有에 對한 自由』—勞働黨政府案은 通過되다。—인테리인쉽더는 歡喜한다。그政治的意見은 急進的이며 따라서 勞働者의便임으로。

그다음 그는 시들어빠진勞働者연의의空席에안는다。석은땀냄새와 니코진의惡臭가 그를襲擊한다。이惡臭를 오늘의 智識階級은 꺼리김업시 自己의呼吸器에 受入할수잇슬가? 다른席을 살필때 그것은 主義로보아 無理가 안이어든가?『被壓迫者를 個人的으로 조와할수잇고 돈잇는壓迫者를 個人的으로 憎惡할수잇다면—』

이새로운 일어난 하나의 **階**級에對한 智識階級의苦悶의一面이 여기에잇지안흔가? 이外에 이作品은 現代의知識階級의各方面을代表하는人物을選擇하야 그움직임과 意識하는바가 하나의時代를 彷彿케한다。그리하야 하나의時代의樣相을 描寫함이 끈치지안코 그時代의作風을 指導하는點에서『포인트·카운터·포인트』는 現代英國小說의 一主流를代表한다 이智性과感性이 融和된 社會의騷擾者『헉스레ー』의影響은 明日의 文壇에서發展을가지고잇다。

—(完)—

今後獨逸文壇의展望

第三次獨逸帝國文學의將來는?

(3) 曺希醇

事實 이러한것은 現在狀態에잇는 歐羅巴人에게는 一時的이나마 一種의安心을 줄것이다。至今까지의文學은 코스모포리탄的인 유ー토피아를 夢想하기에만急해서 民族과 國民과 故鄕을 忘却햇든것가치보힌다。그리해서 現今의나치스文學은 이事實을充實히 明瞭하고 吟味할義務를 가진것이며 이義務가어떠케實行될것인가 또그實行의辛苦에서 所産되는것이 무어일가는 結局 그들의 **文學的業**績을 規定할것이다

以上論한바와가티 나치스文學은 理論的으로는 論議되지언정 그實際的功績은 아직도 今後를 보아야 하겟기에 어떤作家가將來잇는作家이냐를 斷定하기어려울것이다。一片의 팟쇼ー的의것이되고말것인가 或은도 그들이 提唱하는바 祖國을背景으로해서 獨特한 뉴안스를 맨드러낼것인가 그것은 現在가 過去로 變해버리는 그때에 비로소 判定되問題이다。그러나 問題를現實에돌려서 다시한번생각해보면現在의獨逸文學의 참된代表者는流派的分類에依하야 頭腦에만置重한 獨逸의文藝批評家가 아니고 讀者의魂의 琴線을울리는 個個의傑作品이라야만 될것은再論할必要가 업는바이다。第三의獨逸帝國文學을 어떠케 힘차게主張하고 他派를抑壓할지라도 다시말하면 主勢力的思潮의變轉과 作家의成長力乃至持續力은 다른步調로 옴지기고잇슬것이다。그러고 現在獨逸에잇서서 참된文學史를 맨들고잇는것은 事實 **第三獨逸**帝國文學의理論보담은 오히려既成大家들의 作品일것을 누구나否定못할것이다

最近에잇서서 文學史家『란델』은『某某作家는 獨逸文學史에서 抹消해도조타』云云하야 頑強하게 第三獨逸帝國文學을 力說하고 잇지마는 우리로보아서는 참된獨逸文學史를 맨들고잇는것은 史家들의 見解와는 다른 別個의生命力인것갓다。勿論『한스·요ー스트』『엔뻐、골번하이여ー』『요제프·뻬룸리ー』等等外에 無數한 第三獨逸帝國文學者들이 만흔 作品行動을 하야 一見活氣를 띄고 잇스나 우리가 現今 獨逸文壇에서 決코等閑視못할現象은 오히려 그들보담도 한時代前의 既成文學者들에서發見되는것이다 몃가지例를 들면 數年前에作故한 孤獨의詩人『프란츠·카프카』의 內省的作品은 現今의佛蘭西와 米國의젊은世代에게 本質的反響을 이르키고잇스며 또表現主義는 忘却될지언정『츠·벨펠프란』이 歷史의大規模的構圖와 人間心理의迷宮을 한때의 **作品中에**서統一할려는方向을 取하고잇음은 到底히 看過치못할것이다『토마스·만』은 三部作『요제프와그兄弟』의二篇을빌서 公表하엿다 聖經에서取題한이 作品이야말로 世界作品으로 現代獨逸에서 가장豐富한 才能을가진이作家의 紀念碑가되고말것이다。『토ー마스·만』十九世紀文學의 敎訓인『줄라』와『발자크』의 리알리즘의 構造性을 가지면서도 그作品의피라밋드型 焦點은 神話를 指示하야서 自己의 宇宙開闢論的思想을 作品의 背景속에注入할려는 것으로『피ー렌』와『빠니ー』의影響을 만히닙고 잇다。또『한스、카롯사』亦是南南獨逸人의性格을 살려서 高雅한完璧作을 次例次例發表하고잇다。아즉한번도伯林을求景못한이 作家는 最近에 普魯西翰林院에 推薦을바더단는데 私小說(Ichroman)만늘써서 이作家와가티自我를 忘却케하는사람은 大端히 드물다 라는讚辭를드드마큼『피ー렌』의 純獨逸人인 이作家의作品에는非常的普遍性이 內在하고잇다。東洋的 **瞑想的**으로 有名한『헬만·헷세』亦是 生命의極性的二元性에對한 새로운見解로서稀有의大作을 力作中이라한다。『아폴로』와『디오니소스』主知와 感情 文化主義와 超文化主義、神學者『토마스·아퀴나스』와 音樂家『모찰트』等等의 生의二元的原理의交涉에體驗的表現과 緊迫力을 賦與하는『헷세』가 將次 어떠한新紀元을 그作品에서 우리에게보혀줄지 사뭇興味잇는일이 아니면아니될것이다。

끗흐로 다시重言하거니와『힛틀러ー』가 完全한 權力을잡고獨裁政治를 行하는 現今의 獨逸은 一見堅實한 外貌를 갓고잇는듯하나 不安한全歐洲、더욱이 그內部에잇서서 多分 危險性을 가진 獨逸의社會相으로보아 그의 反響을닙고야말獨逸의 文壇은 果然 어떠한過程을 밟버갈지 그들이力說하는바 第三獨逸帝國文學이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 堅固不拔한 活潑한步調로 進展할것인지 또既成文學者及 他流派에屬한文學者들의 이에對한關係와 밋 그들의活動이 어떠할지 果然우리의關心과 興味를 끄으는바만흔또將來를 約束해야할 疑雲曼曼한問題일것이다。

—(完)—

新刊紹介

▲카톨릭青年 一月號 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番地 카톨릭青年社發行 振替京城二一三四六番 定價十五錢

▲專賣通報 一月號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發行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卅錢

▲朝鮮工業協會會報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發行 振替京城一六九五四番 定價三十錢

▲基督世界 十二月號 神戶市林田區野田町六丁目四四 基督世界社發行 振替大阪八四九〇三番 定價五錢

▲서울시보 第三〇號 京城府安國洞一五三 서울시보사發行振替京城二二八二二番 定價五錢

▲火柱 一月號 大邱府新町一〇八番地 火柱社發行 振替釜山一九七二番 定價十錢

三水

三水郡自西面下院洞 木材商 金炳洙

三水郡仲坪面 公入俱樂部

全鮮酒類品評會優等賞杯受領 朝鮮燒酎 泰承鑑 製造元 三水釀酒株式會社 電話三水六番 咸南三水郡仲坪上里

三水郡仲坪面 三水商務組合

三水郡新乫坡鎭 材木業 李容祚

咸南三水郡新乫坡 木材商 姜永駿

新乫坡 官民申合會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木材業 金萬福

朝鮮咸南新乫坡鎭 百貨商 丸金商店 電話三三番 振替京城六六八五番 電略(キン)又八(キ)

咸南三水新乫坡 木材商 李淙植

三水郡新乫坡 木材業 尹成春

三水郡自西面上洞口里 簡易普通學校 朴容台

三水郡三南面仲坪場 金德鍾

咸南三水郡新乫坡鎭 東興商店 姜正求

私立海觀學校 職員一同

別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咸南三水郡舘興面 職員一同

三水郡好仁面鎭城里 私立仁成學校設立者 白惟乾 同校長 金瀅穆 同教員 李炳鉉

三水郡好仁面事務所 職員一同

三水郡新乫坡 洪允玉

咸南三水郡新乫坡 新坡醫院

共興株式會社 新乫坡出張所

三水郡新乫坡鎭 弘濟藥房 盧鴻基

咸南新乫坡鎭一〇二 雲興商店 主崔雲鳳

朝鮮三水郡新乫坡 海陸物産委托販賣 尹泰秀運送店

三水郡新乫坡 李柱鳳商店

三水郡新乫坡 松竹舘

標水面事務所 職員一同

舘興立公普通學校 職員一同

三水郡舘興面三德市 東興商店 曹炳柱

共興株式會社 三水出張所

三水郡三德市 邊璟泓

三水郡三南面仲坪場 張斗益

三水郡新乫坡 智道元

鴨綠江新乫坡鎭 金成商會

三水郡新乫坡 金亨俊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金琓涉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東日商店 兪東[illegible]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朴龍玉

三水郡自西面上洞口市 朱鳳日

三水郡自西面 面長 朱乙桓

自西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三水郡自西面上巨里 朴昌國商店

三水郡好仁面堡城里 盧敬信

三水郡好仁面堡城里 金二浩

三水郡好仁面堡城里 鮮于淳

三水郡好仁面堡城里 金秉熙

好仁警察署

三水郡三西面 面長 韓榮秀

三水郡好仁面鎭城里 尹肯鎬

三水 石橋吉藏

三水郡新乫坡 楊萬興

三水郡新乫坡 黃寶俊

三水郡新乫坡 黃雲興

三水郡舘興面三德市 全日洪

三水郡舘興面三德市 林丙俊

三水郡三德市 洪性準

三水郡好仁面堡城里 方世根

三水郡好仁面堡城里 金宗輝

ヘチマコロン
헤찌마코론
謹賀新年
今年은도야지해·勇進하는해
倍前의 指導와援助를힘입어 더욱더욱精
進의意氣를更新하야、堅實한去來下에共
存共榮의 一路로 努力邁進할覺悟이오니
아모조록變치마시고 愛護하여주심을懇切히
希望합니다。
「ヘチマ化粧料本舗
天野源七商店
東京市日本橋區横山町六番地
ヘチマクリーム
헤찌마크림

謹賀新年

永登浦

永登浦驛前壽町 第一醫院 電話一一一番

陽東殖産株式會社 大谷健介

京釜線永登浦驛壽町 大塚宗三郎 電話二〇番

京釜線永登浦壽町 京城紡織株式會社 永登浦工場 電話三三番

永登浦邑 京畿道會議員 金泰渠 電話三二番

永登浦邑 柳鴻

永登浦邑 金周演

始興郡永登浦邑永登浦里四九三 李昌云商會 主 李昌云

京釜線永登浦驛前 合名會社 永一釀造所 崔俊永 電話三七番

永登浦邑外砂村 新豐精米所 新豐釀造場 主 白寬永 電話三八番

京釜線永登浦驛前 中華料理 永興樓 電話永登浦一〇一番

京釜線永登浦驛前 中華料理 鴻陞樓 主 秦鴻文 電話一二六番

始興郡北面鷺梁津 恩露學校 職員一同

始興郡北面 職員一同

永登浦驛前 永登浦醫院 醫師 洪承疇 電話一〇五番

京釜線永登浦壽町 第一齒科醫院 醫師 李鵬商 電話一一一番

始興郡秀岩面陵谷三五里 三興釀造場 安養驛前 朴敬壽

永登浦邑 永登浦警察署

永登浦邑 株式會社 東一銀行永登浦出張所 電話一一〇番

永登浦本町 永登浦體育會 電話一〇九番

京釜線永登浦驛前 サッポロビヤホール 中川食堂 電話四番

京釜線永登浦驛前 綢緞、布木、雜貨 柳新成商店

始興郡永登浦面永登浦里四六九番地 綢緞、布木、雜貨商 崔鍾琇

京釜線永登浦驛前 綢緞、布木、雜貨 安國鎮商店

始興郡北面道林里四八七番地 精米業 林聖澤

永登浦京町 和洋雜貨 林儀助商店 電話三〇番

京釜線永登浦驛前 永登浦洋服店

始興郡北面道林里 京畿道會議員 李斗用

始興郡永登浦邑永登浦里六四 鄭寅煥

◎朝鮮運送株式會社永登浦營業所 主任 細川五作 電話一〇三番

始興郡新東面鐵室里 京城南大門市場內 運送製造業 野菜果物問屋業 李英燮

始興郡永登浦邑永登浦里 福德無盡株式會社員 金春興

永登浦邑 無名氏

始興郡北面本洞里 閔泳鎮百貨店

始興郡北面 始興釀造場 主 李康灝 電話龍山九七八番

始興郡北面本洞里一二〇 綢緞布木 百貨部 馬相文商店 電話龍山一三九二番

京城市外鷺梁津驛前 穀物委托 精米業 趙仁祿精米所 電話龍山一四八五番

京釜線始興驛前 芝泉釀造所 主 趙斗熙

京釜線始興驛前塔洞 李啓薰

京釜線安養驛前 安養釀造場 主 尹敬燮

始興郡新東面鹽倉里 永泉釀造場 主 韓大欽

京釜線軍浦場驛前 軍浦釀造場 尹茂榮

始興郡永登浦邑 永登浦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京城府外鷺梁津通り 百貨店 閔泳鎮 電話龍山八七三番

始興郡木內面君子里 朴容元

始興郡君子面元時里 李明圭

始興郡君子面木內里 面協議會員 崔俊鴻

京釜線永登浦驛前 永登浦郵便所 梶山周介 電話二三番

始興郡永登浦驛前 司法代書人 柳東馨

始興郡永登浦驛前 京城地方法院所屬 司法代書人 權寧浩

始興郡永登浦驛前 京城地方法院所屬 司法代書人 文衡在

京釜線永登浦驛前 司法代書 代書事務所 李昌洙

京釜線永登浦驛前 土地測量業 崔暘溥

始興郡永登浦邑永登浦里 米穀商 金龍根商店

京釜線永登浦驛前 穀物布木雜貨 金龍俊商店

京釜線永登浦驛前 薪炭材木商 主任 李平植 主務 李德同

京釜線永登浦驛前 永登浦玉突俱樂部

京釜線永登浦驛前 進永寫眞館

朝鮮永登浦京町四七二番地 壽昌商店 主 李萬春

京釜線永登浦驛前 勉强屋精肉店 主 黃在東

始興郡永登浦邑永登浦里四九二 藥酒濁酒燒酒 龍一釀造場 永登浦支店

京釜線永登浦驛前 中華理髮所 金立萬

京釜線永登浦驛前 霞月 電話四六番

京釜線永登浦驛町四三〇 家具製造材木販賣商 盛占熙商店

始興郡君子面新吉里 文徽明

甕津

甕津邑 愛甕會

甕津郡廳職員一同

甕津郡北面 九谷鑛山 主 元致瑨

甕津郡馬山面開坪里 韓衡錫

甕津 ◎朝鮮運送株式會社取引店 主 金根弼

甕津邑 大成館

甕津邑 月美館 金守福

甕津郡北面 宋舜浩

甕津邑 金斗衡

甕津郡茄川面 崔潤植

甕津鑛山 金春燮

甕津鑛山 德太 李宗斗

甕津鑛山 德太 洪五童

海州 代車鑛山 鑛主 崔德吉

甕津邑 德成旅館 成奎

馬山木工場 主 林貞克

本甕 無名氏

甕津邑 販賣藥房

甕津郡茄川面 孫昌道

甕津邑 金鼎鉉

甕津商業組合

甕津邑 鄭德淳

甕津邑 第一冷麵屋 金世日

甕津邑 自轉車及洋服製造 共榮商會

甕津邑 白樂英 改名 白善友

甕津邑 高級禮服紳士服製 三盛洋服店 主 嚴龍孫

海龍本馬山支部 高明錫

甕津郡茄川面 面長 姜元熙

甕津郡茄川面 孫光順

茄川公立普通學校 訓導 尹達鴻

甕津邑 司法代書 趙昌九

甕津鑛山 德太 朴亨贊

甕津北面 金谷鑛山 代表 全永

甕津馬山面秀岱里 興水生

甕津鑛山 鄭大聖

朝鮮日報社甕津支局 洪鳳洙

甕津郡 無名氏

高級禮服紳士洋服 東亞洋服店 主 朴鳳弼

甕津郡鳳鳴面 面長 金周鎬

海州鑛山 鄭玉承

二層洋屋新築 水道設備 甕津旅館 主 朴鍛善

甕津邑 共信洋服店 主 趙順吉

甕津邑 康翎旅館 主 沈相和

甕津邑 明月館 主 金成模

甕津郡 龍泉面職員一同

甕津郡 東南面職員一同

甕津邑 金台烈

甕津鑛山 孫世亨

甕津郡東所面 木材金物 文化家具 建築請負 甕津木工場

甕津郡東所面 李泰亨

綢緞布木商 金鳳權

甕津鑛山 姜相煥

甕津郡 馬山面長 吳世昌

甕津邑 産婆 全沙別

南市

南市驛前 玄白米及穀物貿易商 協成商會

南市金融組合職員一同

御料理 日の出館 主 金成女

滿浦線球場驛前 壽昌藥局 主 李處奎

內科小兒科 産婦人科 一般外科 健康相談 南市醫院 許益元 張子英 李宗贊

玄白米及穀物貿易商 平山精米所

外上面職員一同

南市驛前 三益商會

南市驛前 米穀商 元興商會

球場

球場驛前 竦龍旅館 主 朴樂華

球場驛前 朝鮮燒酒、委托販賣 鐵、金物商 主任 卓龍三

朝鮮平北寧邊郡球場驛前 洋品百貨 金學俊百貨球場支店 振替口座京城四七二二番

滿浦線球場驛前 龜田藥房 主 金龜八

滿浦線球場驛前 尾張支店 主 張贊俊

中央理髮館 主 金元祚

球場驛前 李花白

龍山面職員一同

滿浦線球場驛前 鐵道貨物取扱、陸地運搬其他 ㈢荷主運輸組 店主 金孝景

頭道溝

間島頭道溝市 韓龍洙

間島頭道溝市 中島洋服店

間島頭道市 朝日商店

間島和龍縣三道溝市 三盛泰穀物商、恒盛泰官鹽 店主 嚴昌善

間島頭道市 權花寫眞館

間島和龍縣三道溝市 李鳴周

間島頭道溝 金主赫

間島頭道溝市 東日商店

南朝鮮運動界의
唯一한振興策은 中心機關의設立
寂寥한感은업지안호나 年復年發展한다

南朝鮮運動界도 敗殘이지아니하나 京城이나 平壤에比하면 그러타고 보지못하겟슴 그리면 南朝鮮의스포츠界가 왜不振하느냐에對하여는 體育機關의 不備라고 말할수밧게업다 京城은 朝鮮體育會、中央基靑、又는 延專、普專等 團體가 活動하고잇는것은 말할것도업거니와 平壤으로보드래도 關西體育會가잇서서 西鮮을 中心으로 全朝鮮的으로 巨大한 事業을 하게되고보니 北鮮界가 今日에 엇더케빗처잇는것을 알게되엿다 이와가튼 團體가 南朝鮮에도 잇서서 事業을해야할터인데 前述한바와갓치 大邱에서 全朝鮮蹴球大會를 開催하는 大邱蹴球協會外에는 바라볼만한 團體가업다 우리의 運動競技目的은 健全한 心身을 鍛鍊식힌다는것은 말할것도업지만은 그目的을 速할에는 開拔的인『껨』이라는것을 마하하지아니하고는 速하기어렵다고본다 그럼으로 今年度부터라도 斯界에 뜻둔 우리들은 南朝鮮地方에 中心으로한 크다란機關을 組織하야 每年數次式 큰大會를 主催함으로 씩씩하고 健全한靑年을 만히 養成식혀 對內 對外를 勿論하고 對抗하기에 조곰도 遜色이업도록 해야할것이다 【大邱 金永濟 記】

年年旺盛해가는 蹴球熱의大發展
大邱蹴球協會의熱心한活動으로 漸次로郡部에普及

우리의唯一한機關인 大邱蹴球協會 우리의氣質에適合하고 우리의體力을合理的으로 向上식히는 우리의國技라고해도 過言이아닌 蹴球界가 南朝鮮地方에서는 比較的北朝鮮에 뒤떠러저잇는것을 痛歎하야 六七年前에

組織 된同會에서는그동안가진苦楚와風波를當하면서 여러有志의後援下에每年全朝鮮蹴球大會가 꾸준히進行됨으로 南朝鮮蹴球界에는 말할수업는 衝動을주엇스며 따라서 만흔進步를엇게하엿다 그리고右大會가 南朝鮮에서 唯一한大會로서 每年入場者百퍼ー센트의盛況을일우든中 昨年에는 大盛況裡에 終了되엿다 이제 同大會에서 늣긴바몃가지를紹介하면 今番大會에 第一저로써깁부게 生覺되는것은 競技進行이 퍽順調로 進行되엿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豫定時間에 別로틀님이업고 또出場選手諸君의 競技精神이 相當히 訓練되엿는지 競技中에 不祥事가업시

審判 의命令에잘服從하야 愉快하게『껨』을맛치게된것은 特書할바이엇다 그다음은 一般觀衆이 前에比하야 競技規則도 만히아는듯하게 보이며 따라서 그에對한用語라든지 又는作戰如何에對한 評이 이쪽저쪽에서 흘너나오는것을보면 四五年前에比하면 天壤之差라고하겟다 그리고今番을날만한 일은 地方에서여러團體가 參加한靑年團中에 慶北居昌、昌寧兩『팀』은 體力으로나 技術로나 大蹴이나 大邱蹴을굴너볼만한 强『팀』이엿다 그러나 敗因이어듸잇느냐하면 昌寧은選手가 고름지들못하고 居昌은 守備와攻擊이 째인듯하기는하나 練習不足이 確實히 나타낫다 何如튼압흐로 充分한練習과 研究가잇다면 然凡한强『팀』이 될것을 밋는다 그리고 第一우리에게注目되든『팀』은 大邱蹴球團이엿다 同團은 昨年十一月上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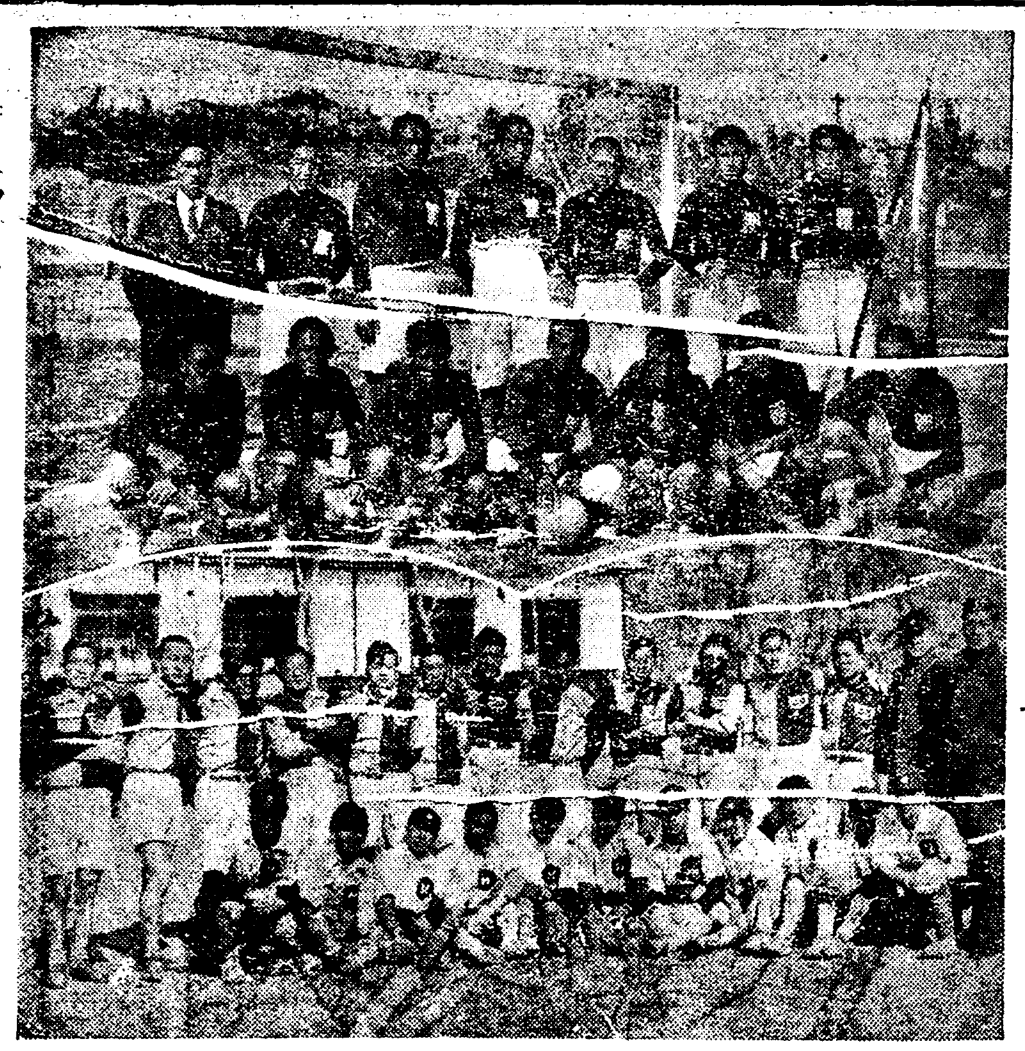
組織 되여가지고 出戰한 『팀』으로 大邱의名將을網羅한强『멤버』이다 그러나 練習不足關係인지『하-프』와『포-드』의連絡이 잘되지못하엿고 그리고同『팀』의中堅選手 CH가별로 活動하지못한것은 마도 身體的缺陷이잇는듯하게뵈인다 그러나『빽』만이 遜色이업섯다 아모조록 充實한 『팀』이되며 이地方에中堅『팀』이되기를바란다 優勝한大邱啓聖으로말하면 어느便으로 보든지 優勝할만한『팀』이다 數年以來로同校敎授 朴秉煥氏指導下에數三年練習을繼續하엿고 따라서攻擊과守備의連絡은 이번出戰한『팀』中에 第一이라고하겟다 그中守備CH는 全朝鮮에서도빠지지안이할만한選手다 그러나同팀의缺陷이라고할것은 攻擊보다守備가比較的確實치못하다하겟다 압흐로그方面으로도 充分한練習을바란다 그리고 中學團으로는 金泉高普가 昨年度處女

出戰 으로 對釜山二商에 惜敗는 하엿지만은 처음으로出戰한『팀』으로는 比較的訓練이만타고보며 釜山二商은 前年度에優勝한 南朝鮮에强『팀』이다 그러나 啓聖과決勝戰에는 選手의 疲勞가만흔탓인지 又는啓聖이强함인지 四對零으로敗北하고말엇다 少年團에는啓聖少年團對 慶尙道決勝에啓聖이優勝은하엿스나 年齡의差異가 잇는탓이안이가한다 그래서 同協會는 三派年度부터는 少年團을 變更하야 小學團으로 한다고하니 南朝鮮初等學校에 크게 期待하는 바라고한다 바라건대大邱蹴球協會가 單只蹴球뿐만아니라 모든競技를 다奬勵하는機關이되기를바란다 그리고昨年十一月初旬 朝鮮體育會主催第十五回大會에 參加한『팀』으로 全南高敞과全州新興과 大邱啓聖等三團體가出戰하게된것도 南朝鮮蹴球熱이膨脹되엿다고본다 其中高敞과新興도 地方『팀』으로는『킥』이라든지 又는『런닝』으로보아서 相當한强『팀』이지마는 京城의强豪培材軍을이기고 平壤崇實에惜敗한大邱啓聖軍으로말하면 昨年에처음으로 出戰한經驗이적은『팀』이지만은 優勝『팀』인 崇實이惡戰苦鬪로 겨우一點의差로

得勝 하게되것은 實로京平等地의 强豪가놀날만하엿나 萬一에啓聖이그精銳한『포드』에守備만 充實하엿드면 昨年大會에는 優勝햇슬는지도몰나슬것이다 何如튼 압흐로南朝鮮의蹴球를 만만히보지못할것만은事實이다

先驅的인럭비

『럭비』도前年보다도 만히發展되엿다 大邱金琪福氏가率先하야 全大邱를組織한후 春秋로部內對抗戰도잇섯스며 각금京城의强『팀』이來征하야 失敗하고가지만은 하든것을보면 將來가 크게注目되는바이다。그外의運動競技로는 [illegible] 로큰것기는바가업스나 氷泳으로는 大邱府營 [illegible] 그外에 [illegible] 데 南朝鮮은地理關係로結氷期가二十日乃至二十五日밧게되지못함으로 充分한練習時日도업고 따라서全朝鮮的으로紹介할만한選手도업다고본다



◇…寫眞은 北朝鮮蹴球界의雄(上)鏡城農業팀、(中列)漁大津팀、(下列)鏡城高普팀

◆寫眞은 南朝鮮蹴球界의霸者(上)大邱啓聖팀、(下)大邱女高普팀

白頭山精氣를더바라
關北健兒를指導할 咸興體育會가再興
大運動場新設이當面의緊急問題
新興의氣勢는潑剌

本社咸興特派員 權炳萬 記

북조선체육계는 지역적으로보아 문화수입의 가장 불편한지우에잇고 또지세상으로보아 가장 자연적조건이 불리한입장에 잇느니만큼 각종시설과 문화보급상태가 다소늬진듯한감은업지안흐나 그러나 조선의령산 백두산정기와 곤곤장류두만강、압록강의 호연(浩然)한기운을 한몸에바든 가장씩씩한북조선건아(北朝鮮健兒)들의 지난일년간에 체육계에남긴족적은 실로위대하다고할수밧게업다。산간의벽지로 도라다니며 위선 눈에띄이는것이 완전한운동구를엇지못하고 널(板)으로만든『라켓트』를 가지고 정구(庭球)를 열심히하는것이라던지、견우목동(牽牛牧童)들이 산협에 겨우남긴 고르지못한평지에서 집신에 색기를동이고 공뭉차는진경이라던지 이는 결코 이삼년전에 볼수업던 현상이며 작년만하여도 흔치못한일이다 다시 북조선에잇서서 가장 문화의중심지인 대도시함흥(咸興)의 체육계를 돌아보면 거십오륙년간 체육은물론하고 무릇 사회적운동에 그공적이 적지안흔 함흥체육회(咸興體育會)가 왕년의 그왕성튼활약이 점점 쇠퇴하여 최근삼사년간은 회관이 거이 빈집으로 남어잇는듯한 적료한감이잇든되쇠를 비로잡어 다시금 옛날의 맹활동을 재긔하려고 지난오월중에 김명학(金明學)씨를 회장으로 역원을개선하고 금년내로 대운동경긔회를 개최하자는결의가 잇섯다는것이 가장 특긔할사실이라고할수잇겟스나 어느곳을물론하고 빈약한조선사람의 경영긔관은 한갓 재정곤난이라는 난관이 업지안흔 역원제씨들이 열심으로 그긔금운동을하는중이니 실로 압날의북조선체육발전을위하여 촉망이 여간큰것이안이다 그리고 또한가지 크게 유감되는문제는 북조선 대도시중에 아직도 큰운동장이 업다는것이다 전선을통하야 소위 대도시라고 인정되는곳에는 모도 관영이라던지 혹은 민영으로라도 대소의 운동장이잇서 운동경긔라던지 혹은 보통시의 운동련습장으로 가장 필요한장소가 되여잇는데 북조선중에서 가장 대도시라고 자타가공인하는 함흥에 아직것 공설운동장이라는것이 업서(현재 부청에서 게획중인것은 사실이나) 대소경긔회를 개최할시에 일일히 학교운동장가튼것을 교섭하는데 여간곤난한것이안이다 유지들의 절대한성원을바더 금년이라도 신설하여야될 가장 급무중의하나이다

先輩、新進이歸鄕 競技界指導奬勵
拳鬪、籠球、力技等에大躍進
中等野球聯盟이異彩

지난일년간 북조선체육계에 잇서서가장 특기할사실은 경성지역권투협회선수 박은섭(朴殷燮)군이 작년정월에 고향인함흥으로 귀향하여아직것 권투라는운동을 알지도못하고잇든 북조선에서 수차경기회를개최하여 경성의명선수들을 마지하여 시합을 개최하여 권투운동의보급을 위하야만흔노력을 하엿고 또한봄소자비를지출하여 함흥권투구락부(咸興倶樂部)를개설하여 개관이래에백여명선수를양성하여북조선권투계를위하여 일대긔렴을 토하엿고 경성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普)의롱구선수 권진혼(權鎭焜)군이졸업하고고향인 함흥에도라와영생고보교의 롱구부를 지도하고수차롱구대회를개최하엿스며 또한북선최초의롱구합숙련(合宿)을시작하여북조선의유치한롱구계를위하여만흔활동을하엿고도한함흥에 잇는 함흥고보영생고보 함흥상업 익세준중학교 야구련맹전(野球聯盟戰)이 십월이십칠일에조직되여 매년춘추량긔에 정긔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엿는데북조선으로서는 최초의 련맹전이니만큼 일반의긔대가 대단히컷다 끄트로 지난해의도 미의종막을장식한 함흥력기구락부(力技倶樂部)주최의북조선처음의력기대회를개최하여 경성에서초빙한 사계의대가서 상천(徐相天)김용성(金容星)등제씨의 모범력기실연이 잇서북조선에서송곳고는력기가들에게리의된바극히만하다

沈滯한中에서 活躍한足跡
各種競技界의一瞥

野球界 야구는북조선에수입되운동중에 가장오랜 력사를가진운동이다그럼으로 함흥체육회에서도 륙칠년전까지는 야구에가장수련하여 매년오륙회식 청년과소년들의야구대회를 개최하여 그발전이볼만한것이 잇섯으나 최근삼사개년동안에는 점점 그세력이 침체하여저서 금년에 이르러서는 우리들의 경기로는거이 업게되여 조선사람 야구운동이라고는 그림자도볼수업섯다 그러나 함흥고보 영생학교 상업학교의 삼중등학교 야구련맹전이 조직되여 함흥상업학교가 전승하엿다는것뿐이다 이것은 극히 적은일가튼나금후이상세중등학교의 야구련맹전은 북조선야구계의전도를 위하야크게 리익되는바 만흘것으로압흐로 긔대되는바만타

庭球 정구도야구와가티 가장오랜력사를가진 운동이며 칠년전소위함흥고보의정구회형(花形)시대까지 연출하엿스나 근년에이르러모든다른 운동의세력에 압도되여서일의 성황은차저 볼수가업고 다마함산구락부(咸山倶樂)에서선수수명이 매일가치맹련습하여 겨우명목만 직히고잇는듯한 감이잇다

蹴球 작년일년간 축구대회라고는 거이개최한일이업다고 하여도과언이안인만큼적적한상태다 매년팔월중에 정긔적으로열리는 전함흥고보와 전영생고보군의 축구대항전이잇서 전영생고보군에게 우승의영예가 돌아갓다는 것뿐이다

籠球 롱구는 북조선에수입된지불과일이년밧게못되는형편이나 그이년동안 실로 괄목할만한발전을하엿다 전에도 말하엿지만은권진혼(權鎭焜)군의 노력이 실로크다고 아니할수가업스며 군은현재 함흥체육회 롱구부책임자로 활약중이며 압흐로도 만흔활약이잇기를바란다 이에특긔할사실은 함흥체육회 롱구부주최로 팔월삼일부터이주일간 함흥명신보교에서 제일회 하긔롱구합숙련(合宿)회가 잇서서조흔 성적을어더고 함흥고녀와 함흥영생녀고보는 춘추량긔에정긔대항시합이잇고함흥고보와농업학교에는 롱구부가 신설되엿다。

拳鬪 권투는작년까지 북조선에서는한번도시합이라고는업섯습으로권투에대한지식이라고는전연업스니 그러나전긔한바와가티박은섭(朴殷燮)(경성권투구락부소속)군이이월에함흥에도라와처음권투시합을개최하여일반에게권투를소개한이래거이권투전성시대를연출하는듯한감이 적지안케 성행되여또각지에권투 구락부를 설치하며또한체육회에 권투부를 설치하여권투를련습중인데 함흥권투 구락부가튼것은 부원이백여명을 초과하는굉장한세력이다。

氷上競技 유일한원ー터스포ー츠』인빙상경긔는그력사가매우오래고 또한북조선은 긔후관계로결빙도 매우조흔『컨듸숀』을가지고잇슴에도 불구하고 적당한지도자가 업는탓으로매우 발전에장애가만타 엇잿든 학교라던지 일반에서 절대중요시하고그발전에 노력하고잇는것만은 사실이고또한매년장족적진전을하고잇는것도사실이다

東洋的存在인 力技의發展相(2)

中央體硏 徐相天

別表前番第十回國際大會成績에 比하면 輕輕體級에잇서 一等의 佛國人S君의 一八一二分一 ㅗ九二二分一 二五八二分一 總點六三三二分一點에比하면 큰損色이잇스나 六等의B君의 一五四、一七六、二二五牛 總點五五五二分一에比하야는 다만五點의差뿐임으로 崔君의압프로의努力如何로는 國際舞臺에入選할希望을十分준다。이點에잇서서 우리力技界는 新年을마즈며 君의 큰努力을바란다。그러나더큰國際的選手가되라면 崔君은거리의돌들이군의氣分을버서나 적어도系統잇고組織인正則的

修養과 指導를

밧지안흐면 안될줄안다。또運動精神의 적어도理解者은업서서는 안된다。이點에잇서우리를代表할 國際選手로는 큰敎養이必要할줄안다。崔君의推上一九〇點은 前番十回國際大會入選者 一等으로부터 六等까지의六名中 最高一八七을斷然壓倒하엿다。그反面에 引上 幷上兩種目에는顯著한損色이 別記記錄表를보아分明하다。趙命夏 李容彬 兩選手의努力如何로는 崔君에무서운强敵이될줄안다。

輕體級 (體重一四八、八封度以內)

輕體級뿐아니라 自己의體重級보다 더무거운 年體級을 通하야 力技界의 麒麟兒金容星君이 天下無敵의 常勝將軍이다。(昨年最高記錄 中央基靑大會때二〇〇 一九五 二五六 總點 六五一) 次位는 現在徽文三年在學生의今年十八歲의金晟集君이副將格으로天下無敵이다。金容星 金晟集兩君은記錄云云보다도 드물게보이는運動精神方面으로보아模範人物이다。力技뿐아니라 다른方面의運動에잇서서도 이러한 選手의出現을바라는바이다。

前番國際올림픽大會記錄을參考하면 一等七一五에는 아즉마흔差가잇스나 五等과六等의 六二七點을

斷然壓倒하고

五等에入選되엿슬實力이分明하다 兩金君의不息之功은 압날우리力技의世界進出이어렵지안흘것이다 그外輕體級에는金泰植 金聲圭等의猛者가잇다 前者에 比하야는 아즉相當한差가잇스나努力如何에잇서서는 今年에엇더한程度의조흔活躍을할는지 자미스러운問題이다 그外에도 李世永 梁雨寬 朴得山等의훌륭한選手가만타

年體級(一六五、三四七封度以內의體重)

昨年中으로 斷然朴明濬君을年體級에 覇者로들수잇다。(昨年最高記錄 二〇〇 一九五 二四六 總點六四一)(續)

陸上界에는 女子가活躍
大邱女高普릴레ー팀

陸上競技界 年復年躍進하는陸上競技界、大邱地方을中心으로하야 猛選手를만히내엿것은 누구나다아는바이지만은 近年에와서는 一層더普及化되여잇다 昨年度戰績을

考察 하면 京城서開催된 神宮競技에 中距離와投擲과跳躍에는 斷然優勢이엇고 短距離에도 相當히活躍하엿다 그리고우리에게 큰『센세이손』을준것은 女子部이엇다 女子界에서運動競技方面에발을드리게되지 몃해되지아니하야 京城、平壤을勿論하고 해마다 新記錄을作成됨은 慶賀하는바이다 大邱釜山等地에서도 그에지지안흐리만치 活動하고 昨年度京城에서의戰績을보면 三百米繼走에大邱女高普에서 一着을爲始하야 釜山高女에서 圓盤에一等하고 其外에도 大邱女高普에서로 走高跳四〇〇米 八〇米허ー들、圓盤砲丸等에 入賞하야 世人의耳目을놀나게하엿다 한가지遺憾은前年度에 八〇米허ー들에

記錄 을作成한 大邱女高普 [illegible] 孃이 겨우三着 박게못되엿이다

籠球界一瞥

活躍할줄모르든 籠球界 三三年秋季에 大邱啓聖이京城基靑主催全朝鮮籠球大會에出戰하야 體貌이나技術이나 大端히有望하다고 評을바든마침 昨年에와서는 一層더强味를띄웟스며 大邱農林도啓聖과가티 南朝鮮强豪라고할마침强해젓다 그러나 大邱農林은 京城勸戰에게 慘敗를當하고 啓聖은 京城遠征에게 慘敗를當하고말엇다 그나마相對便이 京城서一流라면모르지만은 二流도될가말가하는『팀』에게敗北햇다는것은 南朝鮮籠球가 몹시弱한것을 可히알수잇다 그러고 女子로말해도 南朝鮮에 代表로 上京햇든 大邱高女와 大邱女高普도 亦是一二回戰에 退敗하고말엇다 그러면 그原因이어듸잇느냐? 에對하야 簡單히말하면經驗不足이라하겟다 本來籠球는다른競技와도달나서『껨』을만히해보고 해보지못한데 큰差異가잇다 前記와가티 體質이나頭腦等이 남에게不足하다든가 또는

運動 을조화하지안는것이안이라 南朝鮮에서는 큰大會라고는 볼수가업스며 따라서 큰『껨』을볼수가업다 大會라고는 各道體育協會에서 主催하는道內大會와 南朝鮮的으로開催하는大會가잇고 數年前에 大邱서한번잇섯고 其後로도볼수가업게되엿다 道內大會나마圓滿하게進行되나면모르는것이고 여러가지形便으로 [illegible] 이나가지못하는듯하다 그러나京城이나平壤等地와가치 一年에적어도數十次의『껨』을하고 또가끔큰『게임』보는機會가잇는 것과는 到底히對敵하기 困難하다고 본다 그런故로南朝鮮地方도그만한經驗을 엇게함은 恒常 그이들서야할것을 甚히늣기는바이다

活潑한卓球界

卓球는 女子部가亦是南朝鮮의霸王이다 前年度에京城서優勝하고東京大會에出戰하야 朝鮮女性의억센입증을나타내인大邱女高普徐孃은昨年大會에는病으로因함인지又는『컨듸숀』이 좃치못함인지 京城大會準決勝에 釜山高女丹生孃에게 惜敗한것은 참으로 異常한일이다 平時에

實力 으로는 丹生孃이 못하엿지만은 到底하는 맛치지 못하엿다는것은 徐孃이 失敗하고말엇다는것은 惜한일이다 亦是準決勝에 大邱女高普 李鄭兩孃의接戰으로 李孃이 決勝에드러가 李孃도 丹生孃에게敗北하고말엇다 何如튼準決勝부터全部가釜山大邱가占領한것을보면 南方卓球의强弱을말할것도업다

惠山

咸南惠山邑市 和洋酒類味噌醬油其他一切食料及雜貨石油 卸賣 李柱天支店 專務 李浲燮

惠山邑被水組合員 韓秉禧 全宣項 韓泓筊 李現遇 全澈煒 趙友德 李鎬斌

惠山書院 幹部一同

惠山邑 高麗醫院 內科小兒科 黃材旺 外科産婦人科 張元鳳

咸南甲山郡惠山鎭 國境自動車運輸合資會社 電話四六番 電略(コ)又ハ(ロケ) 金在赫

惠山鎭專賣局 金賢泰

雲興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雲興面雲龍里 醫長 朴昌浩

コマヤ洋服店 梁昶滿

惠山鎭梓田里 梁柱燮

普天面梓田里 權鎭善

梓田里五成學校 金秉權

惠山邑梓田里 朴道弘

長白專賣分署 朴潤喆

惠山邑事務所 職員一同

大鎭坪農事試驗場 主任 李聖泰

甲山郡 普天面職員一同

惠山鎭 朝日商店 金源敎

大鎭坪農事試驗場 尹壽玉

惠山專賣局 朱亨植

普天面麗水里 區長 朴昌涉

惠山專賣局 韓君實

謹賀新年

咸南普天堡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北鮮支場 金柄澤

惠山專賣局 柳能道

惠山公立普校附設 大鎭坪簡易學校 李鍾吉

咸南惠山邑 朴根商

滿洲國長白普通學校 校長 朴亨律

大鎭坪里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北鮮支場 囑托醫 任國彬

滿洲國安東省長白縣博愛醫院 通信處咸南惠山鎭德生東方 朴光燮

雲興面大五是川 森林保護區 職員一同

滿洲國長白縣全治醫院 全先在

惠山邑本町通 順和商店

咸南惠山邑本町通三丁目 鄭承鳳本店 電話六七番

普天面大鎭坪里 高貞默 姜周聖

惠山鎭本町通 楊世寬

惠山邑本町通 衣類工場主 鄭桂福

惠山邑本町通 金鎬和

咸南惠山邑昌成木材所 安成五

大五是川鷄林洋服店 姜龍澤

雲興面大五是川 千澤善

甲山郡大五是川 金秉熙

咸南惠山鎭新町通 韓月頊 朱鷹燮 韓辰頊

惠山鎭木材商 安成龍

惠山鎭共同市場 金光澤

惠山邑惠山里 區長 金聖協

普天面梓田里 李秉暉

惠山邑振興會四分會 委員長 朱鴻燮

朝鮮咸南惠山鎭本町 永昭商店 電話一〇〇番 振替京城一九一五七

雲興面 私立育英學校 職員一同

普天面梓田里 金衞澤

咸南惠山邑本町 張鳳柱商店

惠山邑村工堂時計店 李英哲

惠山鎭 共永購買組合 專務 金昇奎

咸南惠山邑 洪慶得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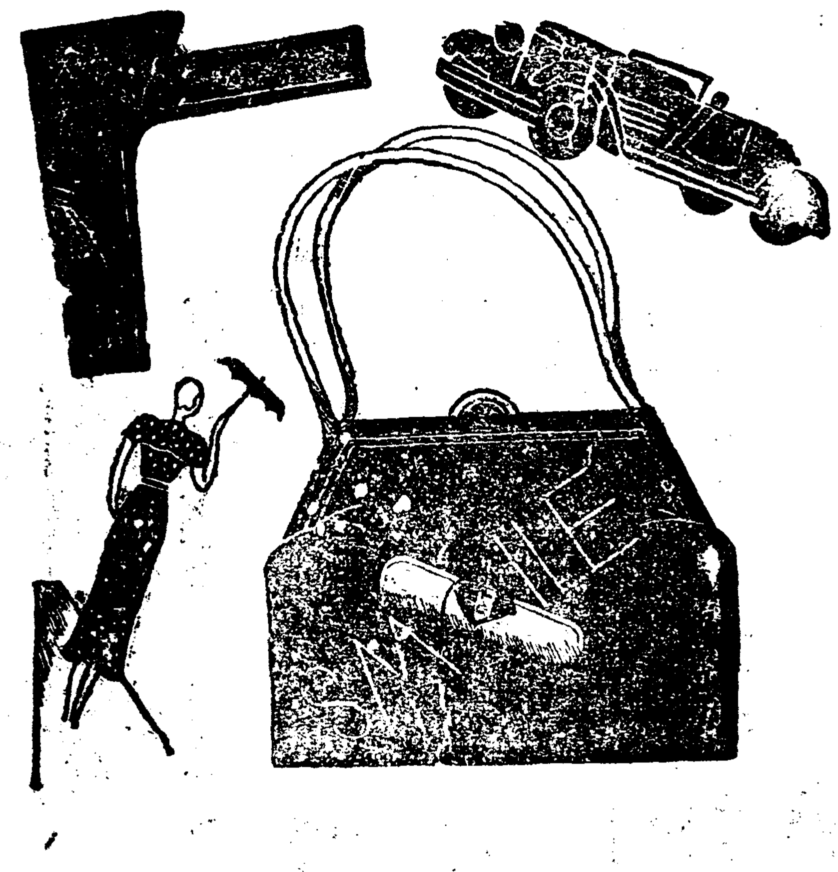
咸南惠山邑 李相哲

惠山邑迎春村 方春述

惠山鎭稅務署

甲山郡雲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朝鮮咸南惠山邑入幡通 米穀魚類賣買 泰壽商店 白泰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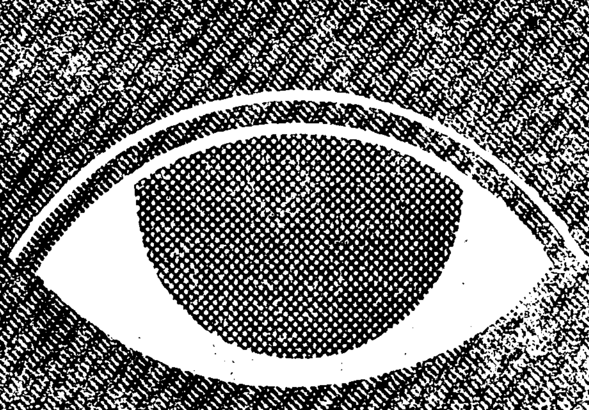
近代生活에潑剌케
뛰는强한눈이여!
아름다운눈이여!
美와힘의光彩는
이一滴에서!
放射되는것이다

完全한美로

아모리臙脂와白粉과美服
으로꿈인다하야도……
中心을이즌美粧은쓸흔것이오
美의中心—瞳子—를메—키압
푸한後당신의完全한美를映像
식힐것입니다

紫外線을避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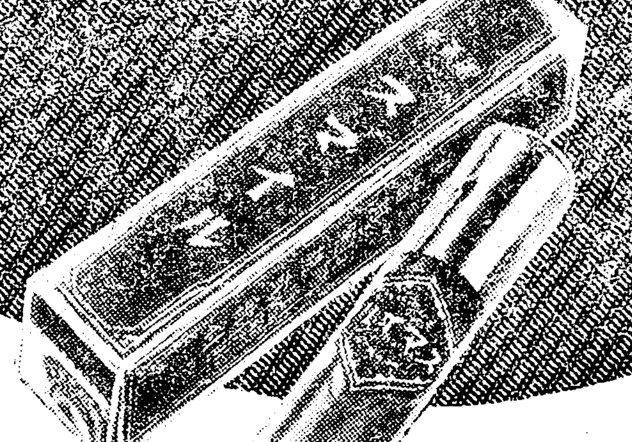
日光은 惠澤과가치눈의
災禍도가저오게됩니다……
스포—츠의敏速、散步의快適은
直射日光과塵埃에서眼을保護하
여서만잇슴니다。핸드빽·포켓트에
一瓶의、스마일!



一歩進んだ◉新しい眼薬

スマイル

스 마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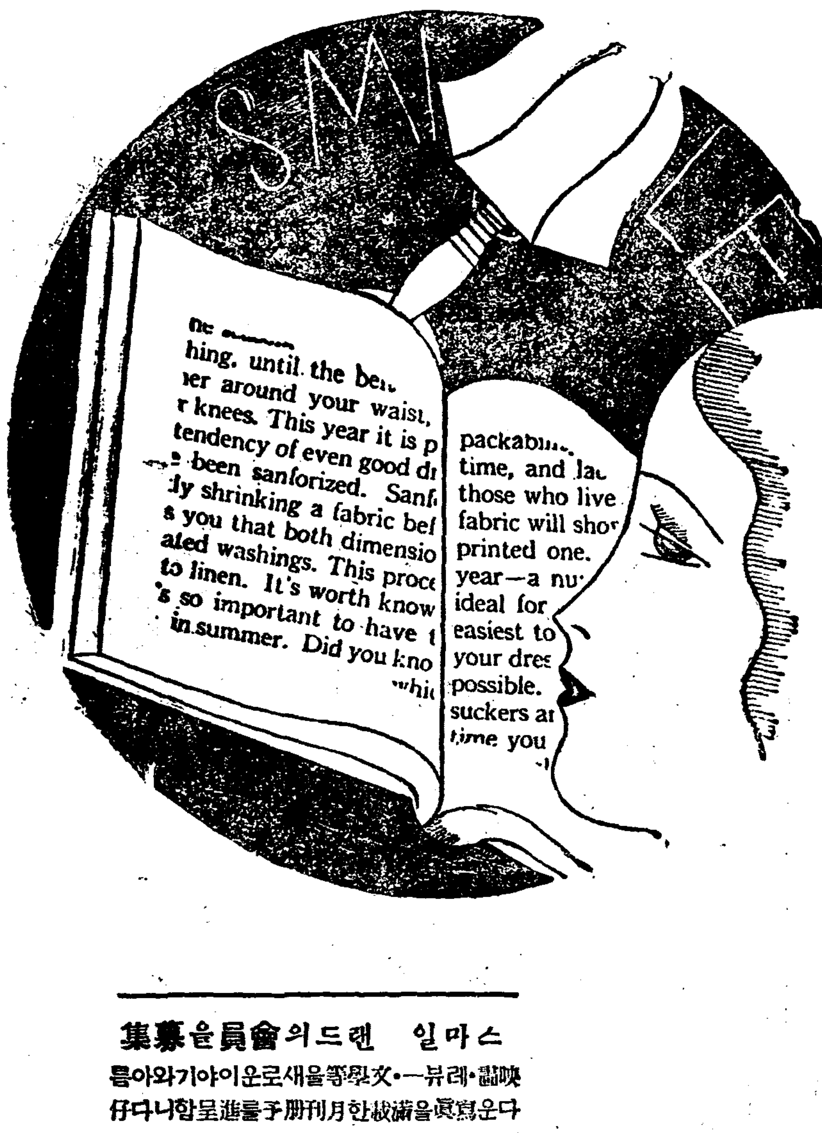


밝은知識의窓

恒常清澄한頭腦는恒常밝
은瞳子에서나온다……
書齋에서 스마일의一滴、視
神經의疲勞는 迅速히回復되
며活字는 다시整然히淸澄하
야진눈의窓으로부터 頭腦에
흘러드러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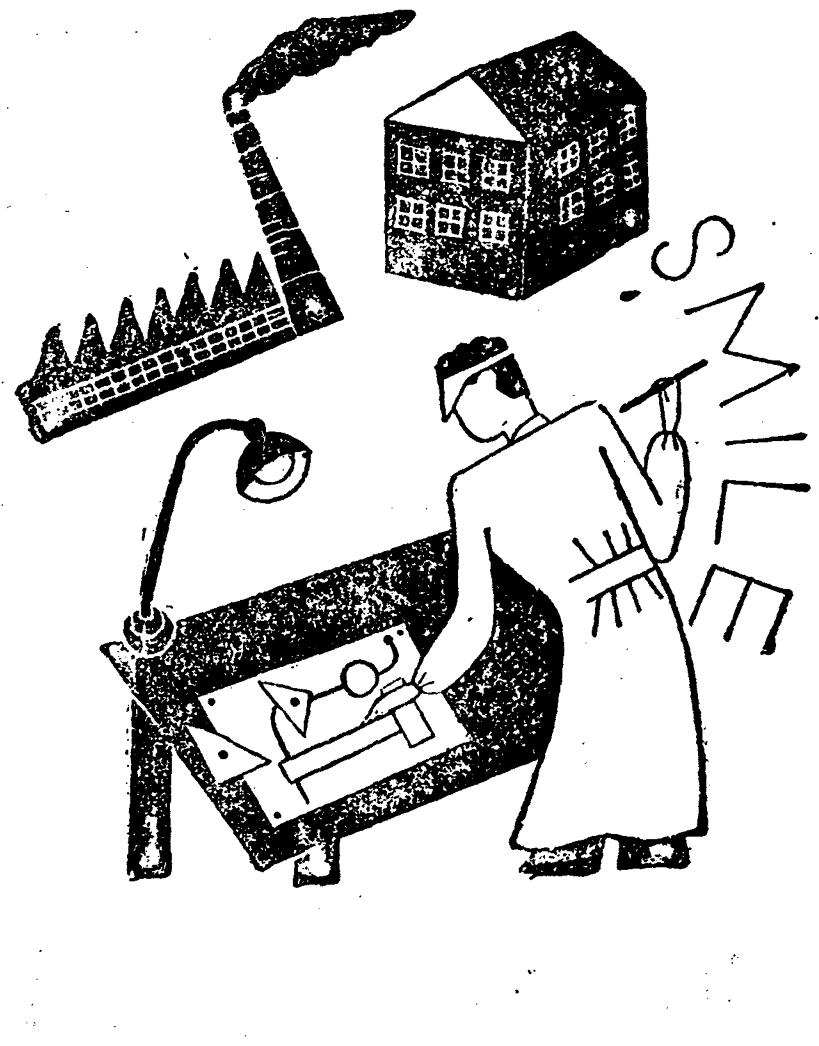
事務室、工場에서

數字의堆積、計算의氾濫
細密한圖形、機械……
그우에 喧燥、煤煙、塵埃……
스마일에 依하야、事務家와
技師의能率은數倍로、神經
疲勞는二分之一로되겟지요



스마일은舊來의眼藥
에서斷然一步압서

眼疾을快히治療
할뿐아니라—
强烈한光線에依한
障害를防止하고—
視神經의疲勞를快
適하게回復하며—
强한視力과魅力에빗
나는瞳子를만드는—
가장合理的인新時
代의高級眼科藥!



스마일 랜드의會員을募集

映畵·레뷰—·文學等을새로운이야기와아름다운寫眞을滿載한月刊冊子를進呈함니다仔細함은二錢切手封入하야本舖로申込하시오

有名藥店에잇슴·二五錢·四五錢·壹圓
自働式點眼裝置의스마—트한容器

本舖
玉置合名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振替東京七二番

큰役軍養成機關 우리學校의자랑

崇義女學校

女中等校로嚆矢 俗稱"監獄"의寄宿舍

崇義女學校 吳文煥氏 談

우리학교의 특색은매우 만습니다. 산자수명 하기로유명하야 조선의배나·스라는 일홈을듯는평양 그중에도상수구역뎍 백성리엔덕이 솟아잇서서 구비구비흐르는보통강의 맑은물과 룡악산의 느진가을나리다 보면서 잇슬뿐아니라 날마다서편으로 발전되여 나가는서성리일대의모든중요강과진처평야의보통벌의버텀이를 바라보는것도 우리학교의특색이오 륙천평이나되는과학한괴지(基地)안에그화요초가욱어지고 푸른잔듸가아롱답게 깔니여 완연히선경을 일우어노핫는데 나무가지의 새노래와 풀닙아래의버레소래가 한가지로조화될때 문득으로 기여나오는피아노의 멜로듸도다른곳에서 흔히보지못하는 우리학교의특색이오 비장충천 이오 명장경인이란세음으로 다른사람이별로보지안는곳에서 테니스·바스켓볼, 발네볼등가지각색의 운동을 열심으로련습하야 흔히는대회에출전하지아니하나 지난번에는 관서체육회주최의 정구대회에 나아가 비록석패는하엿슬망정 조선의선수권을 어든선수와 최후를 닷토아 일반관중의 이목을놀래인것도 우리학교의 특색이오아지조선녀학교로는 오년제가업는 이때에우리학교만이 오래전부터 오년제의인가를 어더오늘의 지정학교까지되엿것도 우리학교의 특색입니다.

古色着然한 녯大門 白髮孃鮮于校長

그러나 우리는 우에말한몃가지로 우리학교의특색을 삼고저하지 아니합니다 하수구에서 상수구통올가려면 신학교의 동편대문과평양녀자고등 보통학교의 모-단식 정문을지나 원편으로 돌과흙을석거싸흔 긴담장과 어둥컴컴한기와집에보기에도 무슨큰 집인것가튼 큰대문간이잇고 그우에는 금색으로찬란하게쓴 간판한개가 달려잇습니다 요지음평양뿐이 아니라 여러다른곳에서도 집이나 무엇이나가다 신식으로변하야 학교의 정문가튼것도 여간선식으로 진화되지를 아니합니다. 아마우리학교의 대문간가튼것은 다른곳에서볼로 차저보지못할것 갓습니다. 그럼으로 우리학교를 출입하거나 그밧글 지나가는사람으로는 여러가지로 이대문간에대하야 자긔의의견을 말합니다. 그들의평하는것을 종합하야말하면 대문이 너무녯것이되여 자미업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이대문을 우리학교의 특색중하나로생각하야 이것을다른사람에게 자랑하고 스사로깃버하는것입니다. 이대문은 우리학교가 삼십일년전 창립되여 여긔에다 터를 잡고지으면서 이대문간을 짓고 이대문을 만드러단것입니다 이대문간을짓고 이대문을달때에는 조선안에 녀자중등학교는 우리학교외에 한곳도 업섯습니다 이대문간이생긴이후 지금까지 륙백여명의졸업생이 사년 혹은오년동안 이대문을 드나들엇고 삼천사백여명의수업생들이 이대문을 출입하엿습니다 또한 금자로쓴간판은녯졸업생이 긔념으로준것입니다 이일을생각할때 이대문은 과연우리학교의 특색과 자랑만이아니라 조선녀자중등교육사상 대서 특필할만한귀여운 대문입니다. 지금도 전에는곳다운 아가씨로 책보를 손에 들고 머리에 사각을 쓰고 이대문을드나들든 졸업생들이 시월삼십일일의 창립긔념일이나 졸업식이나되면오, 륙십의 늙은 할머니가 되여 손자들의손목을 두손에잡고 이대문은 자긔가 이학교에단닐때에도 잇든것이라고 녯말처럼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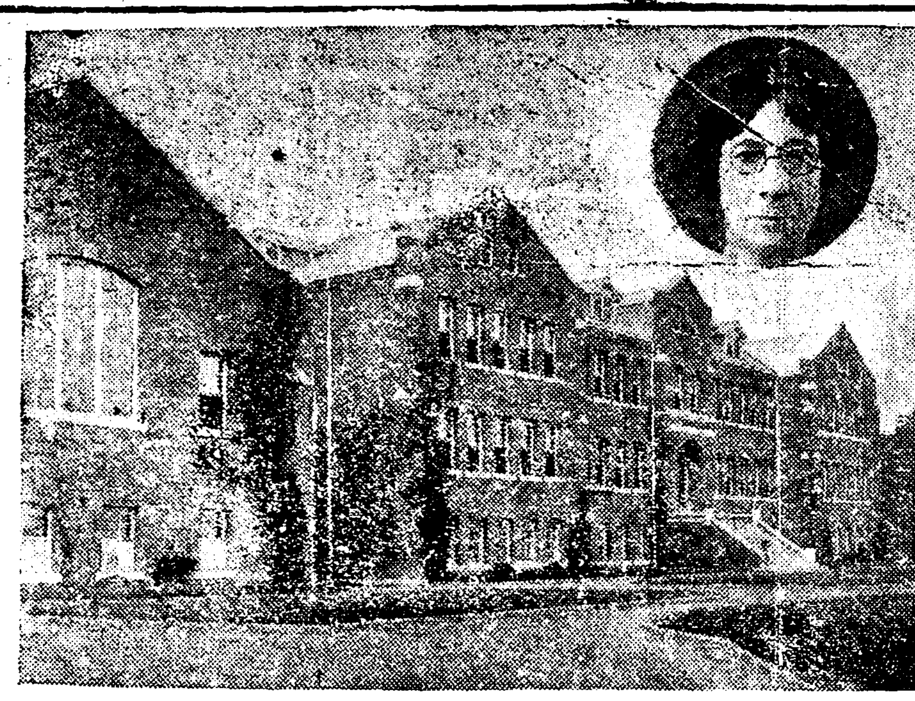
그뿐아니라 우리학교에는 삼십일년전에 우리학교를 창립하시고교장이되여 지금까지 끈을 고오신 백발로양이 계신데 그어룬은 곳선우리(鮮于利) 교장이십니다 아마전조선을 통하야볼지라도삼십여년전에 학교를 창립하고교장이되여 지금까지 줄곳일보시면서안저게신이는 다른곳에 업슬줄로압니다 우리학교 북편에하늘을찌를듯이 줄로서잇는 포푸라의로방목(路傍木)은 선우 교장이 친수로 심어갓수어온나무며 언덕

◇崇義女學校舍全景과鮮于校長

우에나라가는듯이 상층 흠은사층으로거평의천삼백팔십평의본관긔숙사가사재봉실을건축하야설비정연하게맨드러 노흐신이도선우교장이며우리학교의선생중대부분은선우교장이친수로교양하야길너내운우리학교졸업생입니다 압흐로 졍년긔(停年期)를한해압두고오래벗친구와 녯졸업생을차저 학교의백년대계를위하야 긔본금을 운동하며 대강당건축을계획하고잇습니다선우교장이 떨니는목소리로 나의사랑하는 조선의친구들이여 내가귀국하기전에 우리학교의 재정적긔초가확립되고 쓰기에넉넉한 강당을지여 학생들이 편안하게안저서 하나님께레배볼수잇스면드러가백골이 될지라도여한이 업겟습니다날때평양유지인사와 학부형은 감격의 눈물을흘리며 후원회를 조직하엿고 그에게 친히길리움을 바든졸업생들은 선우교장이 귀국하기전에 강당을짓고 거긔에서명년마조막창립긔념식을보시고가시게하기위하야강당건축비로동창회당석에서천여원을거금하고지금각지에서졸업생들이 침식을 닛고활동하는중입니다 각지에잇는 친구의리상하시는강당도불원성지(不日成之)가될줄압니다

俗稱監獄寄宿舍 數百學生보금席

우리 학교의 긔숙사가 또한특색중의하나입니다. 우리긔숙사야말로 한십여년전에 큰문제가되엿스며 사회여론의 초점이되엿드랍니다 그때에는「감옥」이라고 까지하야 학생을 마음대로단니게하지안코 사람들이 마음대로만나보지못하게함을 크게 원망하엿습니다 우리긔숙사에는 지금일백 팔십여명이나되는 만흔 학생이살고잇는큰가정이며 평양부내에 주소를가저 자긔의 친부모형제가보호자가되여 잇지안는 학생은 반다시긔숙사에 드러올것과긔숙사의 일반례법회견은 교장이나사감의 허락을 요한다는 명문이 시떠럿케 잇습니다. 그럼으로어떠청년은 긔숙사에잇는 학생의 아모친척관계도업고 또는볼일까지도업서 공연히보러와다가 쫏겨나가는일도잇다금 잇는일이며 그런사람이 와다가서는「감옥」「뎡무소」니 말들떠둡니는일 두차가 아닙니다「먼곳에잇는 화부형들이 자긔의귀한 딸들의보호권을 학교에맛겻스매 학교는그부탁을 실행함으로 학부형은 여간안심하고 깃버하지아니하며 요지음은히보도회(保護會)에서문제되는 외지학생의 하숙문제와긔차통학생의어려운 문제가튼것도 우리학교와는 거리를 멀리하고잇습니다 긔숙사에서 매월당번을정하야 음식준비、숙사내외의청결、세탁가튼것을 차례대로마타보며 일년에한번식하는 김장가튼것도 긔숙사학생 총출동으로하야 가정주부로서의 할것을 다준비하고잇습니다 학생들이 처음들어 올때에는 밥까지 지을줄모르든 학생이라도 졸업할때에는 훌륭한주부의할일을 다배워가지고 나아가게됩니다 요사음일제교육을 만히밧하야 여러가지계획을 진행하는중이지마는 우리 학교는 삼십년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변변히 수의김치를 한번맛보기를 원하야 만흔단체가 음식준비를하나 학교의사정변변히 수응치못하고 일년에한번식이나 경우와형편을보아 수응하는일이잇습니다 사회도 점점리해하게됨으로 지금은 우리학교 긔숙사의 모든제도와하는일을 칭찬하게되엿슬뿐 아니라 어떠한부형은 학교의 다른조건보다도 긔숙사의완전함을보아 우리학교로 자긔딸들을보내는일이 만케되엿습니다 세상은 녯날에「감옥」이라고 악평을하엿슬지라도 여전히 이백가까운학생들이 꼿피는아츰과 달뜨는저녁 그의품에안기여서 배우고먹고 모-든 두려움업시자라는보금자리가되여잇습니다



◇平壤正義女學校舍와現校長貴愛多氏

永生高普校

世界的文豪産出 教職員의誠勤

校長 金觀植氏 談

함흥부내운흥리(雲興里)에문득소사잇는삼층양식건물이 반룡산록에서 함흥시가를바라보며 함흥의주인공을 끕게건전하게키워다는드시 웅대한자태를 자랑하는교사가즉 함흥영생고보이다

이학교는 지금으로부터이십구년전 영국 선교사회에서 창립하야당시에는 부내신창리 조고만한교사에 학생칠팔명을 교양하다가일진월취하야일천구백구년에영생중학교 인가를얻고 일구일삼년에일홈을영생학교로고치엿스나 일구이공년에이르러 불행이도 화재를만나 교사를 모다일허버리고 신창리교회당을 가교사로정하고천신만고하다가 현교사로 이전하여 재단법인 영생고보로승격되엿다 그동안 달이바뀌고 해를거듭한지삼십년간 영생고보가 우리함흥교육계에 준공적이 실로크다할수잇다 우리는동교 경영자에게사의를표하는동시 금후의 더큰긔대를가지자!

◇同校校長金觀植氏

校長金觀植氏談

우리학교는 삼십년이란 긴력사를 가지엿슬뿐 아니라 천여졸업생중 출세한사람을 일일히 셀수는업지만세계적 문호(世界的文豪)인 在米國草堂姜鏞訖氏를가라처)를양성하엿고 교사는물론 우리조선에서 흔이 볼수업는 대강당을 소유한 것이우리학교의자랑입니다 그외에직원들의 협동정신에 발을 맛추어덕(德)지(智)체육(體育)에 력(力)을가하야 전인교육(全人教育)을시키라는것이 나의방침이올시다또경제적 지반미테 충실한지도자가나서서 교육보급의 깃발을 들고 허위에서진실로 태만(怠慢)에서근로로 분렬에서통일로 비겁에서용감으로 전진하겟다는 것이 전교생의정신이외다

永生女高普

北朝鮮最初女校 標本女性養成

校長 麥愛蓮氏 談

수백의졸업생을세상에보내고도현사백여의 현모(賢母)를기르고잇는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는실로관북에유일한 녀성교육 긔관이라 누가말치안흘가? 이학교가오늘의찬란한자태를 우리함산(咸山)에존재하기까지 어떠한경로를 밟엇스며어떠한사람의공로이여섯는가? 지금으로부터삼십이년전 사월에 영국녀선교사마의대(馬義大)씨가조선에건너와 부내락민정(樂民町)신사라(申士羅)의집웃방을빌려 학생여섯명을 모아노코공부시킨것이 이학교의 전신이엿섯스니그당시이름을 영생녀학교(永生女學校)라하엿다한다 그리하야 날이가고 해가바귀이면서 새로수입되는시조(時潮)를따라 이영생녀학교가점점장성하여짐으로대정이년에는 보통과에다고등과(高等科)제도를만들엇다가 소화사년십월에비로소오늘의영생녀자고등보통학교의인가를 어덧다 이와가티 다른나라사람이 우리들의 녀식을위하야십여만원을 희사하여 벽돌사층교사를 신축하고꾸준히노력하는이용단적 희생을누가찬성치안코라우리는 꼿까지 사의(謝意)를표하여주어야한다

그러나 일정한 재원으로 만흔녀식을 무제한으로 기르기는 균형(均衡)이 맛지못하야 그경영에지장이 업슬가 념려하는일부한국인사는 꼿후원회를 만들고금번취임부터 이십삼만원 재단법인을 만들고 실행에착수준비 한다한니 엇지깃분소식이아니랴!! 이런장거에다가티 함흥사람이여 회사를앗기지말자

校長 麥愛蓮氏談

우리학교는북조선에서도제일처음된학교올시다 북조선녀성이 독특히 소유한실소성(實素性)과실제력에다건전한단련을주입시키는동시수학에빠진업시시듀에응할신념을조선녀성계에표본적(標本的)주인공을만들아는것이나의교육방침이외다 더옥이 직원생도 부형간이 문자그대로협동보조(協同步調)가 일치한데 다가금번집외부터 본교후원회 까지되여 장래우리학교가 나아기 장래에 반다시서광이 크리라고자신합니다

◇元山樓氏女高普校舍全景과 校長車善氏 副校長梁在順氏 (昨報須彼女校寫眞下의說明은誤記엿습니다)

農地令實施以後 各道의農村情勢

忠南道

期待와는正反對 地主跋扈는依然 小作人困況은去益激甚

大田支局 一記者

충청남도는원래봉건적(封建的)사상이철저한곳으로방방곡곡에서량반찾고잇는동안에외래의대재벌(大財閥)이급작히드러밀려 상업권공업권은 멀할것도 업거니와 펑대한 토지까지대부분이 재벌의소유가되고 말엇다 그러므로다른곳보다 소작인의수효가 훨신만흔곳이니만치 작년십월이십일에 실시된농지령(農地令)은지세가지주의 부담이며중간적착취관이사음(舍音)에게주는말세를 밧지못할뿐아니라 경작지위의동을 지주마음대로 하지못한다는 말을들은 일반소작인들은 갑봄을참지못하는동시에그실시의날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엿섯든것이다

그러나 실시를보자 마자오히려 소작인들에게는 도리여 크다란실망과 공포심을 늣기게되엿다는데 그리유는 농지령자체의결함과 일반소작인의 무리해를 역용하야령리한지주들은긔묘한수단으로더한층발호하게되야지세와말세를도조(賭租)에다첨부하야전에보지못하든고률의집도(執賭)를하게되므로 전수확의륙칠할내지 팔구할 그리고엇든곳에는 전수확의전부를 밧처도오히려 모자르는 참담한곳까지잇섯다한다 터욱주목되는바는 금년에는 전례업든 정(鄭)을사용하게 되야보통일백팔십근에다가 심한자는 이백근식이나 증수하게되니 이것은 말세를 밧는것보다 오히려지주에게 리익이 잇는까닭이다

法院에나타난 爭議調停狀況

이상과가티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밧지못하는 지세와말세를도조에다 첨부하야 밧겟다는무리한요구에는소작인들도더참을수업서서 조정령(調停令)에 호소하게되니 이것이 그들의 최후적행동이다 농지령이 실시된지 불과월여인 자난 십일월삼십일까지 충남도에서발생된 소작쟁의건수는 사백사십사건이나되는바 그중에실구건이라는놀라운수자로전조선적으로 최고긔록을 나타내고잇는데 이로보아서도 지주소작인간의관계를 넉넉히짐작할수잇다

조정령이라는것은 그자체가 쌍방의 의견을드라 조정하는것이니만치조정시에는항상지주와소작인은각각자긔의리익될점을주장하게되는데만일추수전이면조정위원은직접감정을 하여공평한 조정을할는지 모르나대개가 추수후에이러나는 관계로결국은 그의거할곳이업서서 절충주의를 쓰게되야소작인은 한섬낫다고하고 지주는석섬낫다고하면 이것을 두섬낫다고인정하게되니 실지로한섬밧게 아니난것이라면 소작인은 얼마나억울할것인가 이상과가튼 절충주의가 조정의 원리와가티 생각하고잇는현상이니 이것은 도한모순이라고 안이할수업다

耕地價格은 別無變動

이상에도 말한바와가티 농지령이 실시되면 자긔의 땅을자긔의 마음대로 못하게되니 『누가땅사서 소작을 줄사람이 잇겟나』하는것이 전반적감상이엿스나 농지령실시를 보게되자 예상이외로 도리혀경지의가격이 폭등하게되는현상이다 그리유는 금년도미가의폭등으로 농촌경긔에 다소완화를보게되것은 원인의 하나이나 그보다도 농지령이 지주에게하등의 장해가업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안인가한다 도리혀농지령실시후 지주에게 편리하게된점은소작인은 완전한보증인이 이삼인을세우게 되는것 두량(斗量)으로하든대신에 근량(斤量)으로 하게되야 두량보다 리익이잇는것또소작조정령이잇서 절충주의를쓰게되는 점등을들수잇다 그러므로경지의 가격에는 하등의지장을밋치지안이한다고볼수잇다

◇結論 이상에말한바와가티 농지령은그자체가 가지고잇는결함이만코 보직그리해조차 일반소작인에게 보급되지못하야 소작인에게 당국에서 말하는바와가튼 리익을주지못할뿐외라 도로혀 전긔모든약점을 역용하는 지주의횡포는 일층더하여가는데 당국자는 모름직이농지령개정과 일반소작인에게 하로밧비농지령에대한지식을 보급할필요가잇다고생각한다

咸南道

暴風傾向濃厚뿐 아즉別無異狀 注目할今後의二大問題

咸興支局 一記者

수개년을 두고 난산을 거듭하고 잇든 농지령이 실시되지도 이미이개월여를 지내엿다 그리고 미리부터 예긔치 못한바는 아니 엿겟지만과연 지주소작인 그리고그중간에개재한 가장미묘한존재인 사음(舍音)의 삼자간에서로 농지령을 에워싸고 각자의리익을 보장하겟다는 자연적충동을 피치못하게되니 그러치안허도 극도로악화하여가든중남부 조선지방에는 비야흐로때아닌 선풍시대를 이르키고잇다는것은 매일가지 신문지상에서 목도하고 잇는현상이다 그러나가튼조선땅이면서도 아직것 북조선지방에는 의연친목을 직히고잇스며농지령를 마이동풍격으로 대하고잇스니 과연북조선의 지주대소작인은 그네들의 리해문제를위하야 이농지령이란것을 리용할만한의리해상 갈등이업는가? 그러치안흐면 폭발의 전야에잇는 무긔미한 분위긔구나? 이제 북조선에잇서서의 토지관계가서남조선지방과는그성질상에잇서서 현저한차이가 잇다는점과아울려 농지령실시이후에 적으니미약간의영향을 주엇다는사실을 들추워보기로하자!

첫재북조선은 남조선에비하면 수백정보이상을 소유한 소위대지주가업다 소화팔년도말 함남도농무과의조사이 의하면 백정보이상소유의지주는 불과이십사명박게 업는현상이며 겸하여토질이 남조선에비하면 보잘것이업슴으로 외래토지재벌의침입이 극히적으며 혹잇다고하여도 대부분은 공장등지의용지소유자들뿐이다

◇

둘째로는 남조선지방에 비하여자작농급자작농겸 소작농이 대단히만코순소작농(純小作農)이라는것이극히 적다는것이다 통계상에나타난수자에의하면함남전농업자호수 십칠만이천 이백륙십호에대하여 자작급자작겸 소작농은십일만구천 팔백삼십칠호로 약칠십퍼-센트가량되여 순소작농은사만팔천사백칠십사호로 전체의약이십삼퍼센트밧게 못되는현상이니 함남에소작쟁의가 타도에비하면 적다는것이 이러한원인도아닐는지? (이상통계는 함남도농무과농업통계서에의함)

◇

셋재는 남조선지방에 잇서서가장 문제를 이르키고잇는 사음이라는것은 북조선 지방에는아직것 그존재가 업다는것이다

이상세가지 사실에서 대개북조선은남조선과가튼 첨예화한 소작관계가비교적 적다는것이다 이제농지령이실시된후적으나마일반의동향을살펴보면대개다음의두가지라고하겟다。

一、종래의반분(半分)타조제를폐지하고 지적에대한 일정한소작료를 증수하게되는 경향이만허진것

종래북조선지방은 전긔한바와 가티 그다지첨예화한 소작관계까지이르지안이한만큼 소작료 제도는대개반분타조 지례(地例)(토지지적에의하여 작료를일푹으로 계산증수하는제)화리(禾利)(긔경전에일년간토지의 경작권을파는제)의삼제로구분할수잇는데 그중 대부분이 반분타조로 천재지변이잇거나업거나 수확의전부를 반분하여곡초(穀草)그대로 경작지상에서반분식 분배하여 량편에서가지게됨으로 리해관계가 서로일치하여쟁의등도 만치안헛스나 농지령이실시된이후에는 대지주측 대부분이 반분타조제를폐지하고지례(地例)제를채용하는경향이 현저하여방금한창부내 모부호와가튼 지주는자긔소유의약사백여정보의토지전체를 사사로측량사를고입하여『근평』을 제외하고 다마경작할수잇는토지만 측량중이라는데 이것은 종래의반분타조재를 폐지하고일두락(一斗落)에 대하여 벼일석이라던지 혹은 그보다도더놉히팔십평에 대하여 벼한섬이라는소작료를 증수하리라는 계획이라고관계소작인오륙백명이전전긍긍한불안중에싸여잇다는사실도잇스며기타중소지주들도대개소작인들을소환하여명년도부터는지례제(地例制)를채용하겟다고 언명하엿다고한다

二、소작료이외에여러가지구실을부처 무리한착취를 감행하는경향이잇다。

종래에는 지주가소작인들에게대하여 사음의집에 적치하엿든곡초를마당질(打穀)한든노력과또일년에한번식 지주의집을 수리하며울타리를 하는노동에 종사식힘뿐으로 한등노력상품질상 착취가업든것이 농지령실시이후에는 여려가지구실을부처 『가마니』라던지 또한 벼를운반하는데 운임까지도전부 소작인의부담으로하라는등 소작료이외에 부당의부담을 시키는듯한 사실이만흐며 일반지주에게공통되는 한경향을 이르고잇다

◇

그리고 다음농지령실시이후에 지주소작인간의 소작쟁의로 그의조정을 법원에신청한것은 전연업건도업스며 또한 농지령실시이후에 혹다른원인으로 지가가폭등이곡가폭등 수처에대공장설치의 용지매수등에의함)하는사실은 만치만은 단지농지령의 실시로인하여 지가가변동되는것은 전연업다

◇

마지막으로 단지농지령의 실시로인하여서만 이러난특수한 사실이잇스니 즉종래소작권 여럽재도는대개한지주가 자긔소유토지를 매매할때 그중개는 거의농민의손을거치게되여 마침매매가 성립되면그매매공로로 인하여 새지주에게서 소작권을어게되는 관습이엿는데 농지령이실시된이후 부터는토지매매가 성립되여도 소작권은그냥구토지소유자로부터신소유자에게로 너머가기로됨으로 토지매매중개인에게 대하여서는 특수한중개수수료를 치룰하여야 되리라고하는 본도에서만볼수잇는 특수한현상을나타내고잇다

火賊林巨正 (59)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四의九

이때 좌변포도대장은 남치근이니 을묘년 왜변에 방어사로전공이 잇고 그뒤에 전라도의병사겸순변사(巡邊使)로 위명(威名)이 잇슨까닭에 비록 신임(新任)포장이나 상하의 신망이 년로무공한 리몽린의 웃줄이엇다 윤원형이 남치근을 청하야다가간세배의 형적과 과부모녀의종적을 렴탐하야보라고 부탁할때우포장과도 상의하라고 말하야섯다 리몽린은 일이생기는것을머리쌀 아프게도 녀기거니와 윤정승이 자긔의후배(後輩)인 좌포장에게만 부탁한것을 맘에 꺽갑게 녀겨서 남치근의 말하는것을 흥흥하고 듯기만하다가

『녕중추대감 분부시니까 념감께서두 협후허 아실리업겟지요』(이때 尹元衡의 벼슬이領中樞府事이엇다)

남치근이 말하는데 리몽린은필적 뛰다시피하며

『협후라니 될말이요』

하고 대답한뒤

『녕중추대감 분부가 기시기전에 나는 미리다 염탐해보앗소 녕중추댁 차지하나가 반명(班名)의집 딸을 빼서다가작첩하려구 그어미과부에게엉터리루 빗을 지워노쿠 빗을못내거든 딸을 내라구 위협해오든끄테 그날 그딸을 강탈하려구 성군작당(成群作黨)해가지구갓다가 화재에 다다죽엇다우 화재가 엇재서 나게되구 십여명이 엇재서 다죽게된것은 자세이 알길이업스나 과부모녀가 여러사람을방안에 드러안치구 술을 만양 먹여서 다들 취해쓸어진뒤에 불노쿠 도망햇단말이 근리한 추치인줄아우 간세배라면차지나간세배라구할까 닭은간세배의형적은 찻는것이 헛일일것이구 과부모녀는 닭은기집사람하고 가치도망하는것을본사람이잇다구해서 남부에서사람들을잡어다 단련하다가 아무꼬투리두 엇지못하고 맘엇다우 과부모녀가 서울안에잠복해잇스면 엇더케든지종적을차저낼수 잇겟지만 남부 북새에 어데를 고비원주한모양이요 령감두 념탐시켜보시우만 별수업스리다』

하고 말하얏섯다

리몽린의 망내아들이 어느날밤에 느직이 그아버지에게저녁문안을 가서 지싯지싯하고 섯스니 그아버지가 무슨할말이잇느냐고 물엇다

『향자 산림골서 회재낫슬때우물우에선든 향나무가 우물속에 들어가 박혀잇섯답지요』

『그래 그게 뉘작난 인것을너는 짐작하느냐』

『사람의힘으론 뽑을수업다구나무가 절루 뽑힌것가티 말들한다는데 그럴리치야어듸잇습니까』

『힘꼴이나 쓰는놈이 뽑앗슬께다 집에잇는 상가의힘으루는 뽑지못할까』

『상가가 향나무와 향나무박혓든자리를 보구와서 제힘가지구는 헤토머리 물지못하겟답니다 그향나무가 밋동이제법굵드랍니다』

『상가버덤 더센사람두 세상에잇지 업겟느냐』

『상가가 서울온뒤에 저버덤왕청뜨게 힘이센자를 하나만나봣다는데 그자가 지금서울안에서 돌아다닌답니다』

『그자두 기생방에나 다니는왈짜겟지 향나무섯든자리뒤에여러사람의 발짜국이 눈우에남어잇는것을 불끄러간사람들이 보앗다구 말들하드라기에 나는 범서 힘쓰는 왈짜놈이 한더먹기내기한줄루 짐작햇다』

『사람죽이구 불노흔것은 향나무뽑은자의 한짓으루 보시지안습니까』

『향나무 뽑힌것이 회재낫을때비로소 여러사람 눈에 뜨이엇다구 한데관련들부처서 이런소리 저런소리 하지만 실상 향나무는 향나무대루 뽑히구 회재는 회재대루 나구 그사이에 아무관련이 업슬께다』

『힘센자가 아니면 십여명을 엇더케 몰사죽엄시켯겟습니까』

『네말태루 힘센자가 혼자사람을 죽엿다구하자 그자가향나무를 뽑아 노쿠갓것이 무슨의사겟느냐』

『물길어오는사람들이 물을 얼른 길어내지못하두록한게 아니겟습니까』

『여러사람이 우물에서 나무하나들어내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리라구 수탐하기조혼 표적을 뒤에남길 어리복손이가어디잇단말이냐 사람이 무슨일을 당한든지 첫재 일의갈피를 잘잡어야 쓰는법이다』

리몽린의말에 놀려서 그아들은 말을더하지못하얏다

載寧 音樂、童話、講演大會

△時日 一月三、四、五、三日間
△場所 載寧西部禮拜堂
◇主催 載寧少年少女勉勵會聯合會
◇後援 東亞、中央、朝鮮三支局

謹賀新年

神戶

兵庫縣西宮市用海町百五十九番地 米穀雜貨商 崔滑成

兵庫縣武庫郡鳴尾村本鄉角田十六番 安昌彥

大阪市港區毛馬町九百十二番地 日鮮滿海陸物 丸富商店 主 朴富根

兵庫縣西宮市今津西通南一四九六番地 辛容文

兵庫縣西宮市產所町一七 綿絲布木雜貨商 安泰云

兵庫縣武庫郡武庫村守部 內鮮相助會青年部 部長 崔章浩

兵庫縣西宮市津門角江 太平朝鮮레코-드販賣店 崔章浩

兵庫縣武庫郡鳴尾村字上田六地 綢緞布木商 李相壽

兵庫縣武庫郡武庫村守部 帝國美容學院師範科出身 本院教授科教師 李奉熙

兵庫縣西宮市東濱町 陳鳳律

兵庫縣西宮市用海町一九五 崔漢龍

兵庫縣武庫郡武庫村守部 內鮮相助會總本部 會長 金南出 外役員一同

兵庫縣西宮市今津字路一二三ノ二 金龍判

兵庫縣西宮市今津字宮前 金義周

兵庫縣西宮市東町一丁目 朴永根

兵庫縣川邊郡立花村 三反田字尾濱三五一 文性仁

兵庫縣西宮市東濱町 崔乙祚

兵庫縣西宮市今津東濱 李愚瑛

兵庫縣西宮市今津西濱 金正述

兵庫縣武庫郡瓦木村上新田 林正洙

兵庫縣西宮市今津 河萬澤

兵庫縣西宮市今津在家 崔奉奎

兵庫縣西宮市用海町 車京允

兵庫縣川邊郡稻野村池尻 尹柱實

兵庫縣西宮市東濱町 河蓓龍

兵庫縣西宮市用海町 孫尙云

兵庫縣武庫郡鳴尾村中津九一 朴成祚

平南寧遠郡零時 吾北鑛業合資會社

零場

大昌鑛山 李士俊

平北寧邊郡零時 食料雜貨 穀物買賣 鑛山用達 海陸物產 委託販賣 共信商店

零時 朝鮮料理御會席 零成館 主 徐處闢

零時 穀物買賣 綢緞布木 利洋雜貨 零時農民共生組合

零時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田季春

零時 昭和洋服店 主 金習根

零時 申光振

零時 林昌奉

零時 公醫 白承燈

零時 加別共盛組合

零時商務組合

永興金銀細工所 主 崔貫永

零時 金鎬洪

큰役軍養成機關 우리學校의자랑

崇義女學校

女中等校로嚆矢 俗稱"監獄"의寄宿舍

崇義女學校 吳文煥氏 談

우리학교의 특색은 매우 만습니다。 삼자수명 하기로유명하야 조선의베니스라는 일홈을듣는평양 그중에도상수구리언덕서 구비구비흐르는보통강의 맑은물과 풍악산의 느진가을나려다 보면서 잇슬뿐아니라 날마다서편으로 발전되여 나가는서성리일대의모든공장과산처럼싸힌보통벌의버덤이를 바라보는것도 우리학교의특색이오 화려한자연의파촐한고지(基地)안에귀희요조가옥어지고 푸른잔디가이롱답게 깔니여 잇연히선경을 일우어노핫는데 나무가지의 새노래와 풀닙아래의버레소래가 한가지로조화될때 문통으로 기여나오는피아노의 멜로듸도다른곳에서 흔히보지못하는 우리학교의특색이오 비장충천 이오 명장경인이란세움으로 다른사람이별로보지안는곳에서 테니스·바스켓볼、발네볼등가지가색의 운동을 열심으로련습하야 흔히는대회에출전하지아니하나 지난번에는 관서체육회주최의 정구대회에 나아가 비록석패는하엿슬망정 조선의선수권을 어든선수와 최후를 닷토아 일반관중의 이목을놀래인것도 우리학교의 특색이오아직조선녀학교로는 오년제가업는 이때에우리학교만이 오래전부터 오년제의인가를 어더오늘의 지정학교까지되는것도 우리학교의 특색입니다。

古色蒼然한넷大門 白髮孃鮮于校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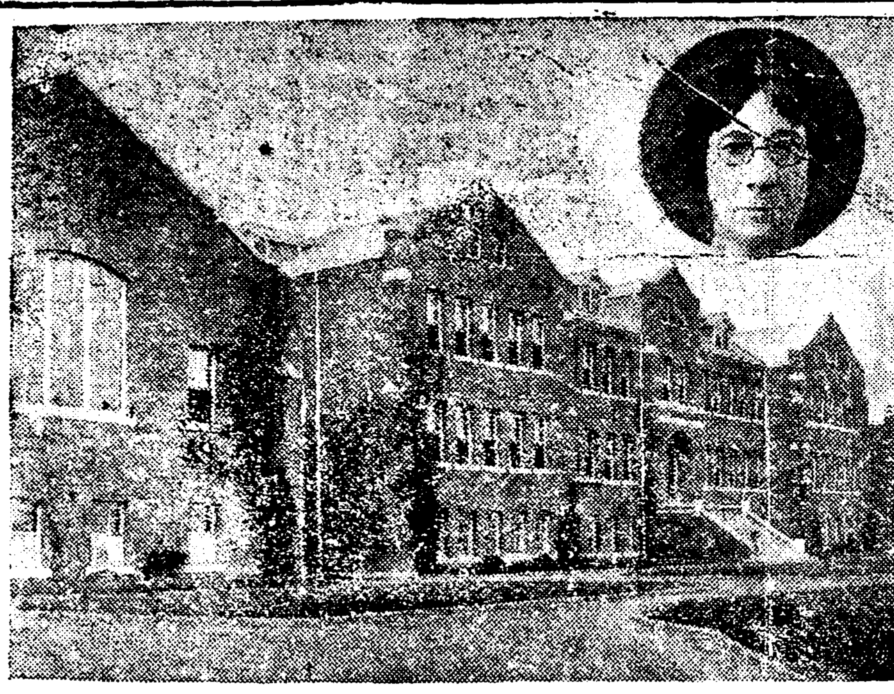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우에말한몃가지로 우리학교의특색을 삼고저하지 아니합니다 하수구에서 상수구등을가려면 신학교의 동편대문과평양녀자고등 보통학교의 모ー단식 정문을지나 외편으로 돌과흙을섞거쌓은 긴담장과 어둥컴컴한기와집에보기에도 무수한 집인것가튼 큰대문간이잇고 그우에는 금색으로찬란하게쓴 간판한개가 달려잇습니다 요지음평양뿐이 아니라 여러다른곳에서도 집이나 무엇이나가다 신식으로변하야 학교의 정문가튼것도 여간신식으로 진화되지를 안엇습니다。 아마우리학교의 대문간가튼것은 다른곳에서 별로 차저보지못할것 갓습니다。 그럼으로 우리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밭을 지나가는사람으로는 여러가지로 이대문간에대하야 자긔의의견을 말합니다。 그들의평하는것을 종합하야말하면 대문이 너무넷것이되여 자미업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이대문을 우리학교의 특색중하나로생각하야 이것을다른사람에게 자랑하고 스사로깃버하는것입니다。 이대문은 우리학교가 삼십일년전 창립되여 여긔에다 터를 잡고지으면서 이대문간을 짓고 이대문을 만드러단것입니다 이대문을짓고 이대문을달때에는 조선안에 녀자중등학교는 우리학교외에 한곳도 업섯습니다 이대문간이생긴이후 지금까지 륙백여명의졸업생이 사변 홍은오년동안 이대문을 드나들엇고 삼천사백여명의수업생들이 이대문을 졸업하여엿습니다 또한 금자로쓴간판은넷졸업생이 긔념으로준것입니다 이일을생각할때 이대문은 과연우리학교의 특색과 자랑만이아니라 조선녀자중등교육사상 대서특필할만한귀여운 대문입니다。 지금도 전에는꼿다운 아가씨로 책보를 손에 들고 머리에 삿갓을 쓰고 이대문을드나들든 졸업생들이 시월상십일일의 창립긔념일이나 졸업식이나되면오、륙십의 늙은 할머니가 되여 손자들의손목을 두손에잡고 이대문은 자긔가 이학교에단닐때에도 잇는것이라고 넷말처럼말합니다

그뿐아니라 우리학교에는 삼십일년전에 우리학교를 창립하시고교장이되여 지금까지 끄을고오신 백발로양이 계신데 그어른은 곳선우리(鮮于利) 교장이십니다 아마전조선을 통하야볼지라도삼십여년전에 학교를 창립하고교장이되여 지금까지 출근일보시면서안저계신이는 다른곳에 업슬줄로압니다 우리학교 북편에하늘을찌를듯이 줄로서잇는 포푸라의로방목(路傍木)은 선우 교장이 친수로 심어가수어온나무며 언덕우에나라가는듯이 상층 훌은사층으로건평일천삼백팔십평의보관고숙사가사제를건축하야설비정연하게맨드러 노흐신이도선우교장이며우리학교의선생중대부분은선우교장이친수로교양하야길너낸우리학교졸업생입니다 압흐로 정년긔(停年期)를 해얇두고오래벳친구와 넷졸업생을차저 학교의백년대계를위하야 긔본금을 운동하며 대강당건축을계획하고잇습니다선우교장이 떨니는목소리로 나의사랑하는 조선의친구들이여 내가귀국하기전에 우리학교의 재정적긔초가확립되고 쓰기에넉넉한 강당을지여 학생들이 편안하게안저서 하나님께례배볼수잇스면드러가백끝이 되지라도여한이 업겟습니다늘할때평양유지인사와 학부형은 감격의 눈물을흘리며 후원회를 조직하엿고 그에게 친히길리움을 바든졸업생들은 선우교장이 귀국하기전에 강당을짓고 거긔에서명년마즈막창립긔념식을보시고가시게하기위하야강당건축비로동창회지에서졸업생들이 치석을 닛고활당석에서천여원을거금하고지금각동하는중입니다 각지에잇는 친구비가날마다모히는중임으로이어른의리상하시는강당도불일성지(不日成之)가될줄압니다

◇崇義女學校舍全景과鮮于校長

俗稱監獄寄宿舍 數百學生보금席

우리 학교의 긔숙사가 또한특색중의하나입니다。 우리긔숙사야말로 한십여년전에 큰문제가되엿스며 사회여론의 초점이되엿드랍니다 그때에는『감옥』이라고 까지하야 학생을 마음대로단니게하지안코 사람들이 마음대로만나보지못하게함을 크게 원망하엿습니다 우리긔숙사에는 지금일백 팔십여명이나되는 만흔 학생이살고잇는 큰가정이며 평양부내에 주소를가저 자긔의 친부모형제가보호자가되여 잇지안는 학생은 반다시긔숙사에 드러 올것과긔숙사 학생의 일반레베회견은 교장이나사감의 허락을 요한다는 명문이 싯퍼럿케 잇습니다。 그럼으로어떤청년은 긔숙사에잇는 학생의 아모것처관계도업고 또는불일지도어서 공연히보려왓다가 큰나가는일도잇다한 잇는일이며 되런사람이 와다가서는『감옥』이드두자가 아닙니다『먼곳에잇는』『형무소』니 말을떠돌니는일도 한탁을 실행함으로 학부형들은여간 안심하고 깃버하지아니하며 요권을 학교에맛겻스매 학교는그부형들이 자긔의귀한 딸들의보호지옹훈히보도회(保導會)에서문제되는 외지학생의 하숙문제와기차통학생의어려운 문제가튼것도 우리학교와는 거리를 멀리하고잇습니다 긔숙사에서 매월당번을정하야 옴식준비、숙사내외의청결、세탁가튼것을 차례대로마타보며 일년에한번식하는 김장가튼것도 긔숙사학생 총출동으로하야 가정주부로서의 할것을 다준비하고잇습니다 학생들이 처음들어 올때에는 밥짓기 지음줄모르든 학생이라도 졸업할때에는 훌륭한주부의할일을 다배화가지고 나아가게됨니다 요시음실제교육을 만히맙하야 여러가지계획을 진행하는중이지마는 우리 학교는 삼십년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잇습니다 년년히 숭의김치를 한번맛보기를 원하야 만흔단체가 옴식주문을하나 학교의사정이 번번히 수응치못하고 일년에한번식이나 경우와형편을보아 수응하는일이잇습니다 사회도 점점리해하게됨으로 지금은 우리학교 긔숙사의 모든제도와하는일을 칫찬하게되엿슬뿐 아니라 어떠한부형은 학교의 다른조건보다도 긔숙사의완전함을보아 우리학교로 자긔딸을보내는일이 만케되엿습니다 세상은 넷날에『감옥』이라고 악평을하엿슬지라도 여전히 이백기까운학생들이 꼿피는아츰과 달돗는저녁 그의품에안기여서 배우고먹고 무럭무럭자라는보금자리가되여잇습니다



◇平壤正義女學校舍와現校長貴愛多氏

永生高普校

世界的文豪産出 教職員의誠勤

校長 金觀植氏 談

함흥부내운흥리(雲興里)에문득소사잇는삼층양식건물이 반룡산록에서 함흥시가를바라보며 함흥의주인공을 꿈게건전하게키웟다는듯이 웅대한자태를 자랑하는교사가곡 함흥영생고보이다 이학교는 지금으로부터이십구년전 영국 선교사회에서 창립하야당시에는 부내신창리 조고만한교사에 학생칠팔명을 교양하다가일진월취하야일천구백구년에영생중학교 인가를어더고 일구일삼년에일홈을영생학교로곳치엇스나 일구이공년에이르러 불행이도 화재를만나 교사를 모다일허버리고 신창리교회당을 가교사로정하고천신만고하다가 현교사로 이전하여 재단법인 영생고보로승격되엿다그동안 달이바귀고 해를거듭한지삼십년간 영생고보가 우리함흥교육계에 준공적이 실로크다할수잇스나 우리는동교 경영자에게사의를표하는동시 금후의 더큰긔대를가지자!

◇同校校長金觀植氏

校長金觀植氏談

우리학교는 삼십년이란 긴력사를 가지엿슬뿐 아니라 천여졸업생중 출세한사람을 일일히 셀수는업지만세계적 문호(世界的文豪)(在米國草堂姜鏞訖氏를가라처)를양성하엿고 교사는물론 우리조선에서 흔히 볼수업는 대강당을 소유한것이우리학교의자랑입니다 그외에직원들의 협동정신에 발을맛추어덕(德)지(智)체(體育)에 력(力)을가하야 전인교육(全人敎育)을시키란는것이 나의방침이올시다또경제적 지반이튼 충실한지도자가나서서 교육보급의 깃발을들고 허위에서진실로 태만(怠慢)에서근로로 부럽에서통일로 비겁에서용감으로 전진하겟다는 것이전교생의정신이외다

永生女高普

北朝鮮最初女校 標本女性養成

校長 麥愛蓮氏 談

수백의졸업생을세상에보내고도현사백여의 현모(賢母)를기르고잇는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는일본과북에유일한 녀성교육 긔관이라 누가말치안흘가? 이학교가오늘의찬란한자태를 우리함산(咸山)에존재하기까지어떠한경로를 밟엇스며어떠한사람의공로이엇섯든가? 지금으로부터삼십이년전 사월에 영국녀선교사마의대(馬義大)씨가조선에건너와 부내락민정(樂民町)신사라(申士羅)의집옷방을빌려 학생여섯명을 모아노코공부시킨것이 이학교의 전신이엿섯스니그당시이름을 영생녀학교(永生女學校)라하엿다한다 그리하야 날이가고 해가박귀이면서 새로수입되는시조(時潮)를따라 이영생녀학교가점점성장하여짐으로대정이년에는 보통과에다고등과(高等科)제도를만들엇다가 소화사년십월에비로소오늘의영생녀자고등보통학교의인가를 어덧다 이와가티 다른나라사람이 우리들의 녀식을위하야삼십여만원을 희사하여 벽돌사층교사를 신축하고꾸준히노력하는이용단적 희생을누가 찬성치안코랴우리는 꼿까지 사의(謝意)를표하여주어야한다 그러나 일정한 재원으로 만흔녀식을 무제한으로 기르기는 균형(均衡)이 맛지못하야 그경영에지장이 업슬가 념려하는일부 함흥이사는 꼿후원회를 만들고금번 최엽부터 이사상마원 재단법인을 만들고 실행에착수준비 한다한니 엇지깃분소식이아니랴!! 함흥사람이여!! 이런장거에다가터 희사를앗기지맙자

校長 麥愛蓮氏談

우리학교는북조선에서도제일처음 된학교올시다 북조선녀성이 독특히 소유한실소성(實素性)과신앙에다건전한단련을주입시키는동시수회에빠진엽시시류에몰동입시실로조선녀성계에표본적(標本的)주인공을만들아는것이나의교육방침이외다더욱이 직원생도 부형간이 문자그대로협동보조(協同步調)가 일치한데 다가금번신설될부터 본교후원회까지 되여 장단을맛추어주니 우리학교 장래에 반다시서광이 크리라고자신합니다

◇元山樓氏女高普校舍全景과 校長車善氏 副校長梁在順氏 (昨報須彼嶷女校舍寫眞은誤計임니다)

農地令實施以後 各道의農村情勢

忠南道

期待와는正反對 地主跋扈는依然 小作人困況은去益激甚

大田支局 一記者

충청남도은원래봉건적(封建的)사상이철저한곳으로방방곡곡에서량반만찾고잇는동안에외래의대재벌(大財閥)이급작히드러밀려 상업권과공업권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광대하고비옥한 토지까지대부분이 재벌의소유가되고 말엇다 그러므로다른곳보다 소작인의수효가 훨신만흔곳이니만치 작년십월이십일에 실시된농지령(農地令)은지세가지주의 부담이며중간착취귀관이나사음(舍音)에게주는말세를 밧지못할뿐아니라 경작지의이동을 지주마음대로 하지못한다는 말을들은 일반소작인들은 깃붐을참지못하는동시에그실시의 날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여섯든것이다

그러나 실시를보자 마자오히려 소작인들에게는 도리여 크다란실망과 공포심을 늣기게되엿다는데 그리유는 농지령자체의결함과 일반소작인의 무리해를 역용하야령리한지주들은괴묘한수단으로더한층발호하게되야지세와말세를도조(賭租)에다첨부하야전에보지못하든고률의집도(執賭)를하게되므로 전수확의륙칠할내지 팔구할 그리고엇든곳에는 전수확의전부를 밧처도오히려 모자르는 참담한곳까지잇섯다한다

더욱주목되는바는 금년에는 전례업는 저울(衡)을사용하게 되야보통일백팔십근에다가 심한자는 이백근식이나 증수하게되니 이것은 말세를 밧는것보다 오히려지주에게 리익이 잇는까닭이다

法院에나타난 爭議調停狀況

이상과가티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밧지못하는 지세와말세를도조에다 첨부하야 밧겟다는무리한요구에는소작인들도더참을수업서서 조정령(調停令)에 호소하게되니 이것이 그들의 최후적행동이다 농지령이 실시된지 불과월여인 자난 십일월삼십일까지 충남도에서발생된 소작쟁의건수는 사백사십구건이라는놀라운수자로전조선적으로 최고긔록을 나타내고잇는데 이로보아서도 지주소작인간의관계를 넉넉히짐작할수잇다

조정령이라는것은 그자체가 쌍방의 의견을드러 조정하는것이니만치조정시에는항상지주와소작인은각각자긔의리익될점을주장하게되는데미일추수전이면조정위원은직접감정을 하여공평한 조정을할는지 모르나대개가 추수후에이러나는 관계로결국은 그의거할곳이업서서 절충주의를 쓰게되야소작인은 한섬낫다고하고 지주는석섬낫다고하면 이것을 두섬낫다고인정하게되니 실지로한섬밧게 아니난것이라면 소작인은 얼마나억울할것인가 이상과가튼 절충주의가조정의 원리와가티 생각하고잇는현상이니 이것은 또한모순이라고 안이할수업다

耕地價格은 別無變動

이상에도 말한바와가티 농지령이 실시되면 자긔의 땅을자긔의 마음대로 못하게되니『누가땅사서 소작을 줄사람이 잇겟나』하는것이 전반적긔상이엿스나 농지령실시를 보게되자 예상이외로 도리혀경지의가격이 폭등하게되는현상이다 그리유는 금년도미가의폭등으로 농촌경긔에 다소완화를보게된것은 원인의 하나이나 그보다도 농지령이 지주에게한등의 장해가업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 안인가한다 도리혀농지령실시후 지주에게 편리하게된점은소작인은 완전한보증인이 이상인을세우게 되는것 두량(斗量)으로하든대신에 근량(斤量)으로 하게되야 두량보다 리익이잇는것또소작조정령이잇서 절충주의를쓰게되는 점등을들수잇다 그러므로경지의 가격에는 한층의지장을밋치지안이한다고볼수잇다

◇結論

이상에말한바와가티 농지령은그자체가 가지고잇는결함이만코 아직그리해조차 일반소작인에게 보급되지못하야 소작인에게 당국에서 말하는바와가튼 리익을주지못할뿐외라 도로혀 전긔모든약점을역용하는 지주의횡포는 일층더하여가는데 당국자는 모름즉이 농지령개정과 일반소작인에게 하로밧비농지령에대한지식을 보급할필요가잇다고생각한다

咸南道

暴風傾向濃厚뿐 아즉別無異狀

注目할今後의二大問題

咸興支局 一記者

수개년을 두고 난산을 거듭하고 잇든 농지령이 실시되지도 이미이개월여를 지내엿다 그리고 미리부터 예긔치 못한바는 아니나 엿겟지만과연 지주소작인 그리고그중간에개재한 가장미묘한존재인 사음(舍音)의 삼자간에서로 농지령을 에워싸고 각자의리익을 보장하겟다는 자연적충동을 피치못하게되니 그러치안허도 극도로의회하여가든중남부 조선지방에는 바야호로때아닌 선풍시대를 이르키고잇다는것은 매일가치 신문지상에서 목도하고 잇는현상이다 그러나가튼조선땅이면서도 아직것 북조선지방에는 의연침묵을 직히고잇스며농지령를 마이동풍격으로 대하고잇스니 과연북조선의 지주대소작인은 그네들의 리해문제를위하야 이농지령이란것을 리용할하등의리해상 갈등이업는가? 그러치안흐면 폭발의 전야에잇는 무긔미한 분위긴가? 이제 북조선에잇서서의 토지관계가서남조선지방과는그성질상에잇서서 현저한차이가 업다는점과아울러 농지령실시이후에 적으나미약간의영향을 주어잇다는사실을 들추워보기로하자!

첫재북조선은 남조선에비하면 수백정보이상을 소유한 소위대지주가업다 소화팔년도말 함남도농무과의조사이 의하면 백정보이상소유의지주는 불과이십사명박게 업는현상이며 겸하여토질이 남조선에비하면 보잘것이업슴으로 외래토지재벌의침입이 극히적으며 혹잇다고하여도 대부분은 공장등지의용지소유자들뿐이다

◇

둘째로는 남조선지방에 비하여자작농급자작겸 소작농이 대단히만코순소작농(細小作農)이라는것이극히 적다는것이다 통계상에나타난수자에의하면함남전농업자호수 십칠만이천 이백륙십호에대하여 자작급자작겸 소작농은십일만구천 팔백삼십칠호로 약칠십퍼ー센트가량되여 순소작농은사만팔천사백칠십사호로 전체의약이십삼퍼ー센트밧게 못되는현상이니 함남에소작쟁의가 타도에비하면 적다는것이 이러한원인도아닐는지?(이상통계는 함남도농무과농업통계서에의함)

◇

셋재는 남조선지방에 잇서서가장 문제를 이르키고잇는 사음이란는것은 북조선 지방에는아직것 그존재가 업다는것이다 이상세가지 사실에서 대개북조선은남조선과가튼 첨예화한 소작관계가비교적 적다는것이다 이제농지령이실시된이후적으나마일반의동향을살펴보면대개다음의두가지라고하겟다。

一、종래의반분(半分)타조제를폐지하고 지적에대한 일정한소작료를 증수하게되는 경향이만허진것

종래북조선지방은 전긔한바와 가티 그다지첨예화한 소작관계까지이르지안이한만큼 소작료 제도는대개반분타조 지례(地例)로토지적에의하여 작료를획으로 계산증수하는제)화리(禾利)(고경전에일년간토지의 경작권을파는제)의삼제로구분할수잇는데 그중 대부분이 반분타조로 천재지변이잇거나업거나 수확의전부를 반분하여곡초(穀草)그대로 경작지상에서반분식 분배하여 량편에서가지게됨으로 리해관계가 서로일치하여쟁의등도 만치안헛스나 농지령이실시된이후에는 대지주측 대부분이 반분타조제를폐지하고지례(地例)제를채용하는경향이 현저하여방금함흥부내 모부호와가튼 지주는자긔소유의약사백여정보의토지전체를 사사로종량사를고입하여『드평』을 제외하고 다만경작할수잇는토지만 종량조사를 한결과것은 종래의반분타조제를 폐지하고일두락(一斗落)에 대하여 벼일석이라던지 혹은 그보다도더혹히팔십평에 대하여 벼한섬이라는소작료를 증수하리라는 계획이라고관계소작인으로백명이전전긍긍한불안중에쌔여잇다는사실도잇스며기타중소지주들도대개소작인들을소환하여명년도부터는지례제(地例制)를채용하겟다고 언명하엿다고한다

二、소작료이외에여러가지구실을부처 무리한착취를 감행하는경향이잇다。

종래에는 지주가소작인들에게대하여 사음의집에 적치하엿든곡초를마당질(打殺)하는노력과또일년에한번식 지주의집을 수리하며울타리를 하는로동에 종사식힐뿐으로 한등노력상품질상 착취가업든것이 농지령실시이후에는 여러가지구실로써『가마니』라던지 또한 벼풀을반하는데 운임까지도전부 소작인의부담으로하라는등 소작료이외에 부당의부담을 시키는듯한 사실이만흐며 일반지주에게공통되는 한경향을 이르고잇다

◇

그리고 다음농지령실시이후에 지주소작인간의 소작쟁의로 그의조정을 법원에신청한것은 전연업건도업스며 또한 농지령실시이후에혹다른원인으로 지가가폭등이곡가폭등 수처에대공장설치의 용지매수등에인함)하는사실은 만치만은단지농지령의실시로인하여 지가가변동되는것은 전연업다

◇

마지막으로 단지농지령의 실시로인하여서만 이러난특수한 사실이대개한지주가 자긔소유토지를 매매할때 그중개는 거의농민의손을거치게되여 만일매매가 성립되면그매매공로로 인하여 새지주에게서 소작권을엇게되는 관습이엇는데 농지령이실시된이후 부터는토지매매가 성립되여도 소작권은그냥구토지소유자로부터신소유자에게로 너머가기로됨으로 토지매매중개인에게 대하여서는 특수한중개수수료를 치불하여야 되리라고하는 본도에서만볼수잇는 특수한현상을나타내고잇다

火賊林巨正 (59)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四의九

이때 좌변포도대장은 남치근이니 을묘년 왜변에 방어사로전공이 잇고 그뒤에 전라도의병사겸순변사(巡邊使)로 위명(威名)이 잇슨까닭에 비록 신임(新任)포장이나 상하의 신망이 넌로무능한 리몽린의 웃줄이엇다 윤원형이 남치근을 청하야다가간세배의 형적과 과부모녀의종적을 렴탐하야보라고 부탁할때우포장과도 상의하라고 말하야남치근이 리몽린을차저오려니 잇섯다 리몽린은 일이생기는것을머리쌀 아프게도 녀기거니와 윤정승이 자긔의후배(後輩)인 좌포장에게만 부탁한것을 맘에 꺽갑게 녀겨서 남치근의 말하는것을 흥흥하고 듯기만하다가

『녕중추대감 붙부시니까 녕감께서두 협후히 아실리업겟지요』(이때 尹元衡의 벼슬이領中樞府事이엇다)

남치근이 말한는데 리몽린은필적 뛰다시피하며

『협후라니 될말이요』

하고 대답한뒤

『녕중추대감 분부가 기시기전에 나는 미리다 염탐해보앗소 녕중추댁 차지하나가 반명(班名)의집 딸을 빼서다가작첩하려구 그어미과부에게엉터리루 빗을 지워노쿠 빗을못내거든 딸을 내라구 위협해오든끄테 그날 그딸을 강탈하려구 성군작당(成群作黨)해가지구갓다가 화재에 다다죽엇다우 화재가 엇재서 나계되구 십여명이 엇재서 다죽게되엿든 자세이 알길이업스나 과부모녀가 여러사람을방안에 드려앉치구 술을 만양 먹여서 다들 취해쓰러진뒤에 불노쿠 도망햇단말이 근리한 추측이올시다 간세배라면차지나간세배란구할까 닭은간세배의형적은 찻는것이 헛일일것이구 과부모녀는 달온기집사람하고 가치도망하든것을본사람이잇다구해서 남부에서사람들을잡어다 단련하다가 아무끄투리두 엇지못하고 말엇다우 과부모녀가 서울안에잡복해잇스면 엇더케든지종적을차저냄수 잇겟지만 남부 북새에 어듸루 고비원주한모양이요 령감두 녕탐시켜보시우만 별수업스리다』

하고 말하얏섯다

리몽린의 망내아들이 어느날밤에 느직이 그아버지에게저녁문안을 가서 지싯지싯하고 섯스니 그아버지가 무슨할말이잇느냐고 물엇다

『향자 산림골서 화재낫슬때우물우에섯든 향나무가 우물속에 들어가 박혀잇섯답지요』

『그래 그게 뉘자난 인것들너는 짐작하느냐』

사람의힘으룬 뽑을수업다구나무가 절루 뽑힌것가터 말들한다는데 그멜리치야어듸잇습니까』

『회람이나 쓰는놈이 뽑앗슬께다 집에잇는 상가의힘으루는뽑지못할까』

『상가가 향나무와 향나무박혀든자리를 보구와서 졔힘가지구는 혜토머리 뽑지못하겟다에서두 뽑기어렵겟드라구 말합되다 그향나무가 밋동이제법굵든답니다』

『상가보담 더센사람두 세상에잇지 업겟느냐』

『상가가 서울은뒤에 저버렴왕청뜨게 힘이센자를 하나만나봣다는데 그자가 지금서울안에서 돌아다닌답니다』

『그자두 기생방에나 다니는왈짜겟지 향나무섯든자리뒤에여러사람의 발짜국이 눈우에남어잇는것을 불끄러간사람들이보앗다구 말들하드라기에 나는 벌서 힘쎈쓰는 왈짜놈이한터머기내기한술루 짐작햇다』

『사람죽이구 불노흔것은 향나무뽑은자의 한짓으루 보시지안슴니까』

『향나무 뽑힌것이 화재낫슬때비로소 여러사람 눈에 뜨이엇다구 한데관련을부처서 이런소리 저런소리 하지만 실상 향나무는 향나무대루 뽑히구 화재는 화재대루 나구그사이에 아무관련이 업슬께다』

『힘센자아니면 십여명을 엇더케 몰사죽엄시켯겟슴니까』

『향나무뒤 발자국들은 고만두구 네말대루 힘센자가 혼자사람을 죽엿다구하자 그자가향나무를 뽑아노쿠간것이 무슨의사켓느냐』

『불끌어오는사람들이 물을 얼른 길어내지못하도록한게 아니겟습니까』

『여러사람이 우물에서 나무하나들어내는데 얼마나 오래걸리리라구 수탐하기조흔 표적을 뒤에남길 어리복손이가어듸잇단말이냐 사람이 무슨일을 당하든지 첫재 일의갈피를 잘잡어야 쓰는법이다』

리몽린의말에 놀려서 그아들은 달든말을더하지못하얏다

載寧 音樂、童話、講演大會

◇時 日 一月三、四、五、三日間
◇場 所 載寧西部禮拜堂
◇主 催 載寧少年少女勉勵會聯合會
◇後 援 東亞、中央、朝鮮三支局

謹賀新年

神戶

兵庫縣西宮市用海町百五十九番地 米穀雜貨商 崔 渭 成

兵庫縣武庫郡鳴尾村本鄕角開十六番 安 昌 彥

大阪市旭區毛馬町九百十二番地 日鮮滿海陸物 丸富商店 主 朴 富 根

兵庫縣西宮市今津西通南一四九六番地 辛 容 文

兵庫縣西宮市産所町一七 綢緞布木雜貨商 安 泰 云

兵庫縣西宮市津門角江 太平朝鮮레코-드販賣店 崔 章 浩

兵庫縣武庫郡武庫村守部 帝國美容學院臨時科出身 本院講師科教師 李 奉 熙

兵庫縣武庫郡武庫村守部 內鮮相助會總本部 會長 金南出 外役員一同

兵庫縣川邊郡立花村三反田字尾濱三五一 文 性 仁

兵庫縣西宮市今津出在家 金 正 述

兵庫縣西宮市今津西濱 崔 孝 奎

兵庫縣川邊郡稻野村池尻 尹 柱 實

兵庫縣武庫郡武庫村守部 內鮮相助會靑年部 部長 崔 章 浩

兵庫縣武庫郡鳴尾村字上田六地 綢緞布木商 李 相 壽

兵庫縣西宮市東濱町 陳 鳳 律

兵庫縣西宮市用海町一九五 崔 漢 龍

兵庫縣西宮市今津字路一ニ三ノ一 金 龍 判

兵庫縣西宮市今津字宮前 金 義 周

兵庫縣西宮市東町一丁目 朴 永 根

兵庫縣西宮市東濱町 崔 乙 祚

兵庫縣西宮市今津東濱 李 恩 瑛

兵庫縣武庫郡瓦木村上新田 林 正 洙

兵庫縣西宮市今津 河 萬 澤

兵庫縣西宮市用海町 車 京 允

兵庫縣西宮市東濱町 河 蔚 龍

兵庫縣西宮市用海町 孫 尙 云

兵庫縣武庫郡鳴尾村中津九一 朴 成 祚

平南寧遠郡零時 吾北鑛業合資會社

零場

大昌鑛山 李 士 俊

零時 朝鮮料理 御會席 零成館 主 徐 處 蘭

平北寧遠郡零時 食料雜貨 穀物貿易 鑛山用達 海陸物産 委託販賣 共信商店

日本生命保險株式會社 田 季 春

零時 穀物貿易 綢緞布木 利洋雜貨 零時農民共生組合

零時 申 光 振

零時 昭和洋服店 主 金 晳 根

零時 公醫 白 承 燿

零時 林 昌 峯

零時 加別共盛組合

零時 零時商務組合

永興金銀細工所 主 崔 貫 永

零時 金 鍾 洪